

신약
9

BELIEVER'S BIBLE COMMENTARY
COLOSSIANS, THESSALONIANS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조성훈·김대영 옮김

BELIEVER'S BIBLE COMMENTARY
BY
WILLIAM MACDONALD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BELIEVER'S BIBLE COMMENTARY

COLOSSIANS, THESSALONIANS

WILLIAM MACDONALD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0-8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33-4
전화: (031) 914-2732, 팩스: (031)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Jeongbalsan-dong,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410-828, KOREA

차 례

약어표	6
저자 서언	7
편집자 서언	9
신약성경 개론	13
골로새서	21
골로새서 서론	22
1.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한 교리(1-2장).....	30
화목.....	52
2.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자들이 의무(3-4장)	85
그리스도인의 가정.....	102
참고 문헌	120
데살로니가전서.....	123
데살로니가전서 서론	124
1. 인사(1:1)	130
2. 데살로니가 성도와와의 개인적인 관계(1:2-3:13)	132
주의 오심.....	153
3. 실제적인 권면(4:1-5:22)	169

마지막 때의 징조들·····	183
4. 끝맺는 인사(5:23-28)·····	201
성화·····	201
참고 문헌·····	208
데살로니가후서·····	211
데살로니가후서 서론·····	212
1. 인사(1:1-2)·····	216
2.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1:3-12)·····	218
휴거와 계사·····	221
3. 주의 날에 관하여(2:1-12)·····	230
4. 감사와 기도(2:13-17)·····	241
5. 실제적인 권면(3:1-15)·····	246
6. 축복과 인사(3:16-18)·····	253
교회의 휴거·····	254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하는 주장들·····	256
환난 후 휴거를 지지하는 주장들·····	264
참고 문헌·····	277

약어표

- ASV-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FWG-그란트의 숫자 성경(F.W. Grant's *Numerical Bible*)
JND-다아비의 새번역(John Nelson Darby's *New Translation*)
JBP-필립의 의역본(J.B. Phillips' Paraphrase)
KJV-흠정역(King James Version)
KSW-(Kenneth S. Wuest's *An Expanded Translation*)
LB-현대어 성경(Living Bible)
NASB-새 미국 표준역 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B-새 영어성경(New English Bible)
NIV-새 국제역 성경(New International Version)
NKJV-새 흠정역(New King James Version)
RSV-개정 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V-개정역(Revised Version<England>)
A.D-주후(主後;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B.C-주전(主前; Before Christ)
NU-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

저자 서언

“신자 성경 주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진지한 학도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러나 어떤 주석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주석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은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준 다음 보다 깊은 연구를 하도록 독자를 성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본 주석은 쉽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집필되었으며, 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인상을 풍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구약 성경의 원어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말씀의 실질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딤후 2:15).

본 주석의 논조는 간결명료하므로 독자는 어떤 구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여러 쪽에 걸친 설명을 애써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 분주히 돌아가는 현대생활은 진리가 짧고 간결하게 제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구절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다. 많은 경우에 다양한 설명들을 소개함으로 독자로 하여금 어떤 설명이 문맥과 나머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주석은 어떻게 성경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만일 본서가 목적 그 자체로 사용된다면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덧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본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독려하고 주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심을 일깨우는데 사용된다면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모쪼록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독자의 마음에 빛을 비취 주시기를 바란다.

편집자 서언

“주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1950년대 후반에 어떤 성경교사가 엠마오 성경학교(지금의 엠마오 성경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충고였다. 그 중 적어도 한 학생이 지난 30년 동안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 교사는 본 “신자 성경 주석”의 저자인 윌리엄 맥도날드였고, 그 학생은 당시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본 편집자 아더 화스타드(Arthur Farstad)였다. 그는 평생에 단 한 권의 주석만 보았는데 헤리 A. 아이언사이드의 에베소서 강해서인 “하늘에 속한”(In the Heavenly)이 그것이었다. 10대 시절 어느 해 여름에 그 책을 숙독한 후에 아더 화스타드는 주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1. 주석이란?

주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는 주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최근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발행인이 성경에 관계된 책을 15가지로 분류했다. 따라서 혹 어떤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주석이 스터디바이블이나 심지어 성구사전, 성경지도, 성경사전 등과도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된다.

주석은 절별 혹은 단락별로 성경 본문에 대해 “논평을 하거

나”(comments) 도움을 줄만한 언급을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석을 저만치 제껴두며 “저는 단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경 자체만 읽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제법 경건한 말처럼 들리나 그렇지 않다. 주석은 단지 최선의(그리고 가장 어려운) 형태의 성경강해(하나님의 말씀을 절별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를 문자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주석들(가령 아이언사이드 주석)은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출간했다. 게다가 모든 시대 모든 언어로 된 유명한 성경강해서들이 영어로 보급된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강해서들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로서는 절망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이 “신자 성경 주석”이 간행된 것이다.

2. 주석의 종류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주석을 집필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주석은 매우 개방적인 것에서 매우 보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성경을 신앙과 삶 모두에 절대 충분한 영감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주석이다.

주석은 매우 전문적인 것(예를 들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구문에 대해서까지 세세한 설명을 가한 것)에서 매우 간략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범위가 넓는데 본 주석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전문적인 설명은 주로 각주로 돌렸으나 본문 해설에 관한 한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충 얼버무림 없이 충실히 다루었다.

맥도날드 형제님의 글은 “강해가 풍부하다.” 형제님의 글의 목적

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돕는데 있다.

주석은 또한 신학적인 진영에 따라서 보수적인 것과 자유주의적인 것, 개신교적인 것과 로마 카톨릭적인 것, 전천년적인 것과 무천년적인 것 등으로 나뉘는데 본 주석은 보수적이며 개신교적이며 그리고 전천년적이다.

3. 본서를 사용하는 방법

본 주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다음 순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대강 훑어봄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여기저기 조금씩 읽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특정 구절에 대한 참조

어떤 구절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 여러분은 해당 구절이나 문맥에 대한 설명을 찾아봄으로써 분명 적절한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3) 교리에 대한 연구

안식일, 침례, 선택, 삼위일체 등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을 찾아보라.

(4) 책별 연구

만일 성인 주일학교나 정규집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매주 해당 본문을 미리 공부해 뒀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토론을 하면 더 큰 유익이 있다). (물론, 만일 인도자도 본서를 주요 참고서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다른 주석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성경 전체에 대한 연구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상고해야 한다. 성경 전체에는 난해한 본문이 흩어져 있으며 본서와 같은 주의 깊고 보수적인 책이 당신의 성경공부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성경공부는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듯이 그 출발이 막막하고 아득하지만 조금씩 진보하면서 꿀맛과 같이 달콤한 시간이 된다.

맥도날드 형제님은 30년 전에 제게 “주석을 무시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신바 있다. 새 흠정역본(New King James text)에 맞춰 편집을 하면서 이 성경주석을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 봄으로써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석을 즐겨 사용하라!”는 충고를 독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신약성경 서론

“이 신약성경 책들의 역사적, 영적인 면에서의 가치는 그 책들의 수나 양에 도저히 비견되지 않으며, 그 책들이 삶과 역사에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여기 에덴에서 동이 트기 시작한 시대의 정점이 있다. 구약의 예언의 그리스도는 복음서의 역사의 그리스도요, 서신서의 경험의 그리스도와, 계시록의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신다.”-W. 그레햄 스크로기

1. “신약”의 뜻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깊은 바다, 혹은 그 중 한 책을 연구하는 비교적 작은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책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사실을 간략히 개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약속”(testament)과 “언약”(covenant)은 둘 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디아테케*)를 옮긴 것이며, 히브리어로는 한 두 곳에서 어떤 번역이 더 나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독교 성경상의 용어로는 “언약”이란 의미가 확실히 더 낫게 여겨지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하나의 협정, 맹약, 혹은 “언약”을 이루기 때문이다.

기독교 성경은 옛(혹은 “오랜”) 약속과 대조해서 “새” 약속(혹은 언약)으로 불리운다.

두 약속 모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으며, 따라서 모든 그리

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자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특히 우리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해, 또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의 그 부분에 보다 종종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거스틴에 의해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표현된바 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나 있다.”

2. 신약성경 정경

“정경”(canon, 헬-카논)이란, 어떤 사물을 측정 내지 평가하는 “기준”(rule)을 가리킨다. 신약성경의 정경은 영감 받은 책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러면, 이 책들만이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혹은 이 27권의 책 모두가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독교 초기부터 여타 기독교 서신 및 문헌들(이단적인 것을 포함해서)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책들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주장하기를 A. D 3세기 후반에 한 교회회의가 정경목록을 정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그 책들은 기록된 즉시 “정경적이었다.” 경건하고 분별력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들을 인정했듯이(벧후 3:15-16) 처음부터 영감 받은 성경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에서는 한동안 일부 성경(유다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어떤 책이 마태나 베드로, 요한, 혹은 바울, 혹은 마가나 누가와 같은 사도의 범주에 드는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을 경우

에는 그 책의 정경성에 대해 아무 의문이 없었다.

신약성경 정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회의는 사실 여러 해 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교회회의는 책들의 “영감된 목록”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영감된 책들”의 목록을 정비한 것이었다.

3. 저자 문제

신약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 및 히브리서의 익명의 저자(히브리서 서론 참조)를 감동하사 집필하도록 하셨다. 신약성경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최선의 정확한 이론은 “이중 저작권”이다. 신약성경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신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적인 동시에 전적으로 신적인 것이다. 신적인 요소가 인간적인 요소로 하여금 아무 실수도 범하지 않게 했다. 그 결과 원본상 무오무류한 책이 나오게 되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비견되는 유용한 유추는 살아있는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속성이다. 그분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이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희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신적인 속성이 인간적인 속성으로 하여금 여하한 과오나 죄를 범하지 못하게 했다.

4. 연대 문제

약 1천년이 걸쳐 완성된 구약성경(BC 1400-400)과는 달리 신약성경

은 불과 반세기만에(A.D 50-100) 집필되었다.

신약성경의 현재 순서는 모든 시대 교회를 위해 매우 적합한 순서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로 시작하여 교회를 말하고 그런 다음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끝으로 교회와 세상의 장래를 밝힌다. 그러나 이 책들은 집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다. 이 책들은 필요가 발생하는 대로 집필된 것이다.

초기의 책들은 필립스(Phillips)가 부르는 대로 “어린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다.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등이 기독교 첫 세기 중반에 기록된 최초의 신약성경들일 것이다.

복음서들은 그 다음에 기록되었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다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끝으로 아마도 1세기 끝 무렵에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5. 분류

신약성경은 내용상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역사서-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바울 서신, 공동 서신

예언서-요한계시록

이 책들에 대한 적절한 통찰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히 구비하게” 될 것이다.

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런 자질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본 주석을 펴내는 우리의 바람이다.

6. 언어

신약성경은 “일상 언어”(“코이네”, 혹은 “일상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영어만큼이나 잘 알려지고 널리 사용된 1세기 당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제2의 언어였다.

히브리어의 정감 있고 다채로운 표현법이 구약성경의 예언과 시 및 일반 해설에 꼭 알맞듯이 헬라어는 신약성경을 위해 섭리적으로 예비된 놀라운 표현 도구였다.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제의 정복 활동을 통해 널리 보급되었으며 그의 군대는 대중을 위해 헬라어를 단순화 내지 대중화시켰다.

헬라어는 동사의 시제, 격, 어휘 및 기타 요소들의 정밀성으로 인해 서신서(특히 로마서와 같은 책)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표현하는데 적격이었다.

“코이네” 헬라어는 지식층을 위한 문학적인 언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속 언어”(street language)나 조악(粗惡)한 헬라어도 아니다. 신약성경의 일부분(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은 거의 문학적인 수준에 이른다. 또한 누가는 때때로 고전적인 기법을 사용하며 바울도 때로는(고전 13,15장 등)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법을 동원한다.

7. 번역

영어는 많은(아마도 너무 많은) 역본을 지니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들은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인 유형으로 분류된다.

(1) 문자적인 번역

J. N. 다비역, 영어 개정역(English Revised Version, 1881)과 그 미국판, 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 등의 역본은 지나치게 문자적이다. 이것은 그 역본들로 하여금 연구를 위해서는 유용하지만 예배나 공중 성경공부나 암기를 위해서는 취약하다. 흠정역(KJV)은 위의 역본들에 비해 그 위엄과 미려함이 뛰어난데 그런 까닭에 많은 그리스도인 회중들은 흠정역을 선호해 왔다.

(2) 완전 직역(Complete Equivalence)

매우 문자적이며, 영어어법이 허락할 경우 히브리어나 헬라이어 표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동시에, 좋은 표현법이나 속어가 필요할 때는 보다 자유로운 번역을 시도한 역본들이 있는데 흠정역(KJV), 개정 표준역(RSV), 새 미국 표준 성경(NASB), 새 흠정역(NKJV) 등이 거기에 속한다. 불행히도 개정 표준역(RSV)은 신약은 대체로 믿을만 하나 구약의 경우 많은 메시아 예언들을 가볍게 다루는 과오를 범했다. 오늘날 심지어 전에는 건전했던 몇몇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위험한 경향이 엿보인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새 흠정역(NKJV)에 맞춰 편집을 했는데, 새 흠정역(NKJV)은 고어체 대명사(*thee*와 *thou*)를 사용하지 않은 채 미려한(그러나 고풍적인) 흠정역(KJV)과 현대 영어 사이에서 가장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대부분 현대어 성경에는 빠져있는 많은 동사와 단어들을 내포하고 있다(본 주석의 해설란에서 그 실례들을 볼 수 있다).

(3) 탄력적인 직역(Dynamic Equivalence)

이 유형의 번역은 완전 직역보다는 자유로운 번역으로써 때로는

독자가 그것을 인식하는 한 유효한 기술인 의역(意譯, paraphrase)을 사용한다. 모팻역, 새 영어 성경(NEB), 새 국제역 성경(NIV), 예루살렘 성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역본들은 요한과 바울이 만일 오늘날, 그것도 영어로 집필한다면 사용했을 만한 구조로 전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이러한 방법론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취해질 경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4) 의역(Paraphrase)

의역이란 본문을 개념 단위로(thought by thought)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 방법을 말하는데 이 번역은 종종 자료를 “추가”하는데 많은 자유를 누린다. 이것은 어휘 선택에 있어 원문을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나치게 장황한 번역”이 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현대어 성경(Living Bible)은 복음적이긴 하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상의 문제점들을 많이 내포한다.

J.B. 필립스의 의역본(그는 그것을 역본으로 부른다)은 문자적인 관점에서 매우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그는 거기서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의” 어휘로 의미했다고 믿는 것을 “그의” 어휘로 말하고 있다.

위의 네 유형 중 적어도 세 유형의 역본을 소유하는 것이 비교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에는 완전 직역본이 본 주석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은 세세한 성경연구를 위해 가장 안전한 역본이라 믿어진다.

골로새서

조성훈 옮김

골로새서 서론

“골로새서에 들어가서 성령에 감동된 교훈, 즉 성령의 감동으로 옷 입은 용어들을 봄으로 이 교훈의 빛과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은 현세와 내세에 있어 아주 값진 것이다.” -렌스키

1. 정경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들은 로마나 고린도, 그리고 빌립보와 같은 크고 중요한 도시에 있는 회중들을 위해 쓰여졌다. 골로새는 한 때 부강했던 도시였다. 골로새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에 별로 잘 알려진 교회는 아니었다. 만일 이 서신서가 아니었다면 골로새란 이름은 오직 고대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겨우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지역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보낸 편지는 매우 중요하다.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놀라운 묘사를 담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그에 대한 가치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서신서는 또한 신분 관계나 이단종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좋은 교훈들을 담고 있다.

2. 기자

19세기까지 골로새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그 증거들이 확실했다. 특별히 외적인 증거들이 강했다. 나중에 이 서신서를 인용하는 자들, 즉 이그나티우스나 순교자 저스틴, 안디옥의 데오빌로, 이레네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그리고 오리겐 등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글로 말하였다. 아르키온이나 무라토리 정경도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말하고 있다.

성경의 내적 증거로는 기자가 자신을 바울이라고 말한 것과(1:1, 23, 4:18) 그리고 내용이 모두 다른 바울 서신과 일치하여 기자가 사도 바울임을 말해주고 있다.

교리에 대한 설명 이후에 그에 대한 성도들의 임무를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의 글로 받아들이는 가장 큰 증거는 아마도 빌레몬서와의 깊은 연관 때문일 것이다. 짧은 빌레몬서에 언급된 다섯 사람이 골로새서에도 언급되었다. 레난(Renan) 같은 비평가도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서로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명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골로새서에 대해 바울의 저작권을 의심하였다.

바울의 저작권을 반대하는 가장 큰 요점은 용어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그리고 영지주의에 대한 언급이다. 먼저 용어에 대한 문제에 있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 대신 새로운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지난 시대의 보수적

인 영국의 학자 살몬(Salmon)은 아주 재치 있는 답변으로 반대자들의 말을 막았다.

“사람이 새로운 글을 쓸 때는 저작권 때문에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용어들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¹⁾

골로새서에서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그리고 요한 복음과 같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 세기에 발전되었던 이교도의 교리로 변질시키려는 자들만이 이 교리가 문제될 뿐이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스코트랜드의 자유주의 신학자 모팻(Moffatt)은 골로새서에 소개된 초기단계의 영지주의는 초대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믿었다.²⁾

이와 같이 골로새서에 대한 바울의 저작권은 확실하다.

3. 기록 연대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의 하나로 아마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전도자 빌립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바울은 그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바울은 용기가 있고 품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에베소에서 감옥에 있을 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기록연대에 대한 가장 타당한 시기는 바울의 첫 로마 감옥생활 중간으로 A.D 60년이다(행 28:30-31).

다행스러운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이 책의

1) George Salmon, *A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Books of the New Testament*, p. 384

2) *New Bible Commentary*, p. 1043

기록연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다.

4. 배경과 주제

골로새는 오늘날 우리가 소아시아로 알고 있는 프리지아 지역에 있는 도시였다. 골로새는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10마일, 그리고 히에라 폴리스에서는 남쪽으로 13마일에 있다(4장 13절을 보라). 또한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약 100마일 거리에 있는 곳으로 캐드미안 산맥의 입구로서(12마일이나 되는 긴 골짜기) 유프라테스에서 서쪽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군사 루트가 있는 곳이었다. 골로새는 서쪽에서 리디오게아 들람시를 지나 멘더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리쿠스(늑대) 강 언덕 위에 있는 도시였다.

히에라 폴리스에서 흘러 내려온 뜨거운 온천물이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과 라오디게아에서 만나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 라오디게아는 골짜기 도시였으며 히에라 폴리스는 건강 센터와 종교 중심지였다. 신약시대까지 골로새는 번창하였다. 도시의 이름은 아마도 거대한 석회암 거성을 일컫는 “콜로수스”(Colossus)라는 용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골로새 지역에 어떻게 맨 처음 복음이 전해졌는지 알 수 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그곳 성도들을 전혀 만나 본 적이 없었다(골 2:1). 일반적으로는 에바브라가 이 도시에 맨 처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골 1:7).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있을 때에 에바브라가 주님을 믿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브르키아는 아시아 지역의 일부인데 바울은 브르키아에 있었지만(행 16:6, 18:23) 골로새에는 있지 않았다(골 2:1).

당시에 활발했던 영지주의로 알려진 거짓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에 위협이 되었는지는 서신서를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없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지식(헬, ‘그노시스’)으로 인해 교만에 빠져있었다. 그들은 사도들 보다 더 고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들이 말하는 그 깊은 지식에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사람들을 유혹했다.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세력”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침례 받을 때 그 위에 임했다고 가르쳤으며 더 나아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그리스도는 그를 떠나갔다고 가르쳤다.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결과는 예수는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죽지 않은 것이다.

영지주의의 어떤 파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다양한 형태 또는 계급의 영적 존재들이 존재한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악의 기원, 마귀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였다.

A. T. 로버트슨(Robertson)은 이렇게 말했다.

“영지주의자들의 이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 우주와 악의 기원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물질에 악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이론은 물질에 악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물질을 만드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일련의 방산물들, 아이온들(aeons), 영들, 그리고 천사들이 있다고 믿었다. 한 아이온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그 아이온에서 또 다른 아이온이 나오고 그 아이온에서 또 다른 아이온…;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악한 물질이 하나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다.”³⁾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제도인 금욕주의를 실천해야 하며 심지어 고행이나 자기 학대도 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 다른 자들은 반대의 극으로 흘렀는데 그들은 악하고 음란하게 살면서 “육은 상관없다. 즉 육이 어떻게 살든지 그 사람의 영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두 이설들도 골로새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도덕률 폐기론자와 유대주의이다. 도덕률 폐기론은, 사람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육체를 통제할 필요가 없고 육의 정욕이나 욕심대로 하게 놔두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구약의 유대주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의식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준수주의로 퇴화되었다.

골로새에 있었던 이설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영지주의는 크리스천 싸이언스, 신지학, 몰몬교, 여호와증인, 유니티, 그리고 다른 조직들에 나타나 있다.

도덕률 폐기론은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있다. 유대교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서 히브리서나 다른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면에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주신 형식과 의식들이다. 이는 형식 자체들이 하나의 기념물로 전락되어 영적 의미가 크게 무시된 것들이다. 이것은 오늘날 종교계 안에 많이 모방되어 있는데 그들은 사람이 그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 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그 자신은 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3) A. T. Robertson, *Paul and the Intellectuals*, p. 16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격과 그 사역을 제시함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다루고 있다. 이 서신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와 아주 유사하다. 하지만 서로 반복되는 것은 없다. 에베소서는 신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골로새서는 반대로 신자를 하늘에 계신 그들의 머리되신 영광스러운 주님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골로새서에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있다는 것이다. 에베소서의 주요 요점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엡 1:23)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이 강조되고 있다.

골로새서에서는 “머리를 붙잡는 것”과(골 2:18,19)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과 함께 1장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에베소서의 155절 중 5분의 4 정도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개요

1.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한 교리(1-2장)

- (1) 인사(1:1,2)
- (2) 신자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1:3-14).
- (3)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1:15-23).
- (4)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1:24-29).
- (5) 철학과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주의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만족(2:1-23).

2.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자들의 의무(3-4장)

- (1) 신자의 새 삶 :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음(3:1-17).
- (2) 가정에서의 신자의 합당한 품행(3:18-4:1)
- (3) 신자의 기도생활, 그리고 말과 삶을 통한 전도(4:2-6)
- (4) 바울의 동료들에 대한 언급(4:7-14)
- (5) 인사와 소개(4:15-18)

1.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한 교리 (1-2장)

1. 인사(1:1-2)

1:1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서신의 서두에 저자의 이름부터 쓰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였다. 사도는 특별히 주님에 의해 사자로 보냄을 받은 자였다. 사도들에게는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후 12:12). 덧붙여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읽어볼 수 있다(행 8:15-20, 19:6). 좁은 의미에서 오늘날에는 세상에 사도들이 없다. 그래서 열두 사도들의 자리를 대신한 소위 사도 계승자라는 말은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전도자들이나 목자들, 그리고 교사들과는 대조적으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데 일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에베소서 2:20이 많이 인용되었다(엡 4:11).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있다(행 9:15; 갈 1:1을 보라). 이는 그가 스스로 택한, 또는 사람에게 의해 훈련받음

으로 택한 직업이 아니었다. 또한 인간의 어떤 조직에 의해 주어진 직책이 아니었다. “사람으로부터”(근원) 온 것이 아니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구)도 아니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를 불러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형제 디모데”였다.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태도에 전혀 어떤 관료주의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다. 두 사람은 그저 동등한 형제였으며 어떤 직함이나 가운 등으로 형제 사이를 나누는 성직제도가 그 곳엔 없었다.

1:2 이 편지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졌다. 여기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 있다.

“성도”라는 말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신실한 형제들”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아버지를 모신 자녀됨을 의미한다. 이들은 믿는 형제요, 자매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 “신자들”, 그리고 “제자들”로 불렸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들의 영적 신분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그래서 그 후로 그들은 그분의 생명과 속성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의 자손이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그분의 친아들로 보신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인간의 마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영접과 안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신자들의 지리적 위치는 “골로새에 있는”이라는 표현에 나타
나 있다. 만일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이 도시의 이름을 듣지 못했을 것
이다.

바울은 이제 사랑스러운 말로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
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보다 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는 별로 없을 것이다. “평강”은 유대인들의 일상
적인 인사말로서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사용한 말이며, “은혜”는 그
리스인들이 흔하게 사용했던 말이다. 바울은 이 두 단어를 합해 그
의미를 강조하여 사용하였다. “은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몸을 구
부리고 앉아 잃어버린 사악한 죄인들에게 사랑과 동정의 마음을 베풀
주시는 모습을 생각하게 하며, “평강”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
물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난 결과를 종합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

R. J. 리틀(Little)은 “은혜는 금액을 쓰지 않은 수표와 같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평강은 그리스도인의 유산으로서, 사단이 이를 강탈
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은혜가 먼저 오고 평강이 그 다음에 나온 이 순서도 중요하다. 만
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 대하지 않으셨다면 우
리는 아직 우리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 값 대신 돌아가시도록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평강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평강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이 단어들의 놀라운 의미를 말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이러한 축복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

2. 신자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1:3-14)

1:3 바울은 오늘날 기독교의 표어가 된 용어를 사용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또한 그는 아주 독특한 일을 했는데,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께 기도할 때에 감사로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이 된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한 것이었다. 기도는 온 우주의 주권자와 대화할 수 있는 말 할 수 없는 특권이다. 하지만 혹자는 “이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그 크고 무서운,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셨다. 신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함께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요 20:17).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말 자체로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혀 만나보지 못한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친척이나 친구들을 기억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을 기도 목록들을 한 번 생각해 보라.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언급된 멀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지치지 않는 기도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1:4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콜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 말했다. 우리도 언제나 여기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말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질문해보면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 이러한 사랑은 공허한 것이며 무의미한 것이다.

반면에 세상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그들 안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자들이 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의심했을 것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진실해야 하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에는 하나님과 또한 그 동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주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의 주체로 성경 말씀을 제시하셨다.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사실에 기초할 때만 유용한 것이다. 만일 은행이 부실한 은행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안전할 수 없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다. 믿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믿

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주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들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은밀한 신자들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사실 신약성경은 은밀하게 살려진 제자들을 별로 환영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진실로 구세주를 믿었으면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은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졌다. 그들의 사랑에도 전혀 어떤 인종차별이나 지역성이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동료들만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랑을 베풀었다. 이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랑도 우리의 지역교회 또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에만 국한되는 좁고 제한된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양들을 알아보아야 하며 가능한 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1:5 이 구절이 앞 구절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분명치 않다. 3절과 연결이 되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인가, 아니면 4절 후반절과 연결이 되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란 말인가? 이 두 경우 모두가 다 해석이 가능하다. 사도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게 될 장래의 기업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활용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인 세 가지 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이것은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언급되어 있다. 라이트푸트(Lightfoot)는 “믿음은 과거에 근거하고, 사랑은 현재에 일하며, 소망은 미래를 바라본다”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의 “소망”은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보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소망을 말한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골로새 성도들은 전에 이 소망에 대해 들었는데 아마도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들었을 것이다. 그들이 들은 것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었다. 여기에서 복음은 진실로 복된 소식으로 말하고 있다. 바울은 아마도 이 부분을 쓸 때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생각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진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요 17:17). 복음이 진리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1:6 복음의 진리는 골로새에까지 이르렀고 당시 알려진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온 세상은 아닐 것이다.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남녀(男女)가 다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어찌면 모든 민족들이 부분적으로나마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행 2장). 이는 또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제한 없이 넓게 전파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바울은 또한 성취된 필연적인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복음은 골로새와 세상 다른 모든 곳에 전파되어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었다”.⁵⁾ 이는 복음의 초자연적인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

4) J. B. Lightfoot, *Saint Paul's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p. 134

5) 비평 사본에는 “and growing”가 더해져 있음

사용되었다. 자연의 식물은 열매를 맺으며 동시에 자리지 않는다. 자연식물은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놔두면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그냥 잎만 무성하게 자란다. 하지만 복음은 둘 다 동시에 이루어진다.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가 맺히고 성도들이 세움을 입으며 도시에서 도시 그리고 민족에서 민족으로 퍼져 나간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타난 결과이다. 골로새 교회에는 상당한 성장이 있었고 성도들의 삶에도 영적 성장이 있었다.

제1세기에 복음의 큰 진보가 있어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전파된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다. 복음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사람에게 값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보다 어떻게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1:7 사도는 골로새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으며 또한 삶이 변화된 것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함께 종 된 자요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천거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분개함이나 시기심이 없었다. 다른 일꾼이 칭찬받는 것이 그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1:8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성령 안에서의 사랑”에 대해 들은 곳은 에베소였다. 이는 단순한 인간의 애정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형성된 주님과 성도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었다.

이 서신서에서 성령에 대해 언급한 곳은 이 구절뿐이다.

1:9 바울은 그의 감사를 마치면서 이제 성도들을 위한 구체적인 증보의 기도로 들어간다.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광범위한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의 기도의 제목들은 언제나 여러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에 아주 적합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여기에서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 기도제목 4가지를 말하고 있다.

- (1) 영적 통찰력
- (2) 합당한 생활
- (3) 큰 능력
- (4) 감사하는 심령

그의 기도목록은 평범하면서도 예리한 것이 있었다. 이는 특별히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주 분명한데 그는 “모든”, “온전히”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 (1)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9절).
- (2)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10절, 우리말 성경에는 ‘범사로 되어 있음-역주).
- (3) “모든 선한 일에”(10절).
- (4) “모든 능력으로”(11절).
- (5)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11절).

“이로써”는 앞 구절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에바브라에게 들은 소식 때문에”라는 의미이다(4,5,8절). 바울은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들과 그들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부터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기를 기도했다. 그는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의 교만한 지식에 만족하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기도했다. 이 지식은 세속적이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 또는 이해인데, 지혜는 지식을 가장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며, 총명 또는 이해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또는 배치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1:10 9절과 10절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연결이 있다.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했는가? 능력 있는 설교자나 인기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가?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진정한 목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있다. 여기 주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이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는다. 또한 우리의 교만이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다. 반대로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이 기쁨을 얻으시려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기 우리가 기억하면 도

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선행을 위하여 구원받는다. 때로는 영혼의 구원에 있어 선행의 무익함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믿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에베소서 2:10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는 말씀을 볼 수 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딤후 3:8).

바울은 그들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원했던”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자라기를” 원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함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실히 그분을 섬김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후자가 더 강조되는 것 같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함으로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아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호 6:3).

여기 1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식에 대해 다루며 또 다룰 때마다 보다 더 진전되는 것에 주목하라.

6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다.

첫째는 구원을 의미하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셋째로는 봉사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건전한 교리는 바른 행동으로 인도하는데 “순종의 봉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1:11 사도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이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함”을 받는 것이었다. (“채우게 하시고”- 9절; “열매를 맺게 하시며”-10절; “능하게 하시며”-11절; 여기 표현들도 점점 더 발전되어감에 주목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인간의 힘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는 초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알고 더 나아가 그분의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함을 알기를 원했다. 바울의 기도는 그분의 능력 중에서 얼마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능력을 따라 능하게 함”을 받는 것이었다. 그의 영광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도의 범위였다. 픽(Peake)은 “능력을 덧입는 것은 수납자의 필요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에 달려 있는 것이다”⁶⁾라고 말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갖기를 원했을까? 밖에 나가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였을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였을까? 이에 대한 답은 “아니오”이다. 이 능력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서는 방언이나 병 고침,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여러 가지 행동들, 즉 이적의 은사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러한 것들 보다 훨씬 더 큰 이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 중에 참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인내가 친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

6) A. S. Peake, “Colossians”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III: 499.

기서는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피조물들의 탄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기쁨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 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것이다.

“인내”와 “오래 참음”의 서로 다른 점은 불평 없이 견디는 것과 보복 없이 견디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은 신자들로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1:12 이 구절에서의 감사는 바울이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을 의미한다(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다). 바울은 그들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했는데 이는 그들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쁨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들이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사실 불신자들이 혹시 하늘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곳이 즐거운 곳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하늘의 즐거움은 그에 맞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본래는 하늘나라의 삶에 적합한 자들이 아니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선 곳은
그 어떤 곳, 심지어
영광이 거하는 임마누엘의 땅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위이다.” (안네로스 고우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즉시 그를 하늘나라에 적합하게 하신다. 그 적합함은 그리스도이다. 그것 외에 또 다른 것, 더 나은 것은 없다.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신실히 섬긴다 할지라도 그가 맨 처음 구원받을 때 받은 그 적합함에 그 무엇도 더할 수 없다. 우리의 영광의 타이틀은 그분의 피에 있다. 우리의 기업은 빛 가운데 있고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을 인해 기뻐할 수 있다.

1:13 우리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요일 2:11). 이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관리들의 채찍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두려운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 이와 같이 죄인들인 우리도 사단의 명에 아래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사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사단의 나라는 빛이나 온기, 그리고 기쁨이 없는 어두움의 나라인데 비해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랑과 빛 그리고 따뜻함이 있는 나라이다.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자 그대로의 왕국을 제의하셨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

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자기와 영적으로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만을 다스릴 수 있으시다. 그러한 사실이 분명히 알려졌을 때 그들은 그들의 왕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후로 주 예수님은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고 이제 하늘나라는 비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마 13장). 이 말은 지금은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게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왕이 지금 그 자리에 없다.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은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장래 주님께서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 수도를 정하시고 천년동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적들을 이기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바로 영원한 나라(왕국)가 시작되는 취임식이 될 것이다.

1:14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대해 말하고 난 후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광대한 주제 중 하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공부할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의 기도를 마쳤는지 아니면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이 순수한 기도가 아니라면 경배일 것이기 때문이다.

스트루즈(Sturz)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느 것보다 높이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에도 그분의 이름은 어느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놀라우면서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다.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면 그 누가 여기에 묘사된 말씀에

적합한 자란 말인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산에서의 마리아의 질문을 생각나게 한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 가리이다”(요 20:15). 그녀는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다.

먼저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⁷⁾ 죄 용서함을 얻었도다”라는 말로 제시되었다. “구속”은 우리가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산 것을 묘사한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격표를 붙여 놓으셨다. 얼마나 우리를 높게 평가하셨는가? 사실 그분은 “나는 나의 피를 흘려 그들을 살 정도로 그 값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값으로 산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값 주고 산 바 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좋을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윌리엄 보덴(William Boardman)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것을 훔치는 것으로서 우리는 도둑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초래한 빛을 탕감해 주셨다는 의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다시는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해결되었고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시 103:12).

7) “그의 피를 통하여”라는 말은 물론 이와 동급에 있는 에베소서 1:7에 분명히 나와 있다. 하지만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이나 대부분의 헬라어 사본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3.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1:15-23)

1:15 다음의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1) 하나님과의 관계(15절), (2) 피조물들과의 관계(16-17절), (3) 교회와의 관계(18절)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형상”이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주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분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요 14:9).

또한 “형상”이란 말은 “대리”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의 관심사를 대표하는 대리자로 아담을 이 땅에 두셨다. 하지만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관심사를 이행하도록 독생자를 대리자로 세상에 보내어 사람들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셨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독생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동일한 단어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는 것을 묘사하기 위하여 3장 10절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또는 창조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거짓 교사들은 주 예수님 자신이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예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큰 피조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들은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성경에서 “첫태생”은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마리아가 그의 첫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 말은 주 예수님이 그녀가 낳은 첫 아이였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 이 말씀에서는 실질적인 출산의 의미는 없고 그분의 계획과 뜻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편 89편 27절에서 사용된 첫태생(장자)은 유일함, 최고, 또는 유일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분의 장자, 이 땅 위의 어떤 왕보다 높은 왕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다윗은 육적으로 볼 때 이새의 막내아들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유일하고 탁월한 최고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 두기로 작정하셨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가 바로 이 의미가 아닌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오직 주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 위에 뛰어난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탁월한 위치에 계시며 또한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표현은 이 땅에서의 출생과는 상관없이 없다. 이 말은 그분이 영원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다. 이는 신분의 우선순위에 있어 그분에게 주어진 명칭이지 어떤 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1:16 거짓 교사들은 (특별히 흠정역에서) 주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었다고 가르친다. 이교도들이 사용하는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으로 반박할 수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16절은 아주 결정적으로 주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만물(은 우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각각의 전치사는 각기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우리는 “만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고”, 즉 그분이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다. 여기 창조의 능력은 주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이 바로 건축가이시다. 나머지 3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분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임을 말한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또한 만물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이는 그분이 어떤 것을 창조하시는 하셨지만 그분 자신 또한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것이다.

사도는 또한 주님이 창조하신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호기심이 있을 것을 바울은 알았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그리고 “권세들”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의 서로 다른 계급의 체계는 알 수 없어도 천사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는 많은 계급의 영적 존재

들이 있으며 그리스도는 그 중의 하나라고 가르친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섯째 영역에서 뛰어난 영이라고 주장한다. 여호와 증인들은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창조된 천사, 천사장 미가엘이었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확실한 용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창조하신 창조자, 즉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한다.

1:17 바울은 그리스도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다고 말하지 않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다고 말한다. 때로 성경에서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 현재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 8:58)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이전부터 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분 안에 서 있다. 이 말은 그분이 이 온 우주와 그 활동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그분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주장하고 계신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주장하셨다.

1:18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은 이 우주의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포함된다.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다. 이 세대에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 또는 교회를 형성한다. 인간의 육체가 그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이듯 교회 또한 주님이 세상에 그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택한 도구이다.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다. 머리는 안내와 목적, 지시, 그리고 통제를 의미한다. 그분은 교회에서 으뜸이 되신다.

그분은 시작이시다. 이는 영적 생명의 근원인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계 3:14). 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에서 더 설명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조심해야 하는데 이 말은 주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도 사람이 부활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주님은 더 이상 죽지 않을 몸으로 맨 처음 부활하신 분이며 영광스런 몸으로 맨 처음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로 부활하셨다. 그분의 부활은 유일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그분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된다. 이는 그분이 영계에 뛰어나심을 알리는 것이다.

알프레드 마케(Alfred Mace)는 “그리스도는 어느 곳이든 둘째가 되실 수 없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골 1:15-16). 그분은 또한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들과 연합해 먼저 나신 자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어떠한 심과 그분이 하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피조물들과 구속자들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는 그분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함이다. 그분은 어디에서나 첫째이시다”⁸⁾라고 말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들과 교회 모두에서 으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는 그분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셨다. 바울 시대에(우리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하나의 피조물로 전락시키려는 자들의 입을 막는 아주 적절한 답이 아닌가!

우리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는 말씀을 읽

8) Alfred Mace,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삶에서도 으뜸이 되시고 계신가”라고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1:19 다비(Darby)는 19절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시고”라고 번역하고 있다. 킹제임스역은 어떤 특정한 때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곳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잠시 거했던 주막 정도이며 더 나은 단계가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더 나아가라.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여기에 “거하다”라는 말은 잠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을 의미한다.⁹⁾

1:20 19절은 20절과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을(19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화목은 두 가지이다.

- (1) 만물과의 화목
- (2) 사람과의 화목

9) 여기에서는 강화된 형태인 *oikeo*가 사용되었는데(*katoikeo*) 이는 앉아 있거나 집(가정)에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사람과의 화목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지나간 일이며, 만물과의 화목은 아직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화 목

화목이란 말은 관계나 신분을 회복하는 것 또는 원수 되었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롬 8:7).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하다.

죄가 세상에 들어 왔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죄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1) 과거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일부가 죄를 범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언급이 없다. 그들은 심판날에 심판 받기 위하여 영원한 쇠사슬에 매여 어두움에 갇혀 있다 - 유다서 6절) 욥기 4장 18절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2) 동물들도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롬 8:19-22). 사실 동물들이 병들어 고통당하고 죽는 것은 그것들 또한 죄의 저주 아래 있다는 증거이다.

(3)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도 정죄를 받았다(창 3:17). 잡초와 가시, 그리고 엉겅퀴가 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4) 욥기에서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도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을 보아(욥 25:5) 죄가 별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5) 히브리서 9장 23절은 하늘에 있는 것들도 깨끗케 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구절 하나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구절이 제시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던 사단에 의해 더럽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욥 1:6-16; 계 12:10).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별들이 있는 하늘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사단이 하나님께 나갔던 곳은 별들이 있는 하늘이라고 말한다. 어느 경우이든 하나님의 보좌는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 중 하나가 사람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적대감과 분리를 가져오는 원인을 없애야 했다. 그래서 그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그 일을 하셨다. 이 화목의 범위가 골로새서 1장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21절). 화목케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효과가 있다.

(2) 결국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20절). 이는 죄로 인해 더럽혀진 모든 동물계와 무생물계 모두를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범죄한 사단이나 천사들 그리고 주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분명히 선포되어 있다. 땅 아래 있는 것들에게는 화목이 요구되지 않았다. 화목과 정복은 서로 다르다. 후자의 경우가 빌립보서 2장 10절에 언급되어 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비(Darby)는 이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지하(지옥)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번역했다.

모든 피조물, 심지어 범죄한 천사들도 완전히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화목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0절을 인용해서 사단과 범죄한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화목을 하늘과 땅에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땅 아래 있는 것, 또는 지옥에 있는 자들은 화목에서 제외되었다. ♠

1:21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의 화목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 것을 상기시켰다. 구원받기 전에 골로새인들은 그들

의 악한 행실로 인해 이방 죄인들로서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다(엡 4:17-18). 그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크신 은혜로 화목을 요청하셨다.

1:22 하나님은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인들과 화목하셨다. 주님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었다. “그의 육체”라는 표현은 주님이 실질적으로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화목케 된 것을 의미한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구속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필요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히브리서 2:14-16 말씀을 보라. 영지주의자들은 이를 부인한다. 이 화목의 놀라운 결과가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더러운 죄인이 그 더러운 옛 삶에서 벗어나 이 놀라운 축복의 영역으로 들어가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에드만(C. R. Erdman)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까이서 돌보시고, 듣고, 붙잡히 여기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본다”¹⁰⁾라고 말했다.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께 흠 없는 자들, 즉 죄가 없고 정죄함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 드러지게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귀중함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계 5장).

1:23 바울은 여기에서 “만일”(if)¹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10) Charles R. Erdman, *Epistle of paul to the Colossians and Philemon*, p. 46

11) “만일”(if)에 해당하는 헬라어에는 *ei*와 *ean* 두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문장의

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계속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 달려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경의 다른 말씀들, 즉 그리스도께 나온 그리스도의 양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요한복음 10장 28-29절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신약성경은 믿는 자의 영원한 안전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이 구절처럼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불변하며,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끝까지 믿음 안에 있을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물론 언제나 타락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잠 24:16) 믿음 자체를 저버리지 않는다.

성령은 입으로 고백한 자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도전하기 위해 “만일”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이 ‘만일’들은 입으로만 고백한 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좋은 점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프리드함(Fridham)은 이 구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을 주의 깊게 공부하는 독자라면 성령께서는 흔히 명목상으로 믿는 자들에게 은혜에 대해 준엄하고도 확고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지하지 못한 거짓 고백자들의 귀에는 이 경고가 하나의 거슬림에 불과하겠지만 경건한 영혼들

구조가 저자의 상태나 기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바울은 *ei*를 암시적인 *epimenete*와 함께 사용했는데 이것이 첫째 조건이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것을 그들이 계속 될 것이라는 보증으로 사용하였다).

에게는 좋은 약과 같다. 이곳에 있는 이와 같은 가르침의 목적은 믿음을 격려하며, 단순히 이론적인 신앙이나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다.”¹²⁾

틀림없이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을 마음에 두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 가운데 있는, 또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소망 가운데서 떠나지 말 것을 권고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계속 믿음 가운데 있어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에바브라에게서 배운 것이며 또한 터 위에 굳게 선 것이다.

바울은 다시 복음을 천하 만민(또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이 모든 만물을 향해 퍼져 나가고는 있지만 아직 문자 그대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이른 것은 아니다. 바울은 여기서 광범위하게 전파된 복음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필요성을 본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완성의 의미가 아니라 전파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또한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세계, 즉 중동지역 대부분에 전파되었다.

바울은 그 자신을 “일꾼”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라틴어로 그저 “중”이라는 의미이다. 전혀 어떤 “관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이는 겸손한 섬김의 의미이며 결코 높은 관료직을 말하지 않는다.

4.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1:24-29)

12) Pridham, 더 이상의 다른 자료는 없다.

1:24 1장의 마지막 여섯 구절은 바울의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다. 먼저 바울의 사역은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하여, 즉 그들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핍박을 위하여 부름 받았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특권,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울 수 있는 특권이였다. 바울이 말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이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음의 고통을 의미할 수는 없다. 그 일은 단번에 영원히 성취된 일로서 그 어느 누구도 동참할 수가 없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아직도 고난 가운데 계신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렸을 때 그는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은 직접적으로 주님을 핍박하지 않았으며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그는 거기에서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그들의 구세주를 핍박하는 것임을 배웠다. 하늘에 계신 머리가 땅에 있는 몸의 고통을 느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들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보았다. 의를 위한 고난이나 주님을 위한 고난, 그리고 복음을 위한 고난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또한 구세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우리가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이지만) 받으셨던 고난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이 육체 가운데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위해 받는 것이었다.

불신자들이 받은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

한 일들은 고귀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받아야 하는 고난을 조금 맛보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도 실제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

1:25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바울은 이미 23절 마지막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는 이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표현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점이 있다. 바울은 이중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는 먼저 복음 전파의 임무를 맡고 있었고(23절) 둘째로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았다(25절). 여기에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후에는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을 신약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인도해 그들로 교회에 대한 진리와 함께 그 거룩한 믿음을 키워 가게 해야 한다. 주님은 그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자랄 수 있는 곳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신다.

지금까지 우리는 골로새서 1장에서;

- (1)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우월하심,
- (2)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화목,
- (3) 사도 바울의 이중적인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 25절에서 바울이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이라고 말할 때 그는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역에 대해 말한 것이지 복음 전하는 것

을 말한 것이 아니다. 다음의 표현에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청지기직(세대)을 따라”(한글 역에는 ‘경륜’ 즉 ‘세대’로 말하고 있다 역주). 청지기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교회에 대한 큰 진리를 맡기셨다. 다른 의미에서 청지기였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리가 오직 그에게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전달할 자로 주께서 택하신 그릇이었다. 이는 그리스도와 연관해 교회의 유일한 위치나 경륜, 설립, 특이한 소망과 운명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다른 사도들에게 주신 교회의 생명과 질서 등을 포함한다.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이라고 말할 때 그는 골로새 성도들을 이방인 신자들로 생각하면서 한 말이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반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이 장에서 가장 어려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려 함이라”는 부분이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마지막으로 책을 써서 성경 말씀을 완성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신약성경에 마지막으로 더해진 것은 요한이 쓴 계시록이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는 말인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룬다”는 말은 온전히 선포한다는 의미이다. 바울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 바울은 신약의 계시의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나타내었다. 실질적인 면에서 그를 통하여 나타난 진리들이 신약의 진리들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서신보다 다른 서신들이 늦게 쓰여지기는 했지만 그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발견할 수 없는 어떤 큰 진리들을 담고 있지 않다. 실질적인 면에서 교회의 비밀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고 있다. 그 이후에 주어진 어떤 진리도 새로운 진리로 더해지고 있지 않다.

1:16 바울의 하나님 말씀 성취에는 비밀의 계시가 연관되어 있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춰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신약에서 비밀은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신약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을 말한다. 사람이 그 자신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다.

이 구절은 교회의 비밀이 구약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이다. 이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어졌던 것이다(엡 3:2-13; 롬 16:25-27). 그래서 교회가 아담이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는 오순절부터 시작되었고 교회에 대한 진리는 사도들에 의하여 드러났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교회는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다른 모든 민족들로부터 분리하셨다. 교회는 그 반대이다. 교회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내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민

족들과 구별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몇 곳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지속이 아니다. 교회를 이스라엘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인데,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직도 그 소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 감람나무 비유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에 더해진다(골 3:10-11).

1:27 이 비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모든 참 신자는 이 몸의 지체이며 영원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별되었다.

(2) 주 예수님은 몸의 머리로서 몸의 생명과 필요를 공급하고 그 나갈 길을 인도하신다.

(3) 유대인들은 교회에 들어오는데 어떤 혜택이나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이방인이라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을 통하여 몸의 지체가 되어 새 사람을 이룬다(엡 2:15, 3:6).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구약에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 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진리였다.

바울이 2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비밀의 특별한 요소는 바로 주께서 이방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는 이방인들이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한 말이다. F. B. 메이어(Meyer)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려 했다고 해도 놀라운 것이 되겠거늘,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려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다. 하지만 바로 이 비밀이 그것이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엡 3:6).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단순히 “이 진리” 또는 “이 비밀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밀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진리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단어에 단어를 더해 강조하였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제가 없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게 만든다.

1: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물론 27절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바울은 자신이 한 사람을 전파했다고 말한다. 그는 어떤 정치나 철학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만 전념했는데 이는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는 여기에서 사랑하는 사도의 사역에 대해 보다 더 깊은 관찰을 해볼 수 있다. 그의 사역은 일대일 사역이었다. 그는 불신자들에게 장차 임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고,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한 큰 진리들을 가르쳤다. 우리는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일대일 양육인 것을 본다. 그는 자기가 구세주에게 인도한 자들에 대하여 큰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보았다. 여기에서의 제물은 남자와 여자이다. 그는 어떤 상태로 그들을 주께 드리기를 원했는가? 나약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을 드리기를 원했는가? 아니다. 그는 그들을 온전히 자란 성숙한 자들로 주께 드리기를 원했다. 그는 그들 모두가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원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주께 인도한 자들에 대하여 바울과 같은 짐을 느끼고 있는가?

1:29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이러한 목적을 두고 수고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러한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해 그는 오직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는 그가 이곳, 저곳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일 때 주께서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특별히 28-29절은 필립스(Phillips) 역본으로 읽을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각 사람을 경고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24)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며, 할 수 있다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숙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능력 안에서 언제나 내가 힘써 하고 있는 일이다.”

5. 철학과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주의보다 뛰어난 그

리스도의 만족(2:1-23)

2:1 이 구절은 1장 마지막 두 구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신자들을 가르쳐서 성숙한 자들로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일에 전력하는 것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의 바울의 수고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여기서 그의 수고는 기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수고는 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는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 듣던 첫 날부터 그들을 위해, 그리고 가까이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리고 그 외 전혀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였다(계 3:14-19; 나중에 이 교회에 대한 슬픈 사정을 보라).

1절은 공적인 사역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위로이다. 이것은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의 방에 앉아서도 무릎을 꿇으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공적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그 사역의 효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의 시간에 크게 달려 있다.

2:2 바울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다. 기도의 첫 부분은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는” 것이다. 골로새인들은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의 위험 앞에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위안”은 ‘확고함’ 또는 ‘강하게 함’을 말한다.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기뻐하며 화목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적들의 맹공격을 막아야 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뜨겁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인의 믿음에 대한 더 깊은 진리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주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님 자신에 관한 비밀을 알리신다는 것은 잘 알려진 성경의 비밀이다. 예를 들어 요한은 예수님 옆에 기대어 있었던 자인데 그에게 주께서 큰 계시를 알리셨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그들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기를 기도했다. 그들이 믿음에 대해 더 이해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믿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설수록 거짓 가르침들에 유혹될 확률이 적게 된다.

“모든 부요”(full assurance)라는 표현은 신약성경에 3번 사용되고 있다.

(1) “온전한 믿음”-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히 10:22).

(2) “이해의 모든 부요”-우리는 알고 확신하고 있다(골 2:2).

(3) “소망의 풍성함”-우리는 앞으로 올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히 6:11).

바울의 기도의 극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에 있다.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즉 모든 성도들은 몸이요 그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의 머리로서의 지위이다. 그는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는 만일 성도들이 그들의 머리의 위대함을 안다면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이나 다른 어떤 이단들에 의해 미혹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

바울은 성도들이 위협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자원을 이용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다. 바울은 알프레드(Alfred)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다.

“...그분에게는 모든 신성이 거하시고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그분 외에 그 누구에게도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7). 그리스도는 교만과 합리주의 학설, 전통적인 종교, 귀신 들린 자들의 영매, 그리고 다른 모든 적대 또는 위조품들에 대해 하나의 확실한 해독제가 될 것이다.”¹³⁾

2:3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물론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계시보다 더 심오한 진리들을 알고 있다고 교만해 한다. 그들의 지혜란 그리스도나 기독교에서 발견한 진리들에 무엇을 더한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더 추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는 불신자들에게는 감춰져 있으며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는 신자들에게 머리로, 그리고 모든 자원의 근원으로 계신다.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부의 광대함과 위대하심, 하

13) Alfred Mace,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나님의 모든 충만한 속성, 창조와 구속의 모든 성취. 그분의 개인적, 도덕적 그리고 공적 영광으로 수많은 교수들과 저자들, 매개자들, 비평하는 자들, 그리고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몰아내시고 계신다.”

이 구절에는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이 있다. 그분은 진리로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진정한 진리는 그 어느 것도 그분의 말씀이나 사역에 대치되지 않을 것이다. 지식과 지혜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지식은 진리에 대한 이해이고 지혜는 진리에 대해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2:4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교활한 속삭임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의 교활한 가르침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 언제나 이교도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가상이나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논쟁하며 그 위에 그들의 가르침의 체계를 세운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면 유창함이나 교활한 논쟁 같은 것을 의지할 필요는 없다. 진리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설득력이요, 사자처럼 그 스스로를 변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2:5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과 위험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의 모습은 마치 대대장이 자기 앞에 정렬한 군인들을 점호하려는 것과 같

다. 여기에서 사용된 “규모”와 “군건함”은 군대 용어이다. 먼저 사용된 규모는 군인들이 일렬로 정렬하고 있는 질서를 말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대열이 보여주는 군건함을 말한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선 것을 보면서 (육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통하여) 기뻐하였다.

2:6 바울은 이제 그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믿음으로 잘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기에서 강조한 점은 “주”에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 그들은 주님 안에 온전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주님으로만 충분하였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주권을 알도록 권고하였다. 그들은 인간의 가르침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되었다. 여기에서 “행하라”(walk)는 말은 때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행동과 전진을 말한다. 당신은 걸으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뒤로 후퇴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2:7 바울은 먼저 농사와 연관된 용어를 사용하고, 다음에는 건축과 연관된 용어를 사용하였다. “뿌리를 박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난 일이다. 이는 주님이 밭이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모든 양분을 그분으로부터 섭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역시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래야만 바람이 세차게 불더라도 그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이다(마 13:5,20,21).

그리고 이제 바울은 건물로 화제를 돌리고 있다. “그 안에 세움을 입어.” 여기에서 주님은 ‘터’, 즉 ‘반석’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진 ‘건물’로 제시되고 있다(눅 6:47-49). 우리는 단번에 뿌리를 내렸지만 또한 터 위에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다. “굳게 서서”라는 용어는 “확립된”으로도 번역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점점 확고히 서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주요 교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이 계속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이 놀라운 진리들 위에 그 마음과 삶이 확고히 서게 될 것이다. 반대로 베드로후서 1:9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이 성숙해가지 못하는 것은 의심, 그리고 기쁨의 상실, 복음의 축복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이 부분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로 마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적인 차가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에 감동되어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 기독교의 축복으로 인한 감사는 거짓 교리들에 대한 놀라운 해독제가 된다.

아더 웨이(Arthur Way)는 7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나무처럼 빨리 뿌리를 내리며, 건물처럼 건실하게 세워지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8 이제 바울은 골로새가 위치한 리쿠스 골짜기에 사는 성도들이 직면한 거짓 가르침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다룰 준비가 되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거짓 가르침은 사람들에게서 귀중한 것을 빼앗아가지만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철학”이란 문자 그대로 “지식에 대한 사랑”이다. 철학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지식을 구할 때 악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이 용어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을 그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알려고 추구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전 2:14). 이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이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숭배하기 때문에 악하다. 이것이 바로 지성주의와 합리주의를 자랑하는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의 특색이다.

“헛된 속임수”는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제시하는 거짓되고 무가치한 가르침을 말한다. 사실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추종자들을 만든다. 그들은 또한 ‘선택된 소수’라는 속임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바울이 공격하고 있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난 것이지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사람의 유전”은 사람이 고안한 종교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경에서 전혀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전통 또는 유전은 어떤 편리함이나 특정한 상황에서 시작된 것으로 하나의 고정된 관습이다). “세상의 초등 학문”은 유대인들의 의식과 예식,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들이다.

“모세의 율법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모형으로 그 목적을 위해 있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그 마음을 준비하는 초등학교였다. 이제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없애려는

거짓 선생들의 음모의 손에 놀아나는 셈이다”(성서 유니온에서).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와 맞는지 안 맞는지 골로새인들의 모든 가르침을 검사해 보려고 했다. 이 구절에 대한 필립스(Phillips)의 번역은 우리들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사람들이 아무나 지식주의나 무익한 것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배제한 것이다.”

2:9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독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확실한 말을 하고 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사라는 것이다.

먼저 여기에 그분의 신성이 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둘째로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신성의 량을 볼 수 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마지막으로 신성의 절대적인 충만 또는 온전함을 본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이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답이 된다-크리스천 싸이언스나 여호와의 증인, 유니타, 신지론자 등).

빈센트(Marvin Vincent)는 “이 구절은 두 가지 구분된 주장을 하고 있다. (1)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2)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신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¹⁴⁾라고 말했다. 많은 이교도들이 예수 안에 어느 정도의 신성이

거하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그분 안에, 사람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대답은 매우 확실하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히 거하고 있다면 왜 그리스도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가르침에 만족해야 하겠는가?

2:10 사도 바울은 아직도 그의 독자들에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서있는 그들의 위치가 확고함을 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9절에 이어 10절에도 같은 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표현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고 신자들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물론,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해졌다는 말은 아니다. 오직 한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히 거하신 분이다.

그러나 이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과 경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펀전이 이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 그는 “우리가 (1) 유대인들의 의식의 도움 없이도 완전하며, (2) 철학의 도움 없이도 완전하고, (3) 미신의 어떤 희망 없이도 완전하고, (4) 인간의 노력 없이도 완전하다”고 했다.

우리가 완전함을 입은 이분이 바로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천사들을 크게 부각시켰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의 머

14) Marvin Vincent, *Word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II 906

리이시며 우리가 천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와의 교제로 인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대신 천사들에게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2:11 할례는 유대교의 전형적인 종교 의식이었다. 이는 남자아이들의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이었다. 영적으로 이것은 육의 죽음 또는 악, 부패,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을 잘라 베는 것을 상징한다.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의식 자체에는 열중하면서 영적 의미에는 등한시했다. 사실 그들은 의식이나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려고 함으로써 인간 육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구절에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은 영적 할례이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말이 이를 분명히 말해준다. 이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갈보리에서의 주님의 죽으심을 말한다. 여기서의 가르침은 주님이 죽으실 때 신자들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다.

신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롬 6:11),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며, 자신에 대하여 죽었으며(갈 2:20),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갈 6:14). 이 할례는 인간의 노력이나 손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육적 몸을 벗어 버렸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며 육의 노력을 통해 구원 얻으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사무엘 리도우트

(Samuel Ridout)은 “주님의 죽음은 열매만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나무의 뿌리까지도 정죄하며 없애 주셨다”라고 말했다.

2:12 바울은 이제 할례에서 침례로 그 주제를 돌리고 있다. 할례가 육의 죽음을 말하듯 침례는 이보다 더 나아가 옛 사람의 장례를 말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침례가 상징하는 것이다. 사실 이는 우리가 거듭날 때 이루어지지만 침례로 물에 잠길 때 공개적으로 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침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을 영원히 없애버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죽고 묻혔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부활하였다. 이 모든 것이 거듭나는 순간에 이루어졌다. 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2:13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다. 거듭나기 전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다. 이 말은 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영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나 반응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죄 가운데 죽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의 무할레도 이야기했다. 무할레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자주 이방인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골로새인들은 이방인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땅 백성, 즉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육체의 정욕이 온통 그들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 골로새 성도들의 삶 전체에 변화가 일어났다. 죄인으로서 그들의 역사는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부활의 편에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 가운데 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작별을 고해야 했다.

2:14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포함된 또 다른 것에 대해 말한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는 율법에 대해 말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십계명은 우리를 대적했다. 우리가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한 것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십계명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준 의식의 법도 이야기했다. 의식법에는 성일(聖日)이나 음식, 그리고 다른 종교적인 의식들에 대한 수많은 계명들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유대교의 규칙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앞으로 오실 주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들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못 박았으며 그 빛을 갚음으로 빛 장부를 없애버

리셨다. F. B. 메이어(Meyer)는 이에 대해 “주님의 십자가 위의 죽음으로 사람을 정죄한 율법은 그 효력을 잃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온 몸에 홀로 받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¹⁵⁾ 켈리(Kelly)도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했다.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한 언어는 우리로 채무자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빚을 갚고 증서를 없애버려 다시는 채권자가 빚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한 고대의 풍습을 감지할 수 있게 한다.

2:15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악한 정세와 권세를 이기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로잡은 자를 사로 잡으셨다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도 동일한 승리에 대한 묘사라고 믿는다. 그분의 죽음과 묻히심, 부활, 그리고 승천은 사단과 지옥의 많은 추종자들에 대한 영광스러운 승리의 선포이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는 중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역을 지나셨을 것이다.

어쩌면 이 말씀은 전에 귀신을 섬기다 주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격려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님이 정사와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

2:16 바울은 다시 자기가 조금 전에 말한 것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골로새인들은 육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이제 죽었

15) F. B. Meyer, 더 이상의 다른 자료는 없다.

다. 그들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새로운 삶을 위하여 함께 부활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죽은 옛 것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유대주의나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 영원히 종지부를 찍어야 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식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모든 인간의 종교는 사람을 의식이나 규칙, 규정 그리고 종교력의 굴레 아래 매이게 한다. 이 종교력은 보통 매년 준수해야 할 날들(거룩한 날), 그리고 절기나 기념주간이나 의식들을 준수하도록 표기하고 있다.

“아무도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정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종교적인 성일이나 절기를 지키지 못 할 수도 있다. 강신술사들과 같은 이단들은 그 추종자들에게 고기를 금한다. 수세기 동안 천주교에서도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다. 많은 교회들도 사순절 동안 어떤 음식을 멀리하라고 한다. 물론 같은 단체들도 사람이 차나 커피를 마시면 좋은 신도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즉 제7일 안식일교도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것들 아래 매여 있지 않다. 율법 주의자들이나 안식일을 주장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5장 18절, 12장 8절을 들어 그들의 믿음을 주장한다.

2:17 유대인들이 준수하는 예식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실체)은 그리스도이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으로 구약에 주어진 것이

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 왜 그림자에 사람들이 매달려야 하겠는가? 이것은 마치 그림에 있는 실체가 나타났는데 그 실체에는 관심이 없고 그림에만 열중하는 것과 같다.

2:18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친 것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 어찌면 그 사람들은 너무 자신들이 겸손해서 감히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한다고 했는지 모른다. 아마도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은 너무 겸손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며 주님보다 천사들을 섬긴다고 가르친 것 같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다. 천주교는 하나님이나 주님께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중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의 슬로건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이다.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거짓 겸손”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상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오직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딤후전 2:5).

사도 바울은 아주 어려운 표현을 하고 있다. “저가 그 보지 못한 것을 의지하여”(한글 역에는 ‘본 것’으로 되어 있음-역자주).¹⁶⁾

영지주의자들은 깊은 진리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16) 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에는 “not”이라는 단어가 빠져있지만 그 의미는 같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보든지 또는 보지 못하든지 그것들은 모두 약하고 헛된 것들이었다.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단체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마도 그 비밀들은 소위 환상이라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이나 강신술사들, 천주교, 스베덴보리(스웨덴의 종교적 신비 철학자) 신봉자들 같은 현대의 이설들에게도 가정된 환상은 아주 중요하다. 그들 가운데 핵심 멤버들은 그들의 은밀한 지식을 자랑한다. 그래서 바울이 “헛되이 과장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오직 그 은밀한 비밀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행복하게 된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이러한 단체들을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끝이 없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자들에 대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며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다양한 종교적인 행위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전혀 어떤 성경적인 권위가 없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어떤 행동이 없다. 그들은 주를 떠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이 육체를 따라 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행동은 경건하고 겸손하게 보이기도 한다.

2:19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주 예수님이 여기에서 몸의 머리로 묘사되고 있다. “머리를 붙잡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이며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생존이나 목적에 있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과 가까이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몸의 여러 지체들은 마디와 힘줄들로 연결되어 있다. 몸은 머리의 지도와 안내, 그리고 통제를 기다린다.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께에서 모든 필요를 찾으며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럴듯한 논쟁에 유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머리를 굳게 붙잡는 것은 매순간 주님을 붙잡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어제의 도움은 오늘의 도움이 될 수 없다. 한 번 물레방아를 돌린 물로 다시 물레방아를 돌리 수는 없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 결과는 다른 지체들과 조화를 이루는 자발적인 행동이 된다는 것이다.

2:20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의식과 형식적인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구약의 의식들은 세상 종교에 기본적인 기초들을 가르쳐 주었다는 의미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이다(갈 4:9-11).

바울은 어쩌면 영지주의와 다른 이단들의 의식과 형식도 생각했을 것이다. 특별히 바울은 유대교에서 비롯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 정당성을 찾지 못하는 금욕주의나 영지주의 또는 그 외 다른 이단들을 다루고 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왜 다시 그러한 의문에 순종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던 옛날의 그 속박을 잊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다. 아마도 마음에 이런 의문이 생길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의식들에 대해 죽었다면 침례와 만찬식은 왜 하는가?”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은 이 두 가지 예식은 신약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도 우리를 하늘나라 가기에 더 적합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는 의식이 아니다. 이들은 다만 주님에 대한 순종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함을 나타내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단순히 어떤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하나의 특권이다.

2:21 이 구절은 앞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란 말을 덧붙이면 쉽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왜 너희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세상의 의문, 즉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와 같은 것들에 순종하느냐”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여기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대지 말라”고 명했다고 가르친다. 물론 말씀은 그 반대이다. 윌리엄 켈리(William Kelly) 같이 권위 있는 사람의 경우도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 그는 이 구절에 있는 명령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는 금욕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2:22 그에 대한 의미는 22절 말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22절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따라 만들어진 “금지령”이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 그 자신에게 착념하는 것보다 고기나 마시는 것에 착념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핵심이겠는가?

웨이마우드(Weymouth)는 20-22절을 이렇게 번역하였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나왔다면 왜 아직도 너희의 삶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와 같은 (결국은 다 부패하고 멸망하게 될) 인간의 사고와 가르침에 불과한 것들에 순종하느냐?”

2:23 종교의 이 모든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보기에다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

“자의적 숭배”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옳은 생각에 따라 만든 예배 형식을 말한다. 보기에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거짓 겸손”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그들은 너무 겸손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천사들을 중보자로 이용한다.

“몸을 괴롭게 함”은 고행을 말한다. 그들은 자기 부정이나 자기 학대를 통하여 더 높은 수준의 거룩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사상은 힌두교나 동양의 다른 신비주의 종교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실행의 유익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 모든 것들의 겉모양은 아주 보기에 좋다. 하지만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절제를 위해 잘 고안된 방법들도 결국은 실패로 끝난다). 사람들을 개선시키려는 모든 거짓 시스템들이 결국 다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것처럼 만들 수는 있으나 그것들로 인

간의 정욕이나 욕심을 막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자세는 우리가 우리 육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에게 자유스럽게 의를 행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선택을 쉽게 하고, 임무를 기뻐하게 하며, 그분에게 가까이 함을 즐겁게 한다. 사랑은 선한 봉사에 자유를 부여한다.”

2.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자들의 의무 (3-4장)

1. 신자의 삶: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음(3:1-17)

3:1 1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라는 의미이다. 2장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부활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는 우리의 옛 삶에 대해 작별을 고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있다. 하지만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3:2 그리스도인들은 그 눈을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들의 눈에 비치는 대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영원에 비추어 가치 있는 것을 보도록 해야 한다. 빈센트(Vincent)는 “1절에 있는 ‘찾으라’는 말은 실질적인 투쟁 또는 노력을, 그리고 2절에 있는 ‘생각하라’는 말은 내적 추진력과 의향

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생각하라”는 빌립보서 3:19에 있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와 같은 것이다.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침례 받은 삶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를 구하고 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발은 이 땅에 있지만 그의 머리는 별들과 함께 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처럼 산다”라고 말했다.¹⁷⁾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젊은 그리스도인은 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우리 폭파 요원들이 지난밤에 적의 도시들을 폭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노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에도 폭파 요원들이 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대적의 여인들이나 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해 기쁨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본 것이다.

F. B. 호울(F. B. Hole)은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은 또한 그분의 부활과도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것의 첫째 효과는 우리를 사람의 세상, 사람의 종교 그리고 사람의 지체에서 단절시켜 주는 것이다. 또 다른 효과는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에, 그리고 그 곳에 있는 모든 것에 접하게 해 주는 것이다. 3장의 처음 네 구절의 말씀은 우리들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다.”¹⁸⁾

3:3 바울이 신자들을 “죽었다”고 말한 것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

17) Robertson, *Intellectuals*, p. 149

18) F. B. Hole, *Paul's Epistles Volume Two*, p. 105

라 신분적인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보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 너무 실질적으로 느끼고 또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도덕적 실체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죽은 사람들처럼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점점 더 닮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온전하게 그분의 삶을 다 본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신자들에게 주님을 닮는 것은 하나의 점진적인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다. 하지만 신자들이 크게 고려하는 것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바울의 생각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우상이나 종교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다”는 표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영적 생명을 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처럼 살지 않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동기 또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성령께서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

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어져 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다. 세상에서의 진정한 분리는 세상이 신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는데 있다.

3:4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신분에 대한 묘사의 절정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다보고 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현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사람들이 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이제 주 예수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날이 올 것이다. 그 때에 우리는 영광중에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때에도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며 행동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3:5 3절에서는 우리가 죽었다고 말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지체를 죽이라고 말한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신자의 신분과 상태의 서로 다른 점에 대한 아주 분명한 예를 보게 된다. 신자의 신분은 그가 죽은 것이다. 신자의 상태는 그 자신이 죽은 것을 알고 이 땅에 있는 그 자신의 지체를 죽음에 넘김으로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나타낸다.

우리는 또한 은혜와 율법의 서로 다른 점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만일 네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율법이다. 만일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러한 신분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은혜를 입은 신분을 거저 주겠다. 이제 나가서 그 고귀한 부름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은혜이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지체를 죽이라고 한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 지체들을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여기의 표현은 비유로써 그 다음에 오는 구절들을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지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욕과 증오들을 말한다.

“음란”은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성 관계 또는 외설, 특별히 독신자들 가운데 있는 부도덕을 말한다(마 15:19; 막 7:21). 때론 이것은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성적인 부도덕으로 번역되었다.

“부정”은 생각이나 말 또는 행동의 깨끗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육체적인 것보다는 도덕적인 불결함을 의미한다.

“정욕”은 통제할 수 없는 강한 욕망을 말한다.

“악한 소원”은 때로 격렬하고 뜨거운 열정을 말한다.

“탐심”은 일반적으로 탐욕 또는 더 갖기를 원하는 소욕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부정한 욕심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이다.

여기 목록들은 행동에서 동기로 옮겨가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성적 죄를 묘사하고 나서 그 소굴, 즉 탐욕적인 인간의 마음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성 그 자체를 나쁘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재생산할 수 있게 만드셨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에게 주신 것을 헛되게, 그리고 부정하게 사용할 때 온다. 바울의 시대에 성적인 죄는 아주 중요한 죄였다. 오늘날에도 아마 가장 많이 범하는 죄일 것이다. 성도들 중에는 그들의 삶을 성령님께 드리지 않음으로 성적인 죄에 빠져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있다.

3:6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짓고도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늘은 마치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러한 죄들은 이 땅에 있는 그들의 삶에 그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성 범죄로 인한 결과를 그들의 몸에 받고 있다.

3:7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을 그 부정한데서 건져주셨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진바 되었지만 부도덕한 삶이 그들의 옛 삶의 한 면이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능력이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3:8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값을 치르고 구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러운 옷과 같은 옛 것을 벗어버려야만 했다. 바울은 5절에서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악한 증오에 대해 말하고 있다.

“분”은 물론 극히 남을 싫어하는 것 또는 증오, 복수심, 미움을 말한다. 분노는 화보다 강력한 표현인데 아마 강한 화의 폭발을 의미할 것이다.

“악의”는 다른 사람이나 그의 평판을 해할 목적으로 하는 나쁜 행동을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즐거움으로 보는 불합리한 혐오이다.

“모독”(한글 역에는 ‘훼방’으로 나눔-역자주)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사용하는 지나친 폭언을 말한다. 이는 무례한 자세로 사람을 엄히 꾸짖는 것을 말한다.

“부끄러운 말”은 말 그대로 부끄러운 말로서 음탕하고 추잡한 또는 부패한 말을 의미한다. 이는 수치스럽고 부정한 언어이다. 바울은 이 죄의 목록들에서는 동기에서 행동으로 나열하고 있다.

3:9 9절에서 바울은 사실 “너희의 상태가 신분에 맞게 하라”고 말한 것이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이제 그들은 거지에서 멀리함으로 실질적인 면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했다. 거짓은 그들의 옛 사람에게 속한 것 중 하나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합당치 않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진리 왜곡에 대한 유혹을 받는다. 그것은 세금 신고이거나 남의 시험 답안지를 훔쳐보는 것, 또는 이야기를 너무 과장하는 것 등도 될 수 있다. 우리의 거짓 말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나쁜 인상을 심어줄 때 이는 배나 더 심각해진다.

3:10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우리의 옛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모든 거듭나지 못한 본성을 의미하듯,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의미한다. 새로운 창조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 새 사람이 점점 더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의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구세주를 온전히 닮기 위해 계속 전진해야 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본이시며 우리 삶의 법칙이시다. 장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얼마나 더 좋은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의 아름다움에 나타난다. 거룩, 사랑, 겸손, 온유, 친절, 그리고 용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특성들이다”(성서 유니온에서).

3:11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할레당이나 무할레당, 야인이나 스구디아인,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의 분별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 인종, 종교, 문화,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모든 신자들은 동일하며 지역 교회의 교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교회에 어떤 구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전도의 은사, 어떤 이들은 목자, 또 어떤 이들은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

다. 어떤 이들은 지역 교회의 장로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집사들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합당한 구분까지 나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은 또한 세상에 있는 구분을 없애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아직도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으며 또한 이방인이 있다. 그리고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있다. 신약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기 위해 할례자와 무할례자란 말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의미 외에도 이방인들에게는 무시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실행했던 의식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아직도 세상에는 야인(문명화되지 않은)이 있고 스구디아인이 있다. 여기서 표현은 두 분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 스구디아인은 야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지나친 자들, 즉 야인들 중에 더 야성적이고 야만적인 사람들이었다.

마지막 대조는 종과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란 어떤 속박에 매여 보지 않은 자들이며 자유인으로 태어난 자들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세상적인 구분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리고 만물에 있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역에 있어 중심이 되신다.

라일(Ryle) 감독은 이 진리에 대해 담대하게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 표현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만일 우리 마음이 이에 대해 바로 되어 있다면 우리 영혼도 잘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그들의 마음의 일부를 드리지만 그분이 마땅히 계실 중양은 드리지 않는다. 그들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그들 영혼의 중앙, 즉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교회 또는 그리스도와 예식, 그리스도와 안수 받은 목사들, 그리스도와 그 자신들의 회개, 그리스도와 자신들의 선행, 그리스도와 그들의 기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자기의 의지의 노력에 의지한 신실함이나 자비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¹⁹⁾

3:12 1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것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먼저 그는 골로새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말했다. 이는 그들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사실을 말한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있어 예정은 하나의 비밀에 속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그리스도께 나올 자들을 예정하셨다는 가르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셨다고는 믿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성경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 즉 선택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도 믿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꺾으면서까지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미리 택하신 예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바울은 골로새인들을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이라고 말했다. “거룩”이란 ‘성결’(‘성도’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또는 ‘세상에서 하

19) J. C . Ryle, *Holiness*, p. 436

나눔을 위해 구별된 것'을 말한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거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면에 있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옷처럼 입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공홀”은 동정의 마음을 말한다.

“친절”은 사심 없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말하며 또한 호의를 말한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다.

“온유”는 연약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 대해 자신을 부인하고 은혜 안에 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바인(Vine)은 “온유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미약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온유하셨다. 온유는 자만과 걱정의 반대로서 우쭐대거나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는 것이 아닌 안정된 심령을 말한다. 왜냐하면 온유는 관심을 그 자신에 두지 않고 상대방에게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²⁰⁾

만일 겸손이 “교만의 부재”라면 온유는 “걱정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래 참음”은 도전과 자극에 대해 인내하는 것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 오래 견디는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고난을 견디면서 다른 자들에 대해 기쁨과 친절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20) W. E. Vine, *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 p. 56

3:13 서로 짐을 지는 것(“서로 용납하여”)은 인내를 묘사한 것으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약점이나 괴팍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때에는 그들의 약점이 보일 수밖에 없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의 괴팍한 특성을 참아내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그 짐을 져야 한다.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성도들 가운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몇 가지 논쟁들이 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는 이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주 “하지만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는데…”라는 말을 듣는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용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을 말하며 또한 상처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않음을 말한다.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용서보다 더 고무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분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것에 대해 잊어버리셨다. 우리는 용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복되신 주님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3:14 여기서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덕들을 하나로 묶는 “띠”로 말하고 있다.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성들

을 조화 있게 하나로 묶는다. 사람이 그 마음에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어떤 덕을 나타낼 수는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에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들의 행동은 억지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해야 한다.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생각했으나 바울은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를 바로 잡고 있다.

3:15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 증재자로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의문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것이 평강을 위한 것인가?” 또는 “만일 내가 이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인가?”라고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인도하심을 구할 때 도움이 되는 말씀이다.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 일에 대해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평강이 없다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 개인이나 교회의 평강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이 구절 후반부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떨어져 혼자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독립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역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는데에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씨는 얻을 수 없는 덕을 얻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교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되며, 성가시게 굴거나 화나게 할 때 포기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동료 신자들과 함께 살며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표현은 바울의 서신서들에 거듭 거듭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는 선한 뜻이 있다. 성령께서는 감사하는 심령을 고려하심에 틀림없다.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적인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의사들은 수년 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몸의 건강에도 크게 중요하며 염려나 억압, 그리고 불만이 많은 심령은 건강에 아주 해롭다는 것을 알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주위의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바울은 이를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즉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는 누구보다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다(신명기 33장 29절과 비교해 보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부족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다.

3:16 16절의 구두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원래 신약의 사본에는 구두점이 없었는데 구두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제시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구절은 3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한다. 우리 마음이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두 번째 부분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세워주는 것)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의 ‘가르침’은 교리와 연관이 있고 ‘권면’ 또는 ‘세워주는 것’은 임무와 연관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또 실질적이고도 건전한 교제를 통하여 그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가르침과 권면”이 지혜 가운데서 주어질 때 강압적이거나 사랑 없이 주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부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인데 우리는 이 노래들은 주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표한 말이다. 찬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하나의 예배송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신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나이다.

하지만 이 기쁨은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고

당신 발 앞에 쉬게 될 때 더욱 크리이다.”

이 시는 성경에 있는 시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니다. 신

명한 노래는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표현한 종교적인 시이다. 다음의 시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으므로
얼마나 자주 평강을 잃으며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아픔을
감당해야만 하는지요!”(조셉 스크리번)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노래들을 통하여 은혜로 또는 마음에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음악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위 오늘날의 기독교 음악이라는 많은 음악들이 너무 가볍고 또한 가치 없는 것들이 많다. 많은 기독교 음악들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고 세상의 팝송들과 유사한데 이러한 음악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힐 뿐이다.

16절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19절 말씀과 매우 유사하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다른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즐겁고 기쁜,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건히 젖기 전에는 성령의 충

만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령님께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성령 충만이란, 삶에 오는 어떤 신비적이고도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순종하고 또 이를 인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3:17 17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동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법칙이다. 특별히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어떤 것에 대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서 암기해 둘 것을 권한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나 행동들에 대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가, 이에 대해 내가 주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가”라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명령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주께 하듯,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비밀이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 감사하는 생활은 영원한 임무이다.

2. 가정에서의 신자의 합당한 품행(3:18-4:1)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들에 일련의 권고를 하고 있다. 이 권고는 4장 1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는 아내와 남편들, 자녀들과 부모들, 그리고 종과 주인들에게 권고했다. 우선 생각하기는 바울이 앞에서 다루던 주제에서 갑자기 가정 문제로 주제를 바꾼 것은 좀 엉뚱한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 “요람을 흔들던 손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말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삶에 있어 중요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을 만드셨다. 가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져가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히 악화되어가고 있다.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는 하나님께서 영적 발전을 위해 가정을 세우셨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가정에서 그 인격이 입증된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원리들을 보게 된다. 이 부분을 공부함에 있어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1) 가정에는 가정예배가 있어야 한다.

매일 가정식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2)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권위를 가지고 사랑과 지혜로서 이를 사용해야 한다.

(3)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첫째 임무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내가 직업을 가지는 것은 그리 지혜로운 일은 아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 남편과 아내는 그 자녀들에게 경건한 본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을 훈계하는 일을 포함해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5) 가정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이나 사회생활, 그리고 교회의 활동에 너무 바빠서 어린아이들이 교훈이나 훈계, 사랑, 그리고 가족애를 갖는데 있어 소홀히 될 때가 있다. 많은 부모들이 방탕한 아들이나 딸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한다. “종이 이리 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왕상 20:40).

(6) 어린아이들을 훈계 또는 징계하는데 있어 세 가지 법칙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절대로 화를 내면서 징계하지 말라.

둘째, 부당하게 징벌하지 말라.

셋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징계하지 말라.

(7) 아이들이 일로부터의 교훈과 책임, 그리고 돈의 가치를 알기 위해 젊어서 멩에를 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애 3:27).

(8)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 악하고 세속적인 야망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계속 자녀들에게 주

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심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임 사역자나 선교자로 사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주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대사로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그분을 나타내야 하며 또한 그분에 의해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

3:18 사도 바울은 맨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했다. 아내는 주님께 하듯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이다.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위치에 주어졌다. 아내는 남편을 주장하거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지도력을 따라야 하며 주님에 대한 충성이 방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물론 여인들에게 있어 주님에게 충성하면 그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녀의 첫째 임무는 주께 충성하는 것이다. 남편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을 도와 그 역할을 다하고 아내가 더 영리하다고 해서 남편의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3:19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아름답게 그 균형을 이루고 있다.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 대한 교훈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남편들도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남편들은 그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 단순한 논리를 따른다면 결혼생활에 있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며 가정은 주안에서 기쁨의 장소가 될

것이다. 사실 어느 아내도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 남편을 거역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만일 아내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 아내의 복종은 주님 안에서 자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3:20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훈계를 받아야 한다. 모든 시대에 있어 가족은 언제나 두 가지 아주 간단한 원칙에 의해 유지되어 왔는데 그것은 곧 권위와 순종이다. 여기에 서는 두 번째 것을 말하고 있다. 순종은 모든 일에 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라. 이 말은 자기 마음에 드는 일뿐만 아니라 즐겁지 못한 일이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는 아이들이 때로 불신 부모를 두었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하는 반면에 또한 그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그들이 그 부모를 존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높이실 것이다. 그들은 그 부모와 함께 산다면 그 가정에서 그들이 해야할 분명한 임무가 있다. 물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때론 그 부모가 그들에게 싫은 일을 시킬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죄악된 것이 아닐 때 주께 하듯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그 부모에게 좋은 간증을 보이게 되고, 또 부모를 주께 인도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3:21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을 격노케 하여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권고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에게 한 것이 흥미롭다.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이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는가? 켈리(Kelly)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더 자녀들을 망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3:22 22절부터 3장 끝까지 성령께서는 종들 또는 노예들에게 말씀하셨다.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종에 대해 할애한 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다.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아무리 낮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또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의 위치보다는 주님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신약성경에는 다스리는 자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한 조언이 더 많다. 바울 시대에 종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서신서에 있는 종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

매킨토시(C. H. Mackintosh)는 “노예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그도 하나님 앞에 그의 임무를 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빛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종들에게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했다. 여기에서는 육신의 상전들이라고 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또 하나의 주인이 있다. 종들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

음으로” 그 상전을 섬겨야 한다(이에 대한 좋은 예로 창세기 24장 33절을 보라). 특별히 사람이 억압을 당할 때에는 그 주인이 보지 않으면 일을 태만히 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종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이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 하듯 일할 것이다. “성실한 마음으로”는 순수한 마음, 즉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한다.

신약성경에서 종의 제도에 대해 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다. 복음은 사회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통해 전파되지 않았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된 곳은 어디든 노예제도가 근절되거나 제거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훈이 이제 우리들에게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한 교훈을 고용주와 고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문자적으로는 ‘혼으로부터’)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아야 한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나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의 여러 부분에 있어 별로 유쾌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회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한 섬김은 주님께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한 고귀한 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세상에는 세속적인 일과 성스러운 일이 따로 없다. 모두가 다 성스러운 일이다. 하늘에서의 보상은 위대함이나 성공, 재능이나 어떤 기회 등이 아니라 “충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주 앞에서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때로 부엌 싱크

대 위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매일 이 곳에서 세 번씩 행해지고 있다”라는 표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본다.

3:24 주님은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기록하고 계시며 그분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친절이 인간의 친절에 대해 보상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 유업을 잃은 자들은 하늘에서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 또는 직장에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할 때에 이를 기억하자. 불평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다.

3:25 바울은 25절에서 그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인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종을 억압하는 불의한 주인을 생각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인 종이 불의한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에 실증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바울은 “주께서 그것도 다 아신다. 그 잘못된 것들도 다 다루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이 주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요 대상은 종이 다. 눈가림이나 속임, 태만, 그리고 다른 어떤 형태의 섬김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정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만주의 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그분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종이 그 주인의 것을 도적질한다면 주님께서 이를 계산하실 것이다.

4:1 이 구절은 논리적으로 3장의 마지막 종결 구절이다. 상전들은 그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 그들은 종들에게 그 일한 대로 값을 주어야 하며 떼어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고용주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나 불의한 소득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신다. 사실 하나님은 “너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너의 돈 버는 방법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라). 주인들은 교만할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들 또한 모든 일에 있어 의롭고 공평하신 하늘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주목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문제를 다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 (1) 아내들에게 - “이는 주안에서 마땅하니라”(18절).
- (2) 자녀들아 - “이는 주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20절).
- (3) 종들아 -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22절).
- (4) 종들아 - “주께 하듯 하라”(23절).

3. 신자의 기도생활, 그리고 말과 삶을 통한 전도(4:2-6)

4:2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생활에 힘쓰도록 권고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아마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것이

다. 특별히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볼 때 더욱 그러할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할 수 없는 많은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보다 깊은 비밀을 알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그리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적인 의심을 떨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쓸 뿐 아니라 또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겿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었다. 우리는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마음이나 헛된 생각 또는 공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시간을 도둑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엡 6:18).

우리의 기도는 또한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 지나간 기도의 응답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한다.

가이 킹(Guy King)은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그분의 지식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아시며 그분의 능력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말했다.²¹⁾

4:3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바울이 자신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한 것은

21) Guy King, *Crossing the Border*, p. 111

참으로 아름답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들을 위한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문을 열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야 할 재앙이다. 만일 주님이 문을 여시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것이며 소위 주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에 대한 비밀, 즉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 요소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바울에게 전하도록 위탁된 복음의 특별한 요소였다. 바울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두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교회에 대한 위대한 진리들이 그에게 계시되었다고 가르치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의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보다 “옥중 서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그 비밀에 대한 전파가 그를 감옥에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계시는 그가 감옥에 오기 전에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4 그는 복음을 전하기를 심히 원했는데 곧 복음을 분명하게 전

해 사람들이 이를 잘 이해하기를 원했다. 이는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값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쉽고 또한 명확해야 한다.

4:5 그리스도인들은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에서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는 삶에 더 관심이 있다. 에드가 게스트(Edgar Guest)는 “나는 언제나 설교를 듣기보다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과 서로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말은 많은데 삶은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매일 주 예수님의 능력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는다. 이러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다”라는 말은 때로 값도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값이 얼마이든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4:6 우리의 말은 언제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아야 한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의 말이 언제나 은혜 가운데 되어진다면 그것은 격려의 말이 될 것이며, 겸손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잡담이나 험담, 천박한 말, 더러운 말, 그리고 악한 말이 안될 것이다.

“소금으로 고르게 함”이란 말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어떤 주석가들은 우리의 말이 은혜스러워야 할뿐만 아니라 정직해야 하고 또한 외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소금은 진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서 말한 것은 우리의 말이 언제나 가치가 있고 또한 유익한 것이어야 하며 어리석거나 무미건조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라이트푸트(Lightfoot)는 이방인 저자들은 주로 “재치”에 대한 상징적인 용어로 소금을 사용했다고 했다. 바울은 재치를 지혜로 바꾸어 말한다.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용어들을 공부해보는 것일 것이다. 주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요 8:11)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와 소금을 본다. 먼저 은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이다. 그리고 소금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이다. 주님은 또한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요 4:7,16)고 하셨다. 여기에서 첫 부분은 은혜요, 다음 부분은 소금이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마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 거짓교사들에 대해 지혜의 말이나 신실함에 대해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4. 바울의 동료들에 대한 언급(4:7-14)

4:7 두기고는 바울의 이 서신을 로마에서부터 골로새에 전하기 위해 바울에 의해 택한 사람인 것 같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두기고가 가면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했다.

바울이 또한 이 형제에게 붙인 명칭들은 참으로 아름답다. 바울은 그를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명칭보다 그 어떤 명칭을 탐낼 것인가? 오늘날의 교회 성직자들에게 붙여진 이름들을 탐낸단 말인가!

4:8 두기고의 골로새로의 여행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먼저 그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로마에 있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야 했고 또한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했다. 여기서 “위로”는 단순한 의미에서의 위로라기보다는 “격려”와 “힘 있게 함”을 말한다(2장 2절을 보라). 그들에 대한 그의 사역은 그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거짓 교사들에 대해 담대히 서게 하는 것이었다.

4:9 오네시모에 대한 이름은 우리에게 빌로몬서에 나타난 아름다운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친 노예였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는 이제 다시 골로새에 있는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다.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온 이 두 사람을 맞은 골로새 성도들의 기쁨을 상상해 보라! 그들은 아마 밤늦게까지 모여서 바울의 사역과 상황, 그의 주님에 대한 용기 등에 대해 질문하고 들었을 것이다.

4:10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그가 주님을 섬기는 일로 체포되었었다는 것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그는 지금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다. 이 젊은이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의 일에 나섰다. 그의 실패로 인하여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려 하지 않았지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일은 이 두 나이 많은 일꾼들 사이에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어떻든 반가운 것은 마가의 실패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고, 다시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로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마가가 만일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면 그를 기쁘게 맞으라는 명을 받았다. 여기에 “명을 받았으매”는 그들이 마가에 대해 그 전에 그러한 명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지금 바울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한 말을 의미할 것이다. “영접하라”는 동사의 형태가 골로새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에 그 명을 받은 것을 암시한다.

두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에 대한 언급은 우리도 매일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모습, 그리고 행동으로 매일 한 장의 복음서를 기록한다. 우리의 말은 신실하고 진실되지만 우리의 행동이 이를 부인한다. 당신이 기록하는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인가?”

4:11 바울의 다른 동역자는 “예수라 하는 유스도”였다. 예수라는 이름은 아직도 어떤 나라들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흔한 이름이다. 이는 헬라어로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이다. 이 사람을 유스도라고 부른 것은 그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름으로 그를 부르는 것이 거북스러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언급된 세 사람은 모두 개종한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들로서 바울의 위로가 되는, 또한 바울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수고한 자들은 이들 뿐이었다.

4:12 바울이 그의 글을 마쳐갈 때에 에바브라도 골로새 교회에 그의 안부를 전해 달라고 하였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인으로서 계속 그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4:13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는 그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자였다. 그는 분명 긴 기도목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매일의 기도생활에서 각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여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는 매일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였다”(NEB).

4:14 이제 바울은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의 문안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조를 본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여행하

며 바울이 병들었을 때나 핍박받을 때,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할 때 영육간에 그를 도왔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데마는 어느 정도 바울과 함께 다녔다. 하지만 바울은 나중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다(딤후 4:10).

5. 인사와 소개(4:15-18)

4:15 바울은 이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늑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4-22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읽을 수 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미지근했다. 그들은 물질주의와 자만에 빠졌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의 진정한 상태, 즉 별거 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사본들이 늑바스(남자)와 늑바(여자) 중 어느 누구에게 보냈는지 확실치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골로새에 있는 그 가정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과 같은 좋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지역교회에는 건물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때로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기도 한다.

4:16 골로새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도록 보내야 했다.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그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

바울은 또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읽으라고 했다. 그 편지가 어떤 편지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에베소서였을 것이라고 믿는다. 고대 사본들 중에는 에베소서 1장 1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이란 구절이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주석가들 중에는 이 편지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읽혀지던, 예를 들자면 에베소,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교회들에게 읽혀지던 것이라고 믿는 자들도 있다. 골로새에는 많이 언급되었던 개인적인 언급들이 에베소서에는 거의 없는 것이 이러한 주장을 신빙성 있게 하고 있다.²²⁾

4:17 아킵보에게는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고 권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직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아킵보가 빌레몬의 아들로서 골로새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일했던 자라고 믿는다. 우리의 이름이 아킵보라고 가정할 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뜻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맡고 있는데 이제 장래에 우리 각자의 일에 대해 주 앞에서 계산하게 될 것이다.

4:18 이 시점에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펜을 들고 그의 이방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싸인함으로써 그의 서신을 마치고 있다. 분

22)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곳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만 언급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명 그는 쇠사슬에 매인 불편한 손으로 싸인함으로 그의 불편한 상황을 나타내었을 것이다. 이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의 쇠사슬에 매인 것을 기억하라”고 한 바울의 말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펜과 쇠사슬의 소리는 설교자의 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게 할 수 없다는 최종적인 증거이다.”²³⁾

그리고 나서 그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지어다 아멘”이라는 말로 그의 편지를 마무리했다.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은혜라는 말처럼 복스러운 말은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²⁴⁾라고 말했다(아멘).

23) *New Bible Commentary*, p. 1051

24) Robertson, *Intellectuals*, p. 211

참고 문헌

- Carson, Herbert M. *The Epistles of Paul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0.
- English, E. Schuyler. *Studies in Epistle to the Colossians*. New York: Our Hope Press, 1944.
- Erdman, Charles R. *Epistles of Paul to the Colossians and Philem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33.
- King, Guy. *Crossing the Border*. London: Marshall, Morgan and Scott, Ltd., 1957.
- Lightfoot, J. B. *Saint Paul's Epistle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reprint of 1879 edition by MacMillan.
- Maclaren, Alexander. "Colossians and Philemon," *The Expositor's Bible*.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888.
- Nicholson, W. R. *Popular Studies in Colossians: Oneness with Christ*.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03.
- Peake, Arthur S. "Colossians,"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Vol. 3.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1.

- Robertson, A. T. *Paul and the Intellectuals*. Nashville: Sunday School Board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1928.
- Rutherford, John. *St. Paul's Epistles to Colossae and Laodicea*. Edinburgh: T. & T. Clark, 1908.
- Sturz, Richard. *Studies in Colossians*. Chicago: Moody Press, 1955.
- Thomas, W. H. Griffith. *Studies in Colossians and Philem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3.
- Vine, W. E.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and Colossians*. London: Oliphants, 1955.

데살로니가전서

김대영 옮김

데살로니가전서 서론

“이 편지는 바울이 기록한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단순함과 온유함, 그리고 정에 있어서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W. 그레이엄 스크로기.

1. 정경(正經)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

이름 있는 작가라면 누구라도 그가 처음 쓴 책은 집필 초기의 강조하던 점과 전달 능력의 탁월한 면들을 들어 대개 높은 찬사를 받게 마련이다. 데살로니가전서가 바울이 영감을 받아 기록한 최초의 서신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짧은 체류기간 전할 수 있었던 가르침이 놀라울 정도로 방대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후서로 알려져 있는 서신에서 바울이 논하고 있는 많은 교리를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오늘날 휴거와 우리 주님의 재림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널리 믿고 있는 바요 또한 고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특별히 영국의 형제운동 초기에(1825-1850) 쓰여진 글들을 통해 이 교리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으며 그 글들의 많은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짧은 편지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여러 면들에 대해서 우리

가 얻게 될 이해는 형편없이 빈약하게 될 것이다.

2. 기자(記者)

데살로니가전서가 틀림없는 바울의 서신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성경학자들이 더러 있다. J. E. 프레임(Frame)의 말과 같이 “만일 바울이 이 세상에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고 그가 기록한 어떤 편지도 남아 있지 않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바울이 기자라는 사실에 대한 근거는 이로써 충분하다.¹⁾

바울이 저자라는 것에 대한 외부적인 증거는 마르시온 정경과 무라토리 정경(초기 기독교 문서의 목록으로 하나는 이단적인 내용이며 하나는 정통이다) 뿐만 아니라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저스틴 같은 사람들의 가르침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성경 내부의 증거로는 바울이 쓴 서신에 나오는 어휘와 문체가 사용되었다는 점과, 마음이 따뜻하고 또 신령한 아버지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역사적인 언급들도 사도행전과 일치한다. 1장 1절과 2장 18절에서 저자 자신을 가리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다.

3. 기록 연대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간 머물고 있을 때 썼으며, 이는 디모데가 바울에게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살전 3:6; 2:17). 갈리오(행 18장)가 주후 51년 초여름에 아가야 총독으

1) James Everett Fram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St. Paul to the Thessalonians*, (ICC), p. 17

로 부임해 왔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50년 초에 고린도로 왔으며 도착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서신을 썼음이 틀림없다. 거의 모든 학자들은 이 서신이 기록된 시기를 주후 50년 초로 보고 있으며, 그 기록 연도는 아마도 주후 50년이나 51년, 곧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20년밖에 되지 않았던 때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4. 기록 배경과 주제

복음의 광채가 데살로니가의 흑암 위에 내리 비친 것은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였다(행 17:1-10).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구약성경으로부터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것을 증거하였다. 그런 뒤 나사렛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임을 선포했다. 이렇게 하기를 3주간 했는데, 유대인 중 일부가 확실히 믿고 바울과 실라로 더불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또한 많은 헬라인 개종자와 이 도시의 유력한 여인들 상당수가 주님께 돌아왔다. 그러자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장 부랑인들을 끌어 모아 폭동을 일으켰고, 바울과 실라가 묵고 있던 야손의 집을 포위하였다. 이 집에서 전도자들을 찾지 못하자 폭도는 야손과 다른 신자 몇을 성을 다스리는 자들 앞으로 끌어내고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으려 한다고 고소했다.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대해 정말

이지 의도하지 않았던 찬사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는 믿는 자들이 예수라는 이름의 다른 왕을 세우려는 모의를 함으로써 가이사의 제국을 전복시키려 한다고 폭도들은 고소했다. 그러자 그 성의 관원들은 난감하게 되었다. 이들은 나손과 그 함께 하는 자들을 보석으로 놓아줄 것을 요구했으며, 아마 여기에 덧붙여 나손의 집에 든 손님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라는 엄한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손과 다른 사람들은 풀려나게 되었다.

데살로니가의 믿는 형제들은 전도자들이 이 성을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그리하여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놀라운 점은 바울과 실라가 떠날 때 뒤에 한 무리의 믿는 자들을 두고 갔는데, 이들은 믿음 안의 교훈들로 훈계를 받은 자들로서 핍박을 받되 견뎌내고 요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도행전 17:2을 볼 때 바울과 그 함께 한 자들은 데살로니가에 단 세 번의 안식일 동안만 머물렀다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바울 일행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던 기간만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이 성에서 석 달을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보낸 편지들로 볼 때 이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광범위하게 잘 알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대한 양의 가르침을 3-4주 남짓만에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바울은 베뢰아에서 아덴으로 갔다(행 17:15). 거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는 이들을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사단이 이를 막았다(살전 2:17-18).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디모데를 보냈다(3:1-2). 디모데는 대체로 격려가

되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으며(3:6-8),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서둘러 쓰게 된 것이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비방으로부터 변호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 성의 문화 속에 만연한 부도덕으로부터 믿는 자들이 성별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도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곳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생각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꾸짖고 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주 예수님의 재림이다. 주의 재림은 이 서신의 각 장마다 한 번 이상씩 언급되어있다.

G. R. 하딩 우드(Harding Wood)는 재림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 말씀들을 모아서 다음과 같은 탁월한 개요를 만들었다.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1)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1:9,19); (2) 그 봉사에 게으름을(2:9,19); (3) 교제에 분열을(3:12-13); (4) 그 마음속에 침울함을(4:13-18); 그리고 (5) 그 삶에 죄(5:23)를 가져서는 안 된다.”²⁾

5. 개 요

1. 인사(1:1)

2. 데살로니가 성도와의 개인적인 관계(1:2-3:13)

(1)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함(1:2-10)

2) George Robert Harding Wood, St. Paul's First Letter, pp. 13,14

- (2)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 자기가 행한 사역과 말씀, 행실을 돌이켜 봄(2:1-12)
- (3)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어떻게 응했는지를 돌이켜 봄(2:13-16)
- (4)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한 것을 설명함(2:17-20)
- (5) 디모테가 데살로니가에서 행하도록 받은 사명(3:1-10)
- (6)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 (3:11-13)

3. 실제적인 권면(4:1-5:22)

- (1)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화(4:1-8)
- (2)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사랑(4:9-10)
- (3) 외인들에게 말하는 삶(4:11-12)
- (4) 믿는 자들을 위로하는 소망(4:13-18)
- (5) 주의 날(5:1-11)
- (6) 성도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권면(5:12-22)

4. 끝맺는 인사(5:23-28)

1. 인 사(1:1)

1:1 이 편지는 이 세상을 뒤집어놓는다는 고소를 당한 세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고소는 본디 험뜯으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실상은 찬사가 되고 말았다.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했다. 이 당시에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실루아노는 아마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찬송했던 실라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행 16:25).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의 젊은 형제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여행하기 바로 전에 합류했다(행 16:1).

이 편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쓴 편지였다.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당시 어떤 모임이든 관계없이 다 같이 일컬을 때 쓰던 단어였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이교도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인사말은 누구라도 이 땅 위의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축복을 담고 있는 말이다. “은혜”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

는 은총이다. “평강”은 온갖 부수고 깨뜨리는 인생의 풍파에도 아랑
곳하지 않는 평온 속의 고요함이다. 은혜는 원인이며 평강은 그 결
과이다. 바울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두 분을 함께 반복하여 말씀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아버지” 앞에 “우리”라는 소유대명
사를 쓰고 있다.³⁾

3) 중요 사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가 빠져 있지만, 다
른 많은 사본들에는 나와 있다. 이 문구는 필사 과정에서 빠지기가 십상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나온 문구와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2. 데살로니가 성도와의 개인적인 관계 (1:2-3:13)

1.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함 (1:2-10)

1:2-3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말했다(우리는 신실하게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바울은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으며,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할 때도 그러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役事)는 아마도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일차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듯하다. 그들의 믿음을 역사(役事)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다음과 같이 여쭙던 때를 기억나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요 6:28-29).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행위 혹은 행실이다. 그러나 믿음은 사람이 무슨 수고를 했거나,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거나,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것이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 믿음이야말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분의 구주되신 영광을 빼앗지 않고 동시에 절망적인 죄인인 자기 신분을 부인하지도 않으면서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행위)이다. 믿음은 피조물이 자기 창조주를 인정하고 죄인이 자기 구주를 인정하는, 인간의 어떤 공로도 들어가지 않는 역사이다.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은 또한 구원을 받은 뒤에 이어지는 믿음의 삶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외에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했다. 이것은 그곳 성도들이 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봉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떻게든 견뎌야 하는 삶이 아니며, 사랑을 인하여 한 분을 섬기는 삶이다. 이것은 그분의 종이 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요, “그분에 대한 사랑은 허드렛일도 하나님의 일로 만든다.” 하나님께 봉사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사랑인 것에 비하면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는 조금의 가치도 없는 싸구려일 뿐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봉사가 우러나오게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의 “소망의 인내”에 대해 감사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용감하게 서있는 결과로 인해 핍박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필립스(Phillips)가 말한 바 그들의 “철저할 정도의 끈질긴 인내”에는 조금도 틈이 생기지 않았다.

바울이 이러한 점들을 어디서 기억하고 있는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문구에 잘 나타나 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을 때 바울은 그 성도들의 영적인 출생과 성장을 되살렸고 이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인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1:4 사도는 이 성도들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선택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무슨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지녔던 것일까? 아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를 보고 이들이야말로 택하신 자들 중에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선택의 교리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가르친다(엡 1:4). 어떤 사람들을 저주하시려고 택하셨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사람들이 결국 잃어버린바 된다면 이는 그들 자신의 죄와 불신 때문인 것이다.

택하심을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성경이 또한 인간의 책임, 즉 인간의 자유선택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으라고 내놓으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는 반가이 맞아주실 것이다.

택하심과 자유선택이라는 이 두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어울리게 할 수 없고 서로 충돌할 뿐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교리를 다 가르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없더라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모르며, 그러므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죄인들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로 이 택하심의 교리를 내세워서 안 됩니다. 이들이 만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4)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기(附記)”를 보려면 에베소서 1장을 보라

1:5 “우리 복음”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은 같았다. 그러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그저 단순한 종교 강론으로 여기지 않았다. 물론 그들은 복음을 말로 받았지만, 말로만 받은 것은 아니었다.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이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1) “능력으로”-말씀은 이곳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그들로 죄를 깨닫게 했으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했다.

(2) “성령으로”-이 능력은 성령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다.

(3) “큰 확신으로”-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 큰 확신을 갖고 전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받았다. 이로 인해 이들의 삶 가운데 신앙에 대한 큰 확신이 있게 되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일관된 삶을 살았다. 최고의 설교는 곧 거룩한 삶이다.

1:6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주와 우리”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보다 먼저 주님을 언급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은 순서대로 말하고 있다. 이들이 주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바로 사도

의 삶을 통해서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11:1)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곳의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았던 것이다. 밖으로는 환난이 있었다. 그러나 안으로는 기쁨이 있었다. 이 얼마나 보기 드문 조화인가! 세상 사람에게겐 기쁨과 환난을 동시에 경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사람에게 슬픔은 기쁨의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환경에 구애되지 않는 성령의 기쁨이 있다. 이 사람에게 기쁨의 반대는 죄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겨낸 환난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 후에 그들에게 닥친 핍박이었다.

1:7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무엇보다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한 이들의 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는 자들, 곧 그리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이다.

1:8 그러나 이들의 간증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재 생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이다. 물 위에 일어나는 파문처럼 주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번져 나갔다. 처음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나중엔 각처로...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널리 번진 나머지 바울은 여기에 대해 말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사람들이 벌써 알고 있었기 때문이

다.

우리가 복 받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받은 복이 우리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취셔서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취게 하신다(고후 4:6-다 비역). 만일 우리가 구원의 샘물을 정말 마셨다면 생수의 강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것이다(요 7:37,38).

1:9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왕 같은 환영을 받았음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다. 또 여러 사람의 삶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되었다는 것도 이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일이다. 이 사람들은 이교도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종이 되어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우상을 버렸으며,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님을 주목하기 바란다(영어 성경에서는 ‘turned to God from idols’로 되어 있어서 우리말 성경과는 순서가 다르다-역주).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싫증이 나서 어디 하나님을 한 번 믿어보자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리하여 그분이 참으로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 알고 우상을 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베드로를 감동시킨 바로 그 모습이,
스테반이 본 바로 그 얼굴이,
마리아와 함께 울었던 바로 그 마음이,
홀로 우상으로부터 돌아오게 할 수 있다네.
(오려 로우언).

다음의 기사에 스며있는 벅찬 감동과 경외심을 절대 잊지 말자. 두 사람이 주의 말씀을 갖고 이교도의 성에 들어간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중생의 기적이 일어난다. 곧 남녀가 구주께 너무나 마음이 끌린 나머지 자기들의 우상을 버린다. 다음에 믿는 자들이 함께 지역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핍박을 용감하게 이겨내며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위에 가장 뛰어난 것이다!

1:10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생명도 없고 거짓된 우상과는 대조적으로)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의 기다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눈여겨 보기 바란다.

- (1) 대상-“그의 아들.”
- (2) 장소-“하늘로부터.”
- (3) 약속-“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 (4) 보배로운 이름-“예수.”
- (5) 기대-“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러므로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진 체험의 세 가지 면을 보게 된다.

- (1) 돌아옴(믿음의 역사와 비교해 보라-3절).
- (2) 섬김(사랑의 수고와 비교해 보라-3절).
- (3) 기다림(소망의 인내와 비교해 보라-3절).

G. R. 하딩 우드(Harding Wood)⁵⁾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

다.

- (1) 따름-하나님을 바라봄
- (2) 섬김-그들을 바라봄
- (3) 기다림-예수를 찾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렸다. 이 말씀에는 그들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것, 사실은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 이것은 신약의 많은 구절에서 발견되는데 그 중 몇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 누가복음 12:36-“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 로마서 8:23-“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 고린도전서 11:26-“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 고린도후서 5:2-“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 갈라디아서 5:5-“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 빌립보서 3:20-“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 빌립보서 4:5-“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 Wood, *First Letter*, p. 17

- 디도서 2:13-“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 히브리서 9:28-“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 야고보서 5:7-9-“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 베드로전서 4:7-“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 요한일서 3:3-“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 유다서 21절-“...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라.”
- 요한계시록 3:11-“내가 속히 임하리니!”
- 요한계시록 22:7-“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 요한계시록 22:12-“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 요한계시록 22:20-“...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그 때에는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또한 알고 있는 사람이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다시 오시기 전에 성취될 필요는 없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어 장래에 일어나도록 되어있는 대사건이다.

현재와 주님의 재림 사이에 만일 어떤 사건이나 일정한 기간이 끼어든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다. 환난 전 휴거설은 오늘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주는 유일한 견해이다. 다른 견해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음을 믿을 수 없게 만든다.

우리가 고대하는 분은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구하실 자, 바로 예수님이시다.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두 가지 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하신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셔야 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공로가 우리 것이라고 여김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롬 8:1).

(2)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린 세상에 진노를 쏟으시는 장차 올 심판의 기간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신다. 이 기간은 대 환난과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알려져 있다(단 9:27; 마 24:4-28; 살전 5:1-11; 살후 2:1-12; 계 6:1-19:10).

2.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의 자신의 사역과 말씀, 행실을 돌이켜 봄(2:1-12)

2:1 이 서신 1장 5절의 뒷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당시에 개인적으로 인품과 행실이 어떠했는지 넉넉히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사도는 자신의 사역과 말씀, 그리고 행실을 더욱 철

저하게 돌아보기 시작한다.

여기서 요점은 그리스도인의 주된 사역이 인격의 사역이란 것이다. 우리의 사람됨은 우리가 하는 어떤 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영향력은 의식적인 영향력보다 더 효과 있는 말이다. 제임스 데니(James Deney)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그가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가진 밑천의 전부이다. 다른 대부분의 직업은 사람의 인격이야 어떻든 은행잔고만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인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⁶⁾

순교한 선교사 짐 엘리엇(Jim Elliot)은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영적인 일은 어느 분야이든 간에 일하는 사람의 인격이 그 일의 질을 결정한다. 셸리와 바이런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작가여도 시는 잘 쓸 수 있다. 바그너가 색을 탐하는 사람이지만 훌륭한 곡을 작곡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증거하고자 자기의 인격과 삶이 어떠했는지 들어 말할 수 있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는 일곱 번이나, ‘너희가 알거니와’라는 말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의 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도 직접 목격했음을 언급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자기가 전파하는 것을 예증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았다. 예증을 넘어 그의 삶은 확신을 주는 증거가 되었다. 세상 나라의 많은 일들이 그토록 부실한 것은 놀랄 일이 못된다. 일하는 사람의 도덕적인 인격을 한 번 보라.”⁷⁾

6) James Deney,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7) Elliot, Elisabeth, ed., *The Journals of Jim Elliot*, p. 218

여기 2장의 앞 구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의 그릇된 고소에 대해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이 성공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바울의 사역이 열매를 맺었다는 산 증거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들은 바울이 자기들을 방문한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들 자신이 주님께 돌아와 그곳에 모임이 생겼기 때문이다.

2:2 다음으로 또한 바울의 사역은 용감한 것이었다. 빌립보에서 맹렬한 반대와 난폭하기 짝이 없는 대우를 받고 실라와 더불어 그곳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도 바울은 움츠러들거나 낙담하거나 겁내지도 않았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밀고 들어갔던 것이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 몸이 그다지 긴장한 편이 못되는 사람이라면 혹 하나님께서 거기보다는 더 온순한 청중들에게로 자기를 부르시고 있다는 수많은 신학적 이유들을 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는 거센 반대를 받았음에도 겁 없이 말씀을 전했다. 이는 성령 충만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2:3 “복음을 믿으라”는 사도의 권면의 출처는 진리요, 동기는 순수했고, 방법은 믿을 수 있는 것이었다. 출처로 말하자면 그 권면은 거짓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동기로 말하면 사도는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생각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았으며 그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고, 내심 무슨 불순한 욕

심을 가진 것이 없었다. 동기로 말하자면 그들을 속이고자 하는 간사한 음모라고는 전혀 없었다. 바울을 시기하던 자들이 그를 가리켜 이단이요, 이(利)를 탐하고 간사하다고 비난했음이 분명하다.

2:4 바울에게 있어 사역은 거룩한 청지기의 직분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은 청지기였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귀한 보배였다. 그가 맡은 책임은 말씀을 신실히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사람이 무슨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할 바 없었다. 바울이 불 때 하나님과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음은 분명했기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택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그에 따라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분이기에 그랬다.

“청지기는 자기에게 보수를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할 의무가 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들로부터 혹 반발을 살까 염려한 나머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그분은 언제 말씀이 약화되거나 압박을 받는지 아신다”(suppressed).

2:5 바울은 5절로 12절까지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진술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될 뛰어난 본을 남겼다.

먼저, 사도 바울은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결코 비굴하게 아첨하거나 탐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의 말은 정직하고 투명했으며 그의 동기에는 외식함이 없었다.

두 번째로 그는 주님의 일을 빌미 삼아 부해지려는 자신의 이기

적 욕망을 감추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 그의 섬김은 탐심을 감추려고 거짓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었다.

아침의 말을 한다는 비난을 반박하고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호소하다. 그러나 탐심을 부린다는 비난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오직 그분만이 홀로 사람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기 때문이다.

2:6 여기서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닌 인격의 감동적인 면모를 또 한 번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공급(여기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했음)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곳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리하여 밤낮으로 일하여 자신들의 필요를 충당했다. 고린도에서는 이와 상황이 또 달랐다. 그곳에서 바울이 일한 것은 비방하는 자들이 그가 돈을 벌려고 일한다고 헐뜯을 빌미를 주지 않으려 함이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일한 것은 그곳 성도들이 가난했고 그래서 자신이 그들에게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2:7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관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들을 돌보았다.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돌보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은 바울은 이 일을 계속했으며 헌신적인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듯 온 정성을 쏟았다.

2:8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 너무나 깊었던

나머지 바울은 그들에게서 받기보다는 도리어 나눠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차갑고 마지못해 하는 태도로 나눠 준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영혼을 쏟아 부었다. 바울은 그곳 성도들을 사랑했으며, 사랑은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주인처럼 바울도 그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었다(막 10:45).

2:9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증거가 여기에 더 나와 있다. 우리는 그가 자기와 동역자들의 쓸 것을 마련코자 장막 만드는 일을 함으로써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있음을 본다. 복음 전도자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때로 이런 권리를 쓰지 않는 모습이 칭찬할 만한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또는 자비량해야 되든 상관없이 계속 일할 것이다. 수고와 애쓴 것, 밤낮으로와 같은 표현을 눈여겨보시기 바란다. 데살로니가인들로서는 복음을 받는데 한 푼의 대가도 치르지 않았지만, 바울은 참으로 많은 대가를 치렀던 것이다.

2:10 믿는 자들은 바울이 자기들을 대해 어떻게 본이 되는 행실을 보였는지 증거할 수 있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바울이 경건하고(즉 경건한) 흠이 없었던 것에 대해 증인이셨다. 거룩한, 곧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는 인격과 행실에 있어 의로웠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아무 책망 받을

일이 없었다.

만일 최고의 설교가 거룩한 삶이라 한다면 바울은 위대한 설교자였다. 바울은 달변의 설교가 그 행실보다 뛰어났던 많은 설교자들과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강단에 서면 사람들은 그가 다시 거기서 내려오지 말기를 바라고, 그가 단에서 내려오면 다시는 거기에 올라가지 않기를 바란다!

2:11 사도는 7절에서 자신을 “유모”로 비유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헌신적인 “아비”로 그 비유를 달리하고 있다. 전자가 부드러움과 애정을 나타낸다면 후자는 지혜와 상담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버로서 그는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했고, 핍박을 받더라도 계속 주님을 위해 살라고 격려했으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복에 대해 증거했다.

2:12 바울의 사역목표는 성도들이 자기들을 부르사 그분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못되며 천국의 처소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유일한 가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히 행하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통제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자백하고 버려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현재는 이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임금도 자리에 안 계시다. 그러나 이 나라

의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때 이 나라는 그때서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날 우리는 임금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3. 데살로니가인들이 복음에 대해 보인 반응을 돌아봄(2:13-16)

2:13 이제 사도는 1장 5절 상반절에서 잠시 언급한바 있는 새로운 주제를 말하려 한다. 곧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 전도에 보인 반응이다.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즉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이다. 새핍정역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환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또한 이 말씀은 믿는 너희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은 것에 대해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 이것은 바울이 사심 없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다. 우리들 대부분은 내가 말하니까 남들이 내 말을 믿어주길 바란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믿음의 기초로 삼기에는 위태하기 짝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믿을만한 분이시며 오직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라야 사람의 마음과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바로 이런 일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다. 곧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능

력 있게 역사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월터 스코트(Walter Scott)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모든 책과 각각의 부분들이 처음 기록 될 때부터 영감으로 되었으며, 곧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된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권위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세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지도다. 곧 우리의 안내자요 빛이며 도덕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다. 이 거룩한 책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⁸⁾

2:14 성경은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우선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또한 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굳게 서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훌륭한 증거다. 변함없이 인내함으로써 그들은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데살로니가인들은 이방인인 자기 동포들의 손에 의해 고난을 받은 반면, 유대의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이다.

2:15 유대인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복음의 대적으로 기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을 바울보다 더 잘 아는 이가 누구이겠는가! 한때 바울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섬멸하려고 애쓰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주모자 노릇을 하던 사람이다. 그러다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 자신도 유대인들의 날카로운 핍박의 칼날을 느끼게 되었다.

8) Walter Scott,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유대인들이 범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주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실제로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집행하였지만 유대인들이야말로 그렇게 하도록 선동했던 장본인이다.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에게 대해 저지른 수백 년간의 핍박의 절정이었다(마 21:33-39).

기독교 시대가 도래하고도 유대인들은 이미 바울과 여러 사도들을 핍박했으며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이런 소행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말았다.

2:16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못하게 하도록 결심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유대인들을 더 격분하게 만든 것은 없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남겨놓은 일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리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웠다. 그들은 마치 자기 죄의 잔을 항상 가득 채워두려고 결심한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운명이 선언되었으니 곧 노하심이 저들에게 임하였던 것이다. 바울은 이 노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아마 죄가 관영하게 된 결과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하는 것인 것 같다. 이때로부터 이십 년이 못 되어(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휘파되고 또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졌다 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바울이 반유대주의자며 신약

도 반유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야말로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깊이 사랑했으며 만일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기꺼이 자신은 끊어 없어지는 쪽을 택하려 했다(롬 9:1-3). 바울의 사역의 주 대상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복음화에 대한 짐을 결코 떨쳐낼 수 없었던 것이다. 때로 이 짐이 일차적인 자신의 사명보다 거의 더 우선적인 순서에 놓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여기서 사도가 유대의 지도자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개인적인 원한을 밝힌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하셔서 그가 한 일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반유대주의는 비기독교적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정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반유대주의가 아니며(행 2:23), 이것은 이방인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고전 2:8).

4.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한 것을 설명함(2:17-20)

2:17 다음 네 구절에서 사도는 자기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를 가장 심하게 대적하던 자들은 바울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전에 여기서 당한 대적 때문이며 그렇기에 이것은 비겁한 소치라고 비난했을 수 있다.

바울은 먼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물리적인 상태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이란 표현은 데살로니가인들이 영적인 아버지가 자기들을 떠남으로써 고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사랑 어린 관심은 조

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를 보여 주는 말들을 보라: “더욱 힘썼노라...열정으로.”

2:18 그는 두 번이나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두 번 다 사단이 막았다. 사단이 왜 대적하는 것인지, 그 정확한 속셈은 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바울은 자기를 막은 자가 마귀며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는지도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들은 비두니아로 가려 했으나 성령께서 이를 허락지 않으신다. 성령께서 막으실 때가 언제며, 마귀가 막는 것은 또 언제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마도 한 가지 방법은 이러할 것이다.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일어나는 방해는 무엇이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실 때는 언제든지 사단이 방해하리란 예측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대적을 누르고 이기신다. 특별히 이 경우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하게 된 것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 편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안겨다주는 결과를 낳았다.

2:19 왜 사도는 데살로니가의 믿는 자들에게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한 것일까? 왜냐하면 그들이 주 안에서 자기 자녀들이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으며 그들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또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장차 그들에 대해 자기가 회계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바울이 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이었다. 그는 이 사람들을 인하여 기뻐하길 원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이들은 자신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이 구절을 볼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늘에서 알아보리란 기대를 갖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사랑하는 이들을 천국에서 알아볼 것이라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다.

19절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자기 면류관이라고 부르고 있다.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다른 면류관에 대해서도 읽게 된다.

의의 면류관(딤후 4:8); 생명의 면류관(약 1:12; 계 2:10); 영광의 면류관(벧전 5:4)-이 모든 면류관은 다 썩지 않는 것이다(고전 9:25).

2:20 성도들은 바울의 영광과 기쁨이었다. 그는 인간이라는 인격체에게 투자를 했고 그 보상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어린 양께 경배하게 될 영적인 아들과 딸들이었다.

주의 오심

19절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처음으로 오심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

재림은 본 서신의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 주제

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주로 세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파루시아(*parousia*) : 와서 그 후에 계속 있음.

아포칼립시스(*apokalupsis*) : 밝힘, 계시.

에피파니아(*epiphaneia*) : 분명히 나타남.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파루시아”이다. 이것은 존재 또는 따라서 온다는 뜻이다. 바인(Vine)은 이 단어가 도착과 그 이후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사건이 순간적일 뿐 아니라 또한 일정 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옳다.

영어에서도 “오심”이란 단어는 그와 같이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오심으로써 수다한 사람을 고치셨다”와 같다. 여기서 “오심”이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오신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지방에 계시던 기간 전부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이를 하나의 고립된 한 사건으로 여기기보다 일정 기간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파루시아가 나오는 모든 곳을 찾아보면 우리는 그 말씀들이 묘사하는 일정 시간에는 (1) 시작, (2) 과정, (3) 분명하게 나타남, 그리고 (4) 절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1) 파루시아의 시작은 휴거다. 이는 다음 구절들에 묘사되어 있다(파루시아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는 각 구절마다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고전 15:22,2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3-18).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살후 2:1).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약 5:7,8).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요일 2:28).

(2) 파루시아의 과정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심판대에서는 신실하게 섬긴 신자들이 상을 받게 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살전 2:19).

“평강의 하나님은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

파루시아의 과정 가운데 아마도 들어가게 될 또 다른 사건으로는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계시록에 나오는 위치로 볼 때 이 혼인 잔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 이전에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심”이라는 단어가 이 사건과 연관되어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 책에서는 그 과정 속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도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계 19:6-9).

(3) 그리스도의 오심이 분명히 나타남은 그분이 권세와 큰 영광 가운데 땅에 임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세상은 휴거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일

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위해 오실 때에는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 파루시아의 분명히 나타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의 세 번째 단계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중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마 24:3).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2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37).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마 24:39).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살전 3:13).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살후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벧후 1:16;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파루시아의 분명히 나타남에 대해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주셨던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4) 우리는 이제 드디어 파루시아의 절정에 도달했다. 이것은 다 음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

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벧후 3:4).

베드로가 보낸 이 두 번째 편지의 후반부를 보면 우리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부인한다고 나온다. 이 사람들은 파루시아의 어떤 면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휴거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들은 휴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지상통치를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전체 문맥을 볼 때 그들은 주님께서 행약하는 자들을 최종적으로 벌하신다는 것을 조롱하고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이들이 말한 주의 강림은 이 땅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혹은 이른바 “세상 끝”을 의미한다. 이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셨고 미래에도 개입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악한 말과 행실을 계속 일삼는 것이다.

베드로는 장래의 시간, 곧 그리스도의 천년통치 이후를 가리키면서 그때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말함으로써 이들의 조롱에 답하고 있다. 그리스도 파루시아의 절정을 이루는 이 사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상태가 시작될 때 일어난다.

파루시아 말고 신약성경에서 주님의 오심을 가리키는 두 가지 헬리어는 아포칼립시스(*apokalupsis*)와 에피파니아(*epiphaneia*)가 있다.

아포칼립시스는 밝힘, 혹은 계시를 의미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늘 그리스도의 강림(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 가운데 땅에 오심)의 세 번째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자신을 나타나실 휴거까지도 의미하는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어 있다.

다음 구절들을 보면 이것은 휴거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그리스도께서 땅을 다스리기 위해 오시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전 1:7).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벧전 1:7).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벧전 1:13).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4:13).

그러나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은 매우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위해 오실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살후 1:7).

에피파니어는 분명하게 ‘나타남’, 혹은 ‘보여진’을 의미한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성도들을 위해 나타나시는 것과 성도들과 함께 나타나시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오직 후자의 경우만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단어는 다음 구절들에 나온다.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밝게 빛나심으로(with brightness; 문자적으로는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살후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딤후 6:14).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딤후 4:1).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8).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을(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라고 되어 있음-역주) 기다리게 하셨으니”(딤후 2:13).

첫째(살후 2:8)와 셋째(딤후 4:1)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다. 다른 구절들은 휴거도 아울러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휴거와 그리스도께서 지상통치를 위해 강림하시는 일은 믿는 자에게는 여전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휴거 때에 믿는 자는 구주를 뵈고 영광을 입은 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믿는 자는 영광중에 그분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골 3:4). 또한 믿는 자의 상급이 드러나게 되는 때도 바로 이

때다. 이 상급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전에 미리 받게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러 강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이 상급을 보게 된다. 그 상급이란 무엇일까? 누가복음 19장 17-19절을 보면 이 상급은 천년 왕국에서 한 고을씩 다스리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암시가 나와 있다. 어떤 사람은 열 고을을 다스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섯 고을을 다스리게 된다.

주님의 오심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 말씀들을 공부해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오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엔 시작, 과정, 분명하게 나타남, 절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휴거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포함하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날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될 때 끝나게 된다. ♠

5.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행하도록 받은 사명(3:1-10)

3장에는 “네 믿음”이란 말이 다섯 번 나오며(2,5,6,7,10절), 본 단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겪고 있는 중이었고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시험 앞에서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간절히 알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 장은 지속적인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 죄인을 구주께 인도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3:1 3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자기의 꺼

지지 않는 관심을 표현하는 심장의 고동 소리를 계속하여 듣게 된다. 아덴에 있는 동안 바울은 자기를 통해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더 간절해졌다. 사단은 그가 직접 돌아가지 못하게 방해했다. 마침내 바울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디모테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기로 결심했고 그동안 그는 아덴에 홀로 머물렀다(“우리”는 형식적으로 쓴 것이다).

바울이 거기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웬지 서글프다. 거대한 대도시를 보아도 그의 마음은 끌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늘렸을 뿐이다.

3:2 디모테의 이름에 붙어 있는 “호칭”을 눈여겨보라.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 일꾼(*minister*)⁹⁾이라는 단어는 여기 외에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그저 종을 의미할 뿐이다. 성직자라고 알려진 구별된 계층으로 보는 사상은 훗날에 가서야 생겨났다.

디모테가 사랑받는 형제 바울 밑에서 일대일로 훈련을 받은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가! 이제 자신을 증명했으므로 디모테는 사명을 받아 데살로니가로 홀로 보냄을 받고 있다.

이 여행의 목적은 성도들을 굳게 하고 그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핍박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이다. 이때가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사단이 이들에게 그리스도인 된 것이 결국 알고 보니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교묘한 암시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

9) 일꾼(*servant*)은 단지 라틴어로 종(*servant*)을 가리키는 단어일 뿐이다.

문이었다!

디모데가 이들에게 “환난이 있을 줄 알라. 그리고 환난이 닥치면 용감하게 참아내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들어 볼 수 있다면 흥미로울 것이다. 이 사람들은 환난의 압박을 못이겨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3:3 한창 핍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서는 자신들이 그토록 심한 핍박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 하기가 십상이었을 것이다. 디모데는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 님을 상기시켰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상적인 일이며 그 령기 때문에 요동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다.

3:4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을 종종 했던 것을 이들에게 상기시키 고 있다. 그의 예측은 그의 말을 들은 성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실 현되었다.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얼 마나 상기했겠는가!

환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연단을 이루게 된다.

(1) 환난은 우리 믿음이 실제적인지를 증명하며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제거한다(벰전 1:7)

(2) 환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해준다(고후 1:4).

(3) 우리 인품 중에서 인내와 같은 특정 덕목들이 자라나게 해준 다(롬 5:3).

(4)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게 한다
(행 4:29; 5:27-29; 8:3,4).

(5) 우리 삶에서 불순물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욥 23:10).

3:5 사도는 1-2절의 핵심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즉 더 이상 지체되는 것을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디모테를 보내어 그곳 성도들이 어떻게 이 환난을 견뎌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였던 것이다. 그의 마음에 가장 큰 근심이 되었던 것은 마귀가 이들을 속여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포기하고 그 대신 핍박으로부터 쉼을 얻도록 만들지는 않았나 하는 것이었다(*this great anxiety was that the devil might have tricked them into giving up their aggressive christian testimony in exchange for relaxation of the persecution*). 개인의 안일을 위해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면류관을 얻으려고 십자가를 피해 돌아가려는 유혹은 언제나 있다.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제자의 길에 놓여있는 고통과 희생을 피할 방법을 그토록 자주 찾으려 했던 저를 용서해주소서. 오늘 저를 강건케 하사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과 동행케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겠는가.

만일 사단이 성도들을 꺾어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면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가 한 수고가 헛일이었다고 여겼을 것이다.

3:6 디모테가 데살로니가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그는 바울에게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안심하게 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가르침만 굳게

따를 뿐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또한 뚜렷이 나타내고 있었다. 언제나 이것은 믿음의 실제성 여부를 가늠하게 해준다.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갈 5:6)까지 있느냐는 것이다. “주 예수께 대한 믿음”뿐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엡 1:15)이 있느냐이다.

디모데가 이들의 믿음과 사랑만 언급하고 그들의 소망을 빼놓은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까? 마귀가 이들의 확신을 흔들어놓은 것일까? 그럴 수도 있다. 윌리엄 링컨(William Lincoln)이 말한 대로, “마귀는 재림의 교리를 아주 싫어한다.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능력을 주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성도들의 소망에 문제가 있다면 바울은 이 소망의 서신에서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 노력할 것이 틀림없다.

3:7 디모데는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와 그 동역자들을 좋게 생각하고 있으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도 세 사람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이 소식은 목마른 바울의 영혼에 냉수와도 같았다(잠 25:25).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사도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다.

3:8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 외친다. 사정을 알지 못하므로 생겨난 불안은 그에게 살았으나 죽은 것이었다. 이제 모두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자 생기가 금새 돌아왔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자기를 돌보지 않

는 헌신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길이 어디 있겠는가!

3:9 바울의 마음을 가득 메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의 기쁨의 잔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기억할 때마다 넘쳤다.

3:10 바울의 기도생활은 생활 습관이었으며 어쩌다가 가끔 하는 것이 아니었다. 곧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의 기도는 뜨겁고 열렬했다. 곧 심히 간구했다. 또한 구체적인 기도였다. 곧 너희 얼굴을 보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남을 위한 것이었다.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던 것이다.

6.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3:11-13)

3:11 3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들의 사랑이 더욱 많아지도록 구하는 기도로 끝을 맺고 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 아뢰고 있다. 그 다음 복수 주어 다음에 단수 동사가 나온다. 이러한 어법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삼위가 한 분이심을 가르치고 있다.

3:12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타냄에 있어서 사실 칭찬할 만했지만, 발전의 여지가 늘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 “주께서 너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그들의 사랑은 함께 믿는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야 되며 여기에는 원수도 포

함된다. 이러한 사랑의 본은 사도들의 사랑이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3:13 이 세상에서 사랑을 나타낸 결과는 오는 세상에서 흠이 없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될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롬 13:8; 약 2:8).

어떤 이는 바울의 이 기도를 다음과 같이 풀어썼다.

“주께서 너희로 하여금 자기 삶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더욱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리함은 주께서 너희 인격을 이제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혹 너희가 받을 모든 고소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기 위함이니라.”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은 몇 단계가 있으며 이는 곧 시작, 과정, 분명하게 나타남, 절정이라는 것을 보았다.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단계,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임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미 하늘에서 끝난 상태다. 상급도 이미 주어진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이 상급은 구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로 지상강림하실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여기서 성도는 휴거 때에 하늘로 들림 받은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살전 4:14). 천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빈센트(Vincent)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또 영광스럽게 된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천사들이 서신과 하등 관계가 없으며, 영광스럽게 된 신자들은 당시 데살

로니가인들을 괴롭히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덧붙이기를, “이 말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천사들을 대동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다만 바울이 이렇게 천사를 대동하신다는 것을 말할 때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처럼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했다.¹⁰⁾

10) Marvin Vincent, *Word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IV:34.

3. 실제적인 권면(4:1-5:22)

1.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화(4:1-8)

4:1 “종말로”라는 말은 바울이 이만 편지를 끝맺을 때가 되었는데 뜻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흔히 한 주제를 끝내고, 가령 실제적인 권면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가리킬 때 쓴다.

3장 말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세 가지는 “거룩, 사랑, 강림”이다. 이 세 단어는 4장의 큰 주제를 이루고 있다.

- (1) 거룩(1-8절)
- (2) 사랑(9-10절)
- (3) 강림(13-18절)

나머지 한 주제는 근면이다(11-12절).

4장은 거룩 가운데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권면으로 시작해서 성도의 들림 받음으로 끝을 맺고 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쓸 때 에녹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비슷한 점을 잘 보라.

- (1)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창 5:24);
- (2)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히 11:5);

(3) 에녹은 들림 받았다(창 5:24; 히 11:5).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실제 생활이 거룩한 점을 칭찬하면 서도, 이와 다른 더 높은 차원의 거룩에 이르라고 권면하고 있다. 거룩은 과정이지 성취가 아니다.

4:2 같이 있을 때 바울은 그곳 성도들에게 거듭해서, 주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실제 거룩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강하게 명했다.

4:3 자기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거룩이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구별한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주님을 섬기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것은 신분상의 거룩으로 알려져 있으며 완벽하고 또한 온전하다(고전 1:2; 히 10:10). 그러나 다른 의미로 보면 믿는 자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되며, 이는 곧 온갖 형태의 죄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적, 혹은 점진적인 거룩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죽거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다. 3절에서 이 단어는 바로 이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5:23 하단에 나오는 거룩에 대한 설명 부분을 보라).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구체적인 죄는 불법적인 성관계이며, 이 단락에서는 간음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교도들의 세상에서는 주요 범죄 중 하나다. 음란을 버리라는 권면은 일세기만큼이나 지금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다.

4:4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각자가 자기 “그릇”(우리말 성경에는 ‘아내’로 번역되어 있음-역주)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그릇”이란 단어는 “아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남자의 몸”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아내를 가리켜 사용되었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몸을 가리켜 사용되었다.

개정표준역(RSV)은 이 단어가 아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새영어성경(NEB)은 몸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너희 모두는 자기 몸을 다스리고, 거룩하게 하며 존귀히 여길 줄을 알아야 한다.”

만일 문맥으로 뜻을 결정한다면 그릇은 사람의 아내를 의미한다. 그 가르침은 각 사람이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또 품위 있게 대해야 되며, 천박한 태도로 어떤 형태의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부일처제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화해 준다(고린도전서 7장 2절도 보라).

4:5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은 불경건한 자들과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한 주석가가 “누가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손을 대셨을 때 그 여자는 온전하게 되었다. 이교도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면 그 여자는 패역한 사람이 되고 만다”고 말한 대로다.

이방인들은 성관계를 색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긴다. 그들에게 있어서 절제는 허약함이며, 결혼은 죄를 합법화하는 수단이다. 이들은 추잡한 대화와 공공건물 담벼락에 써놓은 음란한 낙서로써 자기들의 수치를 자랑한다.

4:6 음란은 하나님의 성령님께 짓는 죄다(고전 6:19). 이는 자기 몸에 짓는 죄다. 그러나 또한 남들에게 짓는 죄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 남자는 결혼의 경계선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되며 형제의 아내의 애정을 훔침으로써 그 형제를 속여서는 안 된다(훔정역은 ‘defraud’로 되어 있으나 우리말 성경은 ‘해하다’로 되어 있음-역주)는 것이다. 오늘날 이런 범죄들은 법정에서 처벌받지 않지만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성적인 범죄는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끔찍한 결말을 가져오지만 이는 자백하지 않아서 용서를 받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영원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 미리 말하고 증거했다.

19세기 영국의 가장 재능 있는 작가들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던 인물이 성적인 범죄를 범하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수치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신들은 내게 거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무분별하고 육감적인 쾌락의 기나긴 유혹에 나를 내어주고 말았다.…높은 자리에 그만 진력이 난 나머지 나는 새로운 흥미를 찾으려고 일부러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 갔다.…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엔 점점 관심이 없어졌다. 나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곳에서 기쁨을 얻었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나는 평범한 하루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사람됨을 형성하고 또 망친다는 것을, 그러므로 사람이 은밀한 방에서 한 일을 언젠가는 지붕에서 외쳐야 하리라는 것을 망각하고 말았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영혼의 주관자가 아니었지만 그것을 몰랐다. 나는 쾌락이 나를 사로잡도록

내버려두었다. 내 인생은 끔찍한 수치로 막을 내렸다.”¹¹⁾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엔 점점 관심이 없어졌다 했는데, 바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는 범죄했으며 이 일에 형제를 해하였다”라고.

4:7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불러내셔서 우리 안에서 평생 동안 일하시는데, 이렇게 하심은 우리를 더욱 더 그분을 닮도록 만드시려는 목적에서다.

4:8 이 교훈을 저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울과 같은 사람의 가르침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신¹²⁾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웃으며 또한 저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거룩(Holy)은 강조 목적으로 쓰였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성적인 범죄를 탐닉할 수 있겠는가?

이 단락에서는 삼위일체의 세 위께서 모두 언급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성부(3절), 성자(2절), 성령(8절). 얼마나 놀라운 생각을 주는 말씀인가! 삼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거룩케 하시는 일에 한결같이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제 주제는 정욕(1-8절)으로부터 사랑(9-12절)으로 넘어가고, 그 권면은 “절제하라”로부터 “풍성하게 하라”로 바뀐다.

11) Oscar Wilde, 그는 동성애를 즐기려고 아름다운 아내를 버렸다.

12) 가장 오래된 중요 사본은 “-또한 주시는”이라고 되어 있다.

2.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사랑(4:9-10)

4:9 믿는 자는 몸을 다스리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주님 안에 있는 자기 형제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된다. 죄가 불신 세상의 핵심 단어인 것처럼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단어이다.

이 덕목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쓸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본능과(요일 2:20,27), 또한 그리스도인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냐 온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사랑함으로써 단연 돋보였다. 여기에 대해 이들을 칭찬함으로써 바울은 그들을 영원히 기억했다.

4:10 앞에서 언급한대로 형제간의 우애(brotherly kindness)는 성취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실천해야 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 안에서 더욱 더 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형제 사랑이 왜 그리도 중요한 것일까? 이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일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치가 있는 곳에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시 133:1,3).

3. 외인들에게 말하는 삶(4:11-12)

4:11 바울은 이곳 성도들에게 세 가지 일을 힘쓰라고 권면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명을 요즘 말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남들의 시선을 모으려 애쓰지 말라. “작고 무명한 자가 되고, 다만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상 받는 것으로 만족하라.”

(2)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괜히 간섭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

(3) 자급자족하라. 남에게 붙어사는 사람, 즉 “결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얻어먹는 사람이 되지 말라.

4:12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인생의 실제적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 구주를 판단한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4. 믿는 자들을 위로하는 소망(4:13-18)

4:13 구약의 신자들은 사람이 죽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스올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 그 몸이 없어지고 난 뒤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쓰는 다목적 용어였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되며, 세상 끝에는 반드시 큰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최종 심판이 온다고 믿었다. 마르다는 이와 같이 불완전한 견해를,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는 말속에서 비쳤다(요 11:24).

주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딤후 1:10). 오늘날 우리는 믿는 자가 죽을 때 몸을 떠나 그리

스도와 같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후 5:8; 빌 1:21,23). 불신자는 하데스에 간다고 한다(눅 16:22-23). 우리는 믿는 자가 다 죽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전 15:51). 우리는 부활이 한 번 이상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휴거 때는 믿는 자들만 부활할 것이다(고전 15:23; 살전 4:16). 반면 이미 죽은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천년 지상통치가 끝날 때에 부활하게 된다(계 20:5).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처음 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지상통치를 위해 강림하신다는 것과 그 뒤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미 죽은 성도들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그들의 몸은 끝날까지 무덤에 남아있는 것인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외되고 마는 것인가?”

그들의 이런 질문에 답하고 또 그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강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의 순서를 설명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라는 문구는 중대 발표를 할 때, 그 읽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할 때 쓰는 것이다. 여기서 그 발표는 자는 자들, 즉 믿는 자들 중 이미 죽은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잠은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의 몸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것이지, 그들의 영이나 혼과는 전혀 무관하다. 잠은 죽음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되는데 이는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영어 단어 중 공동묘지(cemetery)도 헬라어로 “잠자는 곳”(코이메테리온)이란 뜻이다. 또 잠이 익숙한

비유가 되는 것은 매일 밤 우리가 이 죽음의 상징을 실제로 연출하며 또 매일 아침은 부활 같기 때문이다.

성경은 사람이 죽을 때 혼이 잠잔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 부자와 나사로는 죽었을 때 둘 다 의식이 있었다(눅 16:19-31). 믿는 자는 죽을 때 “주와 함께 거한다”(고후 5:8).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며 이런 지위를 바울은 “유익”이라고 말하며 또한 “더욱 좋다”(빌 1:21,23)고 말했다. 만일 혼이 잠잔다면 이 말이 사실일 리가 없을 것이다!

성경은 멸절도 가르치고 있지 않다. 죽을 때 존재가 끝나지는 않는다.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린다(막 10:30).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막 9:48; 계 14:11).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는 소망 없이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슬퍼하는 것을 무조건 금하고 있지는 않다. 예수께서도 잠시 뒤면 친히 살리시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기 때문이다(요 11:35-44). 그러나 천국의 소망도 없고, 다시 만날 소망도 없이 다만 심판만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슬픔은 배격하고 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란 표현을 보면 필자는 언제나 언젠가 참석했던 장례식이 생각난다. 슬픔에 잠긴 친척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그 친척의 관을 빙 둘러싸고 “오, 마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리!” 하고 통곡하는데 어떻게 위로해 볼 도리가 없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4:14 믿는 자의 소망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같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 함께 올리우게 된다는 것도 믿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고전 15:22).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서약이요 증거이다.

“예수 안에서 잔다” 혹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이란 표현을 눈여겨보라.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몸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을 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가지 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휴거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몸을 일으키셔서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다.

(2)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지상통치를 위해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믿고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사도의 말은, “죽은 자들이 장차 올 나라의 영광에서 누락될까봐 염려하지는 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권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그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들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첫 번째 뜻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의 몸은 지금 무덤 속에 누어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인가? 그 해답은 15-17절에 나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나라를 세우러 오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하늘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있게 하시기 위해 재림하시게 된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

난 뒤,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4:15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의 대답은 이렇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는 여기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던 것이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는지는 모른다. 이상에 의한 것인지,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사도 속에 감동을 주신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진 바 없는 진리였음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 계속하여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잠자는 성도들을 앞서지도 못하고 더 나은 점도 없으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로 말씀하고 있다(고린도전서 15장 51-52절도 보라).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5장 1절에서는 부활할 사람들 가운데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결론은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라도 오실 것을 바라고 살아야 되지만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 도착하도록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4:16 그리스도께서 자기 성도들을 위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의 정확한 순서가 이제 나와 있다. 주께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신다. 그분은 천사를 보내시지 않고 친히 오실 것이다!

여기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동반하게 된다. 이 호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지만, 솔직

히 이에 대해 결정적으로 이것이 맞다고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1) 어떤 사람들은 이 호령이 주 예수님이 친히 내시는 음성이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며(요 5:25; 11:43-44), 산 자들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한다. 또 호그(Hogg)와 바인(Vine)같은 사람들은 이 호령은 천사장의 소리라고 한다.

(2) 천사장 미가엘의 소리는 구약의 성도를 모으는 명령으로 흔히 이해하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단 12:1; 유 9절; 계 12:4-7). 이렇게 소리를 발하는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을 되살리려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천사장의 소리가 천사들을 명해서 군대가 호위하듯 주님과 그분의 성도들을 그 곁에서 호위하여 적의 영토를 통과해서 하늘로 돌아갈 때까지 지키게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누가복음 16장 22절 참조).

(3) 하나님의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마지막 나팔소리와 같은 것이며 휴거 때 믿는 자의 부활과 연관이 있다. 이 나팔은 성도를 불러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한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5-18절의 일곱 번째 나팔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나팔은 대환난 기간 중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쏟아지는 심판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지막 나팔은 교회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나팔이다. 계시록의 일곱 번째 나팔은 믿지 않는 세상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이다(물론 “마지막 나팔”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 사람들 중에 구약의 성도들이 들어가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사장의 소리가 이 때 들리며, 또 그는 이스라엘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단 12:1). 구약 성도들이 휴거 때에 들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어구는 교회시대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결코 적용이 안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구약 성도들은 대환난이 끝날 무렵에 살아난다는 것이다(단 12:2). 어떤 경우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것은 분명 누구나 부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때 부활하는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 일어난다.

4:17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휴거”라는 단어는 주님의 강림의 첫 번째 단계를 묘사하기 위해 쓰는데 라틴어 성경에 “끌어올리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다.¹³⁾ “휴거”는 낚아채 가는 것, 혹은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빌립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12장 2,4절에서 바울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남자 아이를 가리켜서 사용되고 있다.

“공중”(The air,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로 되어 있음-역주)은 사단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강림은 승리의 모임으로써 마귀의 성체에 대

13) 라틴어 동사 rapere의 과거분사형 raptus. 제롬의 벌게이트 성경이 원래 어법대로 정확하게 옮겨놓은 것을 보면 “rapiemur cum illis”(우리가 그들과 함께 들림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다.

한 권리를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이 구절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라! 땅과 바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티끌을 내놓는다. 그 다음에 이 티끌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영원히 병과 고통, 죽음이 없게 되는 변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로 우주 여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눈 깜짝할 동안에 일어난다(고전 15:52).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 기사를 믿지 않으려 한다. 창조가 믿기 어려우면 휴거는 어떻겠는가? 하나님께서, 매장되었거나 흩어지고 뿌려졌거나 아니면 온 세계 해변에서 씻겨 내려가 버린 티끌로부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다시 살려 내시는 그 때의 일을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주여행에 열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 인간 최고의 업적들이 천국까지 단 일초도 안 되는 지극히 짧은 시간 만에 여행하는 놀라운 일, 게다가 우주인들이 우주선 밖으로 잠깐 유평할 때 달고 다니는 산소통도 안 매고 가는 것과 비교나 된단 말인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해서 볼 때, 들을 소리가 있고, 볼 광경이 있으며, 느낄 기적이 있고, 즐길 모임이 있으며, 경험할 위로가 있다.

이 구절들에서는 “주”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는 것도 유익하다. “주의 말씀”(15절), “주의 강림하심”(15절), “주께서 친히”(16절), “주를 영접하다”(17절), “항상 주와 함께 있다”(17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희락과 복을 누

가 다 말할 수 있을까!

4:18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의 강림하심을 생각하면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주의 강림하심은 기쁨과, 격려와 위로를 주는 소망이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

휴거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가 여럿 있다.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바람결에 날리는 갈대로 생각한다.

(1)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수립(눅 21:29)-무화과나무 (이스라엘)가 싹이 나고 있는, 즉 그 잎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눅 21:29-31).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자기 고토에 국가라는 존재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여러 나라들의 발흥(눅 21:29)-예수님께서서는 무화과나무만 잎이 나올 뿐 아니라 모든 나무들도 그러하리라고 하셨다. 최근엔 우리는 식민정부들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국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목도했다. 때는 바야흐로 국가주의의 시대다.

(3) 불신앙 가운데 고토로 귀환하는 이스라엘(겔 36:24-25)-에스겔은 이들이 귀환하고 난 뒤라야 그 죄에서 씻김을 받으리라고 예언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국민 대다수가 불가지론자인 나라이다. 국민들 중 단지 소수만이(그러나 매우 영향력이 있다) 정통 유대인일 따름이다.

(4) 에큐메니칼(교회연합)운동(계 17-18장)-큰 바벨론은 거대한 종교, 정치, 상업 체제로서 기독교라고 말들은 하지만 배도한 카톨릭과 배도한 개신교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배도한 종교조직이라고 분별된다. 기독교계는 점점 더 배도하고 있으며(딤후전 4:1; 살후 2:3), 초대형 세계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5) 전 세계적인 귀신숭배 확산(딤후전 4:1-3)-이것은 지금 이 순간 광범위한 지역을 휩쓸고 있다.

(6) 도덕기준의 급격한 몰락(딤후 3:1-5)-일간 신문은 여기에 대한 증거를 넘치도록 전해주고 있다.

(7) 폭력과 사회 불복종(살후 2:7-8)-불법주의는 가정에도, 국민 생활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난무하고 있다.

(8)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딤후 3:5).

(9) 적그리스도의 영이 일어나며(요일 2:18), 기독교라 하면서도 믿음의 근본진리들을 전부 부인하는 이단종파들의 난무로 인해서 밝히 드러나게 됨-그들은 흉내를 내서 속인다(딤후 3:8).

(10) 같은 노선을 지닌 나라들이 연합해서 말일에 나타날 연합국가 진영과 거의 흡사하게 되어 가는 추세-로마조약으로 알려진 것에 기초하고 있는 유럽공동시장(European Common Market-이것은 1993년 11월부로 생겨난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대체되었으며 EU 가입국가들은 정치, 사회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 결정하며 통화단일화 및 정치, 사회 전반의 단

일화를 피하고 있다-역주)은 결국 로마제국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철과 진흙으로 된 열 개의 발가락(단 2:32-35).

(11)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세계정세에 곧 개입하시게 될 것을 부인함(벧후 3:3-4).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 나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세계적인 기근의 위협, 국가간 적대감 심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마 24:6,7). 정부가 법과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테러를 진압하지 못함으로써 세계독재자의 등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핵무기 제조는 “누가 능히 이로(즉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오?”(계 13:4)와 같은 의문에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전 세계적인 TV시설은 지구 전역에서 동시에 보게 되는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말씀들을 이루는 수단이 될지도 모른다(계 1:7).

이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통치를 위해 강림하시기 전에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다. 성경은 이 사건들이 휴거 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나타나시기(지상재림) 전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또 이런 추세들이 이미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다면 분명한 결론은 휴거가 가까웠음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5. 주의 날(5:1-11)

5:1 성경 교사들은 자기가 말하던 주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야 되는데 장(章)이 나뉘게 되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는 일이

찾다. 그러나 여기서 장 분리는 적절한 것이다. 바울은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고 있다. 그는 휴거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주의 날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에 관해서는”(영어 흠정역에는 나와 있으나 우리 말 성경에는 없음-역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는 *peri de*) 새로운 생각의 전개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고린도전서에 자주 나오고 있는 것과 같다.

진짜 신자에게 휴거는 위로를 주는 소망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여기에 때와 시기라고 언급되어 있는 시기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시기는 성격상 일차적으로는 유대인과 관련된 것이다. 이 시기 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다루기 시작하시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말세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언제 나라를 세우실 것이냐고 여쭙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때와 시기는 그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대답하셨다(행 1:7). 때와 시기는 주님의 천년왕국 통치기간 뿐 아니라 천년왕국 도래 이전까지의 기간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우선 한 가지 이유는 성도들이 그로 인해 아무런 영향을 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즉 이러한 시기가 오기 전에 그들은 하늘로 올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때와 시기, 주의 날은 구약성경에서 보게 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휴거는 비밀이며(고전 15:51), 사도시대에 이르러서야 계시된 것이다.

5:2 성도들은 이미 “주의 날”에 대해 알고 있다. 그들은 그 정확

한 때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과, 사람들이 가장 예기치 못할 그 때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울이 “주의 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슨 뜻이었을까? 이것은 분명 24시간으로 된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징들을 지닌 일정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약에서 이 기간은 “심판, 황무, 흑암의 시기”를 묘사할 때면 언제나 사용되었다(사 2:12; 13:9-16; 율 2:1-2). 이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대적하여 돌진하셔서 그들을 결정적으로 징벌하셨을 때다(슌 3:8-12; 율 3:14-16; 율 15-17장; 슌 12:8-9). 그러나 이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 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죄를 징벌하신 때이기도 했다(율 1:15-20; 암 5:18; 슌 1:17-18). 근본적으로 볼 때 “주의 날”은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싸움에서의 승리(율 2:31-32), 친 백성에게 내리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가리킨 말이었다.

장래에 있을 “주의 날”은 때와 시기라고 한 것과 거의 같은 기간 지속될 것이다. 주의 날은 휴거 뒤에 시작하며 다음 사건들을 포함하게 된다.

(1) 대환난, 즉 “야곱의 환난의 때”(단 9:27; 렘 30:7; 마 24:4-28; 살후 2:2; 계 6:1-19:16).

(2)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심(말 4:1-3; 살후 1:7-9).

(3) 그리스도의 천년 지상통치(율 3:18 [14절 참조]; 슌 14:8-9 [1절 참조]).

(4)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이 불로 살라짐(벧후 3:7,10).

“주의 날”은 여호와께서 인간사에 공개적으로 개입하시는 때다. 그 특징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이스라엘 중 배도한 무리들에게 내리시는 심판, 그 친 백성들을 구원하심, 자기를 위해 평화롭고 번영하는 영광스런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다.

사도는 자기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재차 상기시키고 있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세상은 전혀 예비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다.

5:3 이 날은 또한 전혀 방비하지 않고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파괴적으로, 어김없이, 그리고 피할 수 없게 닥칠 것이다.

세상에는 자신감과 방심의 분위기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파괴력은 엄청날 것이다. 여기서 “멸망”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거나 멸절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존재 목적과 관련해서 보면 안정된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 또는 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어김없이 그리고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심판으로부터 불신자는 전혀 피할 수 없게 된다.

5:4 대명사가 앞 구절들에서는 “저희가”와 “저희에게”였지만 이 구절들로부터 “너희”와 “우리”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 날”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에게는 진노의 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 답은 우리는 어두

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날은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2절). 그 날이 모든 사람을 덮치는(overtake; 우리말 성경에는 ‘이른다’ 또는 ‘임한다’로 되어 있음-역주) 유일한 길은 도적같이 오는 것이며, 그 날이 덮치게 되는 유일한 사람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날은 믿는 자들을 결코 덮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 읽어보면 이 구절은 주의 날이 믿는 자를 덮치되 도적처럼 덮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 날은 절대 믿는 자들을 덮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적이 이 세상의 밤에 올 때 성도들은 이미 영원한 빛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5 그리스도인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들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린 이 세상에 쏟으실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실 때문이다. 주의 날에 내리는 심판들을 받을 대상은 오직 도덕적인 어두움과 영적인 밤에 있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들뿐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날이라는 뜻이 아니다. “낮의 아들이다”라는 뜻은 “도덕적으로 의로움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다. 주의 날은 도덕적인 어두움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때다.

5:6 계속되는 세 구절(6-8절)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높아진 지

위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부르고 있다. 이것은 “근신”과 “깨어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유혹, 게으름, 무기력, 마음이 나뉘를 경계해야만 한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구주의 재림이 언제 올지 주의해야만 된다.

여기서 “깨어있음”은 대화와 일반적인 품행에 있어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5:7 자연의 범주에서 보면 잠은 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범주에서도 경솔한 무관심은 어둠의 아들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사람들은 밤에 취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요 3:19). “나이트클럽”이란 바로 그 이름이 음주와 술잔치에 담긴 의미를 밤의 어두움과 연결해주고 있다.

5:8 낮에 속한 사람들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요일 1:7). 이는 죄를 판단하고 버리는 것이며,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입는 것이며 그 뒤로도 계속 벗지 않는 것이다.

그 갑옷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이 갑옷은 믿음, 사랑, 소망, 곧 그리스도인 인격의 핵심요소 세 가지인 것이다. 흉배와 투구의 세부적인 면들을 굳이 애써 설명할 필요는 없다. 사도는 빛의 아들들이 일관성 있고 경건한 삶이라는 보호막을 덮고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부패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주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다.

5장에 나오는 중요한 대조

믿지 않는 자들(“저희”)	믿는 자들(“너희”)
잠자는	자지 말고
술취한	취하지 않고
어두움에 속한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밤과 어두움에 속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저희에게 홀연히 임하리니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5:9 휴거는 양면이 있으니 곧 구원과 진노하심이다. 믿는 자에게 휴거는 그의 구원이 하늘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됨을 의미한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땅에 진노의 때가 도래함을 뜻한다.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환난 동안 친히 쏟으실 진노를 우리가 받도록 정하시 않으시고 오히려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는 바로 죄라는 존재 자체로부터 영원히 자유를 얻는 것이다.

여기서 진노는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서 당하게 될 형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우심은 그 형벌을 받게 하심이 아니지만 여기서 이러한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바울은 지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장차 땅 위에 있게 될 사건들을 말하고 있다. 문맥을 보면 주의 날을 다루고 있으며 그 날은 바로 땅 위의 인간 역사상 가장 큰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마 24:21). 우리는 형벌 집행자가 아닌 구주를 만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이들은 대환난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분을 내는 때(계 12:12)라고 한다. 그들은 교회가 사단의 분을 겪게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는 구원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 구절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 진노를 쏟으시는 배경은 바로 대환난 기간이다. 요한계시록 6장 16-17절; 14장 9,10,19절; 15장 1,7절; 16장 1,19절을 참고하라.

5:10 이 구절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우리 구원을 보증하시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깨닫지 자든지”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이 휴거가 일어날 때 “죽었든지 살아있든지”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들은 그 때 믿는 자들은 두 부류가 있게 되는데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과 그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 담긴 사상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산 사람들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게 되리라는 것이다. 죽

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잃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마르다에게 설명해주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즉, 휴거 전에 죽는 그리스도인) 살겠고(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휴거 때에 살아있는 신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

다른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깨든지 자든지는 “근신하고 있든지 세상적이든지”를 뜻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바울의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든지, 아니면 육신적이어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든지 간에 들림을 받아 주님을 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 있는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언제 오실까 조심조심 살고 있든지, 아니면 깊은 잠에 점점 빠져들어 가고 있든지 간에 말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게 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

이 두 번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깨든지”라는 단어가 6절에 나오는 “근신하여”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잠”이라는 단어가 6절과 7절에서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민감하지 않은 것이며 여기에서는 세상을 본받는 것도 포함된다”(Vine). 그러나 이것은 4장 13,14,15절에 사용된 잠과는 다른 단어며 이 세 구절에서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¹⁴⁾

14) 원어의 단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5:10의 “깨다”와 5:6의 “근신하다”는 gregareo(남자 이름 “그레고리”<Gregory>와, “정신을 차리고 있는”

5:11 이렇게 큰 구원을 생각할 때, 이렇게 크신 구주를 사랑하고 또 그분이 곧 오실 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가르침과 격려와 본을 통해 서로 권면해야 되며, 서로를 세워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돌아봄으로써 해야 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살게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서로 협력하며 같이 살아야 된다.

6. 성도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권면(5:12-22)

5:12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로들이 혹 일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들을 책망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게으른 사람들은 장로들의 책망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이란 말을 볼 때 분명하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맡은 작은 목자들이다. 그들의 책임은 가르치고, 다스리고, 경고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사도시대 교회에는 일인통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신약성경의 여러 구절 중 하나이다. 각 교회마다 여러 명의 장로들이 있어서 그 지역 교회의 양들을 돌아보았다. 이는 데니(Deney)가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느 정도 독점적인 책임을 맡은 단일 총회장이나, 일인 목회자가 있지 않았다. 그 통솔권은 여러 사람의 손에 맡겨진 것이었다.”¹⁵⁾

<watchful>의 어원). 5:6,7의 “자다”는 *katheudo*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잠” 혹은 “영적인 태만과 무관심”을 의미할 수도 있다(Arndt와 Gingrich).

15) James Denney, *The Epistles to Thessalonians*, p. 205

그러나 일인통치가 없다고 해서 만인 통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임은 민주주의가 되서는 안 되며 귀족정치, 즉 최고 적격자들의 통치가 되어야 한다.

5:13 장로들은 주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들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이유 때문에 장로들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¹⁶⁾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권면은 결코 우연히 삽입한 것이 아니다. 어딜 가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서로 잘 지내는 것이다. 모든 믿는 자는 어떤 지역교회라도 분열시키고 파선시킬만한 육신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는 사랑, 상한 심령, 인내, 온유, 양선, 용서와 같은 성품이 자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것들은 화목을 얻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화목에 대한 위협으로 바울이 특별히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인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편당을 만드는 것이었으리라.

5:14 이 구절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구절은 문제 있는 형제들을 다루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1)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규모 없는 자들이란 교회와 행동을 같이 하려 아니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교회의 화목을 애써 어지럽히려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규모 없는 자들은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12절에 묘사된 사

16) 장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보려면 디모데전서 3:1-7과 디도서 1:5-9에 대한 주석을 보라.

람들처럼 질서 없이 행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다.

(2) 겁이 많은 자들(*faint-hearted*;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음-역주)-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미쁘게 전진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해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흠정역에서 이 부분을 “마음이 약한 자들”(feeble-minded)이라고 번역한 것을 놓고 옥켄가(Ockenga)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이 단어가 마음이 약하다는 뜻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안위할 수 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드는 것 같다.”

이것이야말로 복음과 기독교에 대한 찬사가 아니겠는가? 최소한 이런 사람들이 동정과 사랑과 관심을 얻게 되는 곳이 하나라도 있으니 말이다.

(3)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즉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이 주된 가르침으로 보이지만, 물론 물질적인 도움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

(4)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다른 사람들이 특하면 짜증나게 하고 화를 내게 만들더라도 덕스럽게 오래 참는 것을 나타내라.

5:15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하면서 바울은 보복할

생각을 품는 것을 일절 금하고 있다. 피해를 입으면 반격하고, 받은 대로 갚아주려는 것은 자연스런 반응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초자연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본능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나타내고 불신자에게도 동일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5:16 그리스도인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조차도 끊임없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 기쁨의 근원과 주제가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환경을 주장하시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항상 기뻐하라”(Rejoice always)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다. 물론 “예수께서 우시더라”(Jesus wept)가 영어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말이다.

5:17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태도가 되어야 한다—정규 의무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기도에 몰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가 생기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기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과 끊임 없는 교제를 누린다.

5:18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타고난 감정이라야 한다. 만일 로마서 8장 28절이 진리라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범사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죄에 대한 핑계거리가 되진 못한다.

이 세 가지 습관을 가리켜서 교회 의사규칙(議事規則)이라고 불려왔다. 이 셋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이 세 가지 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그분은 자기가 가르치신 것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었음을 생각나게 해준다.

5:19 19절부터 22절까지는 모임 안에서의 행동을 다루고 있다고 보여진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그분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죄는 성령을 소멸한다. 전통이 그분을 소멸한다. 공중예배시 인간이 만든 규칙과 규정들이 성령을 소멸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냉정한 표정, 경멸하는 말, 침묵, 의도적인 무시는 오랫동안 성령을 소멸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비판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했다. 라이리(Ryrie)는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그분의 사역이 개인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 억눌릴 때마다”라고 했다.

5:20 이 구절을 앞 구절과 연결해보면 여기에 담긴 가르침은 우리가 예언을 멸시할 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린 형제가 공중 예배 때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할 수 있다. 그 사람을 비판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간증을 부끄러워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신약에서의 일차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했다. 선지자들이 감동을 입어 말한 것들이 우리

를 위해 성경에 보존되어있다. 이차적인 의미로 볼 때 예언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5:21 우리는 듣는 것을 반드시 평가해야 되며 또 좋은 것, 순전한 것, 진실한 것을 “굳게 잡아야”(hold fast; 우리말 성경에는 ‘취하고’로 나와 있음-역주) 한다. 우리가 모든 설교와 가르침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님이 여러 다른 형제들을 통해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말씀이 오용되는 경우가 이따금 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이러한 오용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이는 데니(Dr. Denney)가 쓴 바와 같다.

“개방된 집회, 예언의 자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집회는 현대 교회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중 하나다.”¹⁷⁾

5:22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 거짓 방언이나 예언, 가르침을 뜻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악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A. T. 피어슨(Pierson)은 16-22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분명한 사고방식 일곱 가지가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1) 찬양하는 사고방식(16절). 하나님의 다루심은 모두 무한히 위대하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2) 기도하는 사고방식(17절). 기도를 적절하지 않게, 또 합당치 않게 하면 안 된다.

17) Denney, *Thessalonians*, p. 244

(3) 감사하는 사고방식(18절). 육신에게는 즐겁지 않은 환경에서조차도.

(4) 성령님의 사고방식(19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나 우리를 통해서나 완전히 자유로우셔만 한다.

(5)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고방식(20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6) 판단할 줄 아는 사고방식(21절). 요한일서 4:1과 비교해 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라.

(7) 거룩한 사고방식(22절). 악의 모양이 당신 마음속에 생겨나면 그 악을 피하라.¹⁸⁾

18) Arthur T. Pierson,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4. 끝맺는 인사(5:23-28)

5:23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聖化)를 위해서 기도한다. 거룩의 근원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 범위는 ‘너희라는 존재의 모든 부분’을 뜻하는 “온전히”라는 말속에서 보게 된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억지로 적용해서 “완전 성화”라는 “성결”(Holiness)의 교리, 즉 믿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가 전혀 없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교리를 증명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기도할 때 의미한 뜻이 아니다. 그는 죄의 성품을 완전히 없애주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룩이 그들 존재의 모든 부분, 즉 영, 혼, 몸에까지 이르게 해주시라고 기도한 것이다.

성 화

신약에는 성화의 단계가 네 가지 나오는데, “구원 전(前) 성화”, “지위상의 성화”, “실제적 또는 점진적인 성화”, “완전 성화”가 그것이다.

(1)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도 구별되어서 외형적으로 특별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읽어보면 믿

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믿는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 전 성화(pre-conversion sanctification)라고 한다.

(2) 언제든지 사람이 거듭나면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지위상으로 거룩(positionally sanctified)하게 된다. 이것은 그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사도 행전 26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6장 11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히브리서 10장 10,14절과 같은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다.

(3) 그 다음에는 점진적인 성화(progressive sanctification)가 있다. 이것은 현재 믿는 자가 이 세상, 죄, 자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구별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믿는 자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4절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도 역시 보게 된다. 이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요 17:17; 고후 3:18). 이러한 실제적인 거룩은 믿는 자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계속되어야만 한다. 믿는 자는 이 땅에서 결코 완전이나 무죄함에 이를 수 없지만, 이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야만 한다.

(4) 완전 성화(Perfect sanctification)는 믿는 자가 하늘에서 얻게 되는 최종적인 상태다. 믿는 자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그는 도덕적으로 주님과 같게 되고, 죄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마침내 구별된다(요

일 3:1-3).

사도는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보전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이 보전은 사람의 모든 부분, 곧 영, 혼, 몸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순서를 잘 보라. 사람은 늘 몸, 혼, 영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늘 영, 혼, 몸이라고 하신다. 태초에 창조하실 때 영이 제일 중요했고, 몸은 제일 나중이었기 때문이다. 죄는 이 순서를 뒤집어 놓았다. 즉 사람은 몸을 위해 살고, 영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물질적인 필요보다 영적으로 잘 되도록 빌어야만 한다.

이 구절 및 다른 구절들을 볼 때 사람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우리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감정, 갈망, 애정, 성향과 관계가 있다(요 12:27). 우리의 몸은 우리라는 인격체가 들어가 살고 있는 집이다(고후 5:1).

우리 지체의 모든 부위는 온전하게, 즉 완전하고 무사하게 보전될 필요가 있다. 한 주석가는 그 보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영은 ① 모든 더럽히는 것으로부터(고후 7:1); ② 성령님께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증거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롬 8:16)으로부터; ③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막는 모든 것(요 4:23; 빌 3:3)으로부터.

(2) 혼은 ① 악한 생각으로부터(마 15:18-19; 엡 2:3); ② 혼을 거

스려 싸우는 육신적인 욕구(벤티전 2:11)로부터; ③ 다툼과 분쟁(히 12:15)으로부터.

(3) 몸은 ① 더럽힘으로부터(살전 4:3-8); ② 악한 용도로부터(롬 6:19).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 같다(엡 2:1).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만큼은 죽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그들의 영이 신비주의 세계와 접촉할 때는 매우 생기 왕성한 존재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있다는 것이다.

렌스키(Lenski)는 이렇게 경고한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일부분만으로 만족하며, 자기 삶의 일부는 여전히 세속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사도들의 권면은 어느 누구도 정결함을 피할 수 없도록 우리 본성의 구석구석을 찢어댄다.”¹⁹⁾

그의 기도는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케 하심과 보전하심이 성도들의 인격 전반에까지 모두 미쳐서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되기를 구하고 있다. 이것은 휴거 뒤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과 봉사, 간증은 검토를 받으며 그는 상급을 받

19)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s to the Colossians, to the Thessalonians, to Timothy, to Titus, and Philemon*, p. 364

거나 잃게 된다. ♠

5:24 우리가 4장 3절에서 배운 대로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종국에 가서는 그분 앞에 흠 없이 서게 하려 하셨다.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그분은 끝내실 것이다(빌 1:6).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5:25 바울은 편지를 맺으면서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바울은 그토록 영적으로 성숙했었지만 여전히 기도가 필요했으며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5:26 다음으로 그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부탁한다. 그때 당시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인사법이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아직도 남자가 남자에게 입을 맞추고, 여자가 여자에게 입을 맞추는 관습이 남아있다.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나 흔히 보면 이런 인사법은 지나치게 남용되었던 탓에 폐지되어야만 했다.

입맞춤은 주님께서 합당한 인사법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며 사도들이 마땅히 해야 된다고 가르친 것도 아니다. 지혜롭게도 성경은 입맞춤이 성적인 문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화권에서는 다른 인사법을 쓰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서는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막으시려고 입맞춤은 “거룩”해야만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

고 있다.

5:27 사도는 모든 “거룩한”²⁰⁾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고 엄숙하게 명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 면을 주목해야 되겠다.

(1) 바울은 이 편지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구약성경은 회당에서 공적으로 낭독되었다. 이제 이 편지가 교회에서 읽어 들리게 된다.

(2)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지, 어떤 핵심계급이나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다.

데니(Denney)는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주장을 펴고 있다.

“복음이 혹 어느 사람이라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거기에는 대단한 지혜도, 선도 없다. 또 어떤 교회가 그 지체들을 영구적인 미성년자로 머무르게 하고, 성경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누르며, 성경에 담긴 모든 것이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 들리지 못하게끔 애를 쓰는 것이야말로 그 교회가 믿음이 없음과 변절했다는 가장 확실한 표다.”²¹⁾

25-27절에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열쇠가 세 가지 있음을 주목하라. (1) 기도 (25절), (2) 함께 믿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며(이 사랑은 교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26절), (3)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27절).

5:28 끝으로 우리는 바울의 전형적인 맺음말을 읽게 된다. 그는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편지를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제 같은 주제

20) 중요 사본은 “거룩한”을 뺐다.

21) Denney, *Thessalonians*, pp. 263,264

로 글을 맺고 있다. 사도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이기 때문이다. 아멘

참고 문헌

- Buckland, A. R. *St. Paul's First Epistle to the Thessalonians*. Philadelphia: The Union Press, 1908.
- Buckland, A. R. *St. Paul's Second Epistle to the Thessalonians*. Philadelphia: The Union Press, 1909.
- Denney, James. *The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New York: George H. Doran Company, n. d.
- Eadie, Joh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of the Epistles of Paul to the Thessalonians*. London: MacMillan, 1877.
- Frame, James E. *A Critical and Exegetical Thessalonians, ICC*. New York: Chas. Scribner's Sons, 1912.
- Hogg, C. F. and W. E. Vine,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Thessalonians*. London: C. A. Hammond, 1953
- Kelly, William.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Thessalonians*. London: C. A. Hammond, 1953.
- Morris, Leo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Thessalonians, TBC*.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7.
- Morris, Leon.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NIC*.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9.

Wood, George Robert Harding. *St Paul's First Letter*. London:
Henry E. Walter Ltd., 1952

데살로니가후서

김대영 옮김

데살로니가후서 서론

“첫 번째 서신과 마찬가지로 사도는 즉시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을 점차 또 모든 면에서 준비시켜서 진리를 굳게 붙잡게 하며, 잘못된 것이 일단 발견되면 배제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바로 잡으면 단순히 오류나 악만을 다루어야 될 필요가 없다.”—윌리엄 켈리

1. 정경(正經)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

이 편지에서는 교리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에서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된다. 바울은 재림과 불법의 사람(죄의 사람)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바를 시정하고 아울러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는 또 재림을 일하지 않는 데 대한 변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도 건전한 충고를 주고 있는데 곧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한다!

2. 기자

데살로니가후서의 기자에 대한 외부적인 증거라는 것이 혹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는 데살로니가전서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 바울의 저자라는 것은 옛날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저스틴이 증거한 것

이며(마르시온 정경과 무라토리 정경에서 발견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레니우스는 데살로니가후서를 인용할 때 바울의 이름을 들고 있다.

본 서신은 아주 짧아서 전서만큼은 내부적인 증거가 없지만 전서를 너무나 잘 보완하고 있으며 또 너무나 잘 일치하고 있어서 이 서신의 기자가 바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

3. 기록 연대

데살로니가후서는 나중에 발생한 문제들과 전서의 내용 일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대한 응답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 두 서신의 기록시기는 그 간격이 몇 달 혹은 몇 주밖에 되지 않는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함께 있었다(1:1). 고린도는 우리가 보기에 성경에서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나오는 유일한 도시이다(행 18:15). 그러므로 기록연대는 주후 50년대 초반, 아마 50년이나 51년일 것이다.

4. 기록배경과 주제

데살로니가에 첫 편지를 쓰고 나서 그렇게 빨리 다시 편지를 쓰게 된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격려가 필요했다(1장). 주의 날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기에 분명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2장).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서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었다(3장).

“주의 날”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이미 주의 날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져있었다. 이들의 두려움은 그릇된 소문에 의해 더 심해졌고 나중에는 바울조차 그 날이 지금 임했다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고 있는 것이다.

주의 날은 주의 강림, 즉 휴거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벌써 강림하신 게 아니냐는 두려움에 빠져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환난 중, 주의 날의 첫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며 두려워하고 있었다.

전에 바울은 휴거 전에 무슨 사건이라도 일어나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주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큰 배도가 있을 것이며, “막는 자”가 제거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본 서신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휴거, 주의 날, 그리스도께서 지상 통치를 위해서 강림하시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의 날은 데살로니가전서 5:2의 주석에 정의되어 있다. 휴거와 계시의 구별은 데살로니가후서 1:7에 대한 부기(附記)에 나와 있다.

5. 개요

1. 인사(1:1-2)

2.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1:3-12)

- (1) 감사의 빛을 진 바울(1:3-5)
- (2)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1:6-10)
- (3)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1:11-12)

3. 주의 날에 관하여(2:1-12)

- (1) 동심하지 말 것을 구함(2:1-2)
- (2) 불법의 사람(2:3-12)

4. 감사와 기도(2:13-17)

- (1) 성도들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에 대한 바울의 감사(2:13-14)
- (2)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세움을 입도록 구하는 바울의 기도(2:15-17)

5. 실제적인 권면(3:1-15)

- (1) 서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3:1-5)
- (2) 불순종하는 자들의 치리에 대해(3:6-15)

6. 축복과 인사(3:16-18)

1. 인 사(1:1-2)

1:1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쓸 때 그와 함께 있었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수신자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지리적인 위치는 어디인지가 밝혀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모임을 다른 이교도들의 모임과 구별해주고 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모임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드러내준다.¹⁾

1:2 사도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명성이나 재산, 낙이 아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평강은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해준다. 사람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것 말고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은혜가 평강보다 먼저 언급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기 전에 그분의 은혜를 알아야만 한다.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축복의 공동 근원으로 언급하고

1) 데살로니가(오늘날의 살로니카)에는 아직도 신약의 진리를 따라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다.

있는 것은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심을 암시하는 것이다.

2.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1:3-12)

1. 감사의 빛을 진 바울(1:3-5)

1:3 이 편지는 성도들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고 있다. 이 편지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심장의 박동소리를 듣게 된다. 그에게 있어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의무였으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생각할 때 그것은 또한 마땅한 의무이기도 했다. 그들의 믿음은 놀랄 만큼 진보하고 있었으며 각 성도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른 이들에게 더욱 더 많은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은 사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살전 3:10,12).

순서를 주의해 보라. 먼저는 믿음이요, 다음은 사랑이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의 샘과 접촉하게 만든다”라고 C. H. 매킨토시(Mackintosh)는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 필연적인 결과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샘 속에서 길은 바 되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들에게 전달된다”고 했다.

1:4 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로 하여금 다른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했다. 이들

은 자신들이 견뎌내고 있는 그 핍박들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했고 또한 진리로 충만했다. 여기서 인내는 신실함 또는 오래 참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1:5 이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토록 용감하게 서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편이셨고, 이들을 강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가운데서 그런 인내와 믿음을 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성도들의 영웅적인 인내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입증해주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개인적으로 내세울 만한 점이 있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을 뿐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장차 올 그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사람들 가운데 속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롬 8:17; 딤후 2:12).

E. W. 로저스(Rogers)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사람의 책임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 면에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영광을 얻을 만한 자격을 얻게 되었지만, 이 자격을 얻게된 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었고, 이것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내세

을 만한 그 어떤 것과도 하등 관련이 없으며, 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게 해서 그들 속에 뛰어난 도덕적인 품성을 기르시는데 이 품성은 이들을 그 나라에 ‘합당한 시민’들로 만들어준다.

사도들 중에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자로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 이들이 있었다. 바울이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들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시라고 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에 무엇을 보태야 한다는 것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음이 너무나 분명하다. 십자가는 믿는 자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위치에 있게 해주지만, 환난 때의 인내와 믿음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다. 세상적인 단체는 어딜 가나 그 회원 중에 자격 면에서 불신 받는 이들이 있다. 바울은 이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²⁾

2.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1:6-10)

1:6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는 두 가지 면에서 보게 된다. 즉 핍박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

윌리엄스(Williams)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백성들을 핍박받게 하시고, 그 핍박하는 자들을 살려두시는 하나님의 행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자기 백성들이

2) E. W. Rogers, *Concerning the Future*, p. 80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시험하시는 것이고(5절), 두 번째는 핍박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함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다.”³⁾

1:7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원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해 고난 받는 이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우리는 7절로부터 고난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불꽃 가운데 하늘로서 임하실 때까지 구출 받지 못하리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믿는 자는 죽을 때 안식을 얻는다. 살아있는 신자들은 휴거 때에 모든 고난으로부터 쉬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쏟으실 때 세상은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보수의 때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다.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안식이 주님의 강림에 다 들어가 있다. 여기서 주의 강림은 어떤 단계를 말하는 것일까? 분명 세 번째 단계, 즉 분명하게 나타나는 단계며 이 때에 주께서는 그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오실 것이다.

휴거와 계시

그러나 “휴거와 계시가 개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답은 “두 사건은 다르다”이며 이 둘은 다음과 같이 성경에서 구별되고 있다.

3) George William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948

(1) 휴거(The Rapture).

① 그리스도는 공중에 임하신다(살전 4:17).

② 그분은 자기 성도들을 위해 오신다(살전 4:16-17).

③ 휴거는 비밀이다. 즉 구약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진리이다(고전 15:51).

④ 그리스도께서 자기 성도들을 위해 오시기 전에 하늘에 불길한 징조가 있다는 말씀이 없다.

⑤ 휴거는 그리스도의 날과 동일한 것으로 나온다(고전 1:8; 고후 1:14; 빌 1:6,10).

⑥ 휴거는 축복의 때로 제시되어 있다(살전 4:18).

⑦ 휴거는 한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전 15:52). 여기에는 세상이 휴거를 목격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강하게 암시되어 있다.

⑧ 휴거는 일차적으로 교회가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요 14:1-4; 고전 15:51-58; 살전 4:13-18)

⑨ 그리스도께서는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다(계 22:16).

⑩ 휴거는 공관복음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몇 차례 암시가 되어 있다.

⑪ 들림 받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 들림을 받는다(살전 4:13-18). 남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남는다(살전 5:1-3).

⑫ 휴거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는 때를 알려주는 어떠한 장치도 없다.

⑬ 휴거를 다루는 구절 어디에도 “인자”라는 호칭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나타나심(The Revelation).

- ① 그리스도는 땅에 오신다(속 14:4).
- ② 그분은 자기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살전 3:13; 유 14절)
- ③ 나타나심은 비밀이 아니다. 오히려 구약 예언의 다수가 이 주 제에 대한 것이다(시 72편; 사 11장; 속 14장).
- ④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함께 오시기 전에 미리 하늘에 징조들이 나타난다(마 24:29-30).
- ⑤ 나타나심은 주의 날과 동일시되고 있다(살후 2:1-12, 오래된 비평 사본).
- ⑥ 나타나심의 주된 강조점은 심판이다(살후 2:8-12).
- ⑦ 나타나심은 전 세계가 볼 수 있을 것이다(마 24:27; 계 1:7).
- ⑧ 나타나심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대상이며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이 연루된다(마 24:1-25:46).
- ⑨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는 의로운 태양으로 오신다(말 4:2).
- ⑩ 나타나심은 공관복음의 특징이지만 요한복음에는 거의 언급된 적이 없다.
- ⑪ 취함을 받는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취해진다. 남는 자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 남는다(마 24:37-41).
- ⑫ 나타나심에는 때를 알려주는 정밀한 장치, 곧 ‘일천이백육십 일’, ‘마흔두 달’, ‘삼 년 반’ 등이 나와 있다(단 7:25, 12:7,11,12; 계11:2, 12:14, 13:5).
- ⑬ 나타나심은 인자의 오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다(마 16:28, 24:27,30,39, 26:64; 막 13:26; 눅 21:27).

일단 이 두 사건이 별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두 사건이 중간에 간격이 있어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 세 가지 증거를 연이어서 언급할 수 있겠다.

(1) 첫 번째 증거는 다니엘의 칠십 주에 대한 예언이다(단 9:25-27). 우리는 지금 69째 주와 70째 주 사이에 삽입된 교회시기에 살고 있다. 칠십째 주는 7년 대환난이다. 교회는 대환난기 전에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취함을 받게 된다(롬 5:9; 살전 1:10; 살전 5:9; 계 3:10). 그리스도께서 지상통치를 위해 강림하시는 것은 70째 주 이후에 일어나게 된다(단 9:24; 마 24장).

(2) 휴거와 나타나심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두 번째 증거는 계시록의 구조에 근거하고 있다. 처음 세 장에는 교회가 지상에 있음을 보게 된다. 4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배척한 이 세상에 진노를 쏟으시는 대환난기를 묘사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일체 언급되지 않고 있다. 교회는 3장이 끝날 무렵 하늘로 들림 받는 것이 분명하다. 요한계시록 19:11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자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지상 재림을 하신다. 즉, 대환난기가 막을 내리는 시기이다.

(3)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오시는 것과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 휴거가 일어날 때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취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

상통치를 위해 오실 때에 이 세상에는 아직 영광의 몸을 입지 못하고 천년왕국 동안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사 11:6,8). 이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휴거와 나타나심 사이에는 일정기간의 간격이 있는 것이 틀림없으며 바로 이 기간에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이제 7절로 돌아가서 주 예수님이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자. 주님 곁에는 천사들이 수행하게 되며 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실행된다.

1:8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인 쉼키나(*Shekinas*) 일지도 모른다(출 16:10). 아니면 곧 내리실 불 심판의 그림일 수도 있다(시 50:3; 사 66:15). 아마 후자일 것으로 분별된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보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보상을 하시는 것이다.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뜻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이 요구하시는 형벌을 내리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겔 18:32).

바울은 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 창조와 양심 속에 계시되신 참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다(롬 1-2장). 이들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

(2)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 복음을 듣고 거절한 사람들이다. 복음은 사실들을 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며 한

인격체께 복종하라는 것이다. 신약에서 의미하는 믿음은 복종을 포함하고 있다.

1:9 “이런 자들이…형벌을 받으리로다.” 죄를 처벌하지 않는 신은 결코 신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 없다는 사상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반드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여기서 이 형벌의 성격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영속적인” 혹은 “영원한”이라고 번역되는 단어(*aionios*)는 신약에서 70번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는 “지속되지만 제한된 기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세 차례 있다(롬 16:25; 딤후 1:9; 딤편 1:2). 그 밖에는 “영원한” 혹은 “끝이 없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끝없이 존재하시는 분임을 묘사하고 있다.

멸망은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존재 목적과 관련해서 보면 이것은 안정된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 또는 몰락을 의미한다. 주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설명하신 가죽부대는 “터뜨려졌다”(여기서 사용된 단어와 어근이 같다). 그 가죽부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차후의 유용성에 관해서는 못쓰게 된 것이다.

이 단락은 대환난 이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다. 그들은 이 단락이 말씀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지상통치를 위해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믿는 자들이 안식을 얻지 못하며, 또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며, 또 그리스도의 지상강림은 분명히 대환

난이 끝날 무렵에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믿는 자들의 소망은 대환난 이후 휴거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 죽었고 이미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도 모두 죽어서 이미 하데스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바울의 말은 이러한 상태가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지상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들릴까? 그 이유는 그 때가 바로 이러한 상태를 세상에 공개적으로 밝히 드러내시는 때이기 때문이다. 그 때에 세상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옳았고 그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올 때 사람들은 그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대환난이 끝날 때 주님께서 그 원수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상통치를 위해 강림하시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는 때임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나 진실이었던 것이 밝혀져서 온 세상이 다 보게 된다. 휴거는 그렇지 않다.

악인의 형벌에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도 들어있다. 주님 없이 멸망하는 것은 그분 없이 영원을 보내는 것이다.

1:10 그리스도의 강림은 주님께는 영광이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라는 때가 될 것이다.

그분은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즉 그 성도들 안에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로 인해 존귀를 얻으신다는 것이다. 성도들의 구원, 성화, 또 영광스럽게 됨은 그분의 비할 바 없는 은혜와 능력에 대한 찬사가 될 것이다.

그분은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⁴⁾ 놀라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토록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가지고 하실 수 있었던 그 일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포함될 것이다. 이들은 사도들의 증거를 받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날의 영광과 승리에 참여할 것이다.

복습 차원에서 우리는 5-10절을 다음과 같이 풀어쓸 수 있겠다.

“환난 가운데서 당신들의 인내는 매우 중요하다.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신 목적을 이루시고 있다. 당신들이 변함없이 꺾박을 잘 참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상통치를 위해 강림하실 때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 속에 당신들도 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을 받는 당신들에게, 또 우리(바울, 실루아노, 디모데)에게도 더 붙어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능력의 집행자인 천사들과 더불어 불꽃 가운데 임하실 때 당신들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은 자들과 의도적으로 복음에 불순종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며,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이 보이는 데서 추방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때 그분은 재림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영광을 얻으

4) 가장 오래된 비평 사본과 다수 사본 모두 여기에 “믿는”을 넣고 있는데 이는 의심할 바 없는 정확한 번역이다.

시는데 이 믿는 자들 중에는 당신들도 포함된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을 당신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3.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1:11-12)

1:11 앞 구절에서 사도는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부르신 것을 계속 묘사했다. 그들은 핍박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핍박이 이번에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사람들로 합당하게 만든다. 이제 사도는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이 이처럼 고상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도록, 또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이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라는 모든 충동에 순종하고 또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신 모든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다.

1:12 그 결과는 양면적일 것이다. 먼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게 된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세상에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이다. 다음에는 그들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그들을 볼 때 그리스도, 곧 그들의 머리되신 분이 생각한다면 그분의 몸의 지체인 그들에게도 영광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1장은 이 기도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그리하여 사도는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한 놀라운 설명을 이제 결론짓고 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이 든든한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지 상상해 보라!

3. 주의 날에 관하여(2:1-12)

1. 동심하지 말 것을 구함(2:1-2)

2:1 바울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주의 날에 대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오해를 고치려 한다. 성도들은 너무나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있던 터라서 이미 주의 날의 첫 번째 단계, 즉 대환난기에 들어서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웠다. 그리고 사도 자신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믿을 뿐 아니라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기록을 바로 잡아야 했다.

1절에서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짧은 단어 하나와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관하여”(ὑπερ, *hyper*)이다. 문제는 사도가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것이 우리 주의 강림하심에 “관하여”인지, 아니면 우리 주의 강림하심을 “인하여”인지이다. 만일 전자의 의미라면 본문은 휴거와 주의 날이 하나요 동일한 사건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들이 주의 날을 다루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만일 후자의 의미라면 바울은 휴거가 미리 일어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들에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제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논란의 여

지가 있다. 우리는 윌리엄 켈리(William Kelly)가 두 번째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공감한다.

“주님이 강림하시리라는 데서 나오는 위로는 그 날(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그릇된 가르침에서 생겨난 불안감을 물리치는 동기와 수단으로 사용되었다.”⁵⁾

우리의 분별은 바울이, “휴거를 근거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주의 날에 들어와 있다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한다. 반드시 휴거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 때 여러분은 하늘의 본향으로 들림을 받을 것이며 그리하여 주의 날에 닥칠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라는 표현은 의심할 바 없이 휴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때다.

2:2 휴거는 주의 날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날이 왔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주님이 강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이 시작되었다고 걱정했다.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심한 핍박으로 인해 이들은 주의 날의 첫 단계인 대환난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바울 자신도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말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대부분의 소문과 마찬가지로 이 소문들은 너무나 근거 없는 것이었다. 어떤 소문은 바울이 영으로, 즉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5) William Kelly,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했다. 다른 소문에 의하면 이 소식은 말로, 즉 사도가 대환난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공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었다.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는 위조된 편지, 곧 주의 날이 시작되었다고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편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분별하고 있다.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영어 성경은 ‘as if from us’; ‘마치 우리에게서 받은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음-역주)이라는 표현은 영, 말, 편지 모두에 공히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이들 출처 중 어떤 것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대다수 사본들을 따르고 있는) 흠정역(KJV)이나 새흠정역(NKJV)을 보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날이 이미 오지 않았나 하는 염려에 싸여있었다. 그리스도의 날과 그와 유사한 표현들은 대개 보편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가리키고 있다(고전 1:8, 5:5; 고후 1:14; 빌 1:6,10, 2:15-16).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는 데 대해서 염려하지는 않았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휴거 전 대환난주의자들은 개역성경(RV)의 번역을 더 좋아한다. “주의 날은 지금 임해 있다.”⁶⁾

바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6) “주”(쿠리오스, *kurios*)는 가장 오래된 비평 사본이다. 전통적인 번역은 흠정역과 새흠정역의 크리스트스(*Christos*)이며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때때로 이 오래된 역본들이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수 사본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 일부 학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날”을 핏박의 마지막 시기로 분별하고 있으며 이 시기는 불법의 사람이 드러난 후에야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이 시기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시기를 휴거 이후 사건과 연관시킴으로써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2. 불법의 사람(2:3-12)

2:3 이제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결코 그 날에 처해 있지 않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건들이 먼저 일어나야만 한다. 휴거가 일어난 뒤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먼저 떨어져나감, 곧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⁷⁾ 이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이 말이 대다수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는 것,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인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은 인격 면에서 “죄악의 사람”, 혹은 “불법의 사람”⁸⁾이다. 즉 죄와 반역의 화신인 것이다. 운명 면에서 그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다. 즉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대환난 기간 중에 일어나게 될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언제 동일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알기란 어렵다. 어떤 주석가들은 “불법의 사람”은 유대인 적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어떤 이들은 그가 부활한 로마제국의 이방인 황제라고 가르친다. 여기에 말세에 나타날 큰 지도자들에 대한 이름 몇 가지를 나열해 보겠다.

-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살후 2:3)
- 적그리스도 (요일 2:18)
- 작은 빨(단 7:8,24-26)
- 성격이 포악한 왕(단 8:23-25)

7) J. D. 펜테코스트(Dwight Pentecost)와 같은 학자들은 아포스타시아(apostasia)를 “떠남”으로 번역해서, 이것이 바로 휴거를 가리킨다고 본다. 만일 이 견해가 옳다면 이 구절은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하는 완벽한 구절이다.

8) “죄”는 전통적인 해석이며 다수 사본의 해석이다. “불법”은 비평적인 해석이다.

- 장차 올 한 왕(단 9:6)
- 자기 뜻대로 행하는 왕(단 11:36)
-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슥 11:17)
-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계 13:1-10)
- 땅에서 나오는 짐승(계 13:11-17)
- 머리가 일곱 개고 뿔이 열 개인 자주 빛 짐승(계 17:4,8-14)
- 북방 왕(단 11:6)
- 남방 왕(단 11:40)
- 거짓 선지자(계 19:20; 20:10)
- 마곡 땅의 곡(겔 38:2-39:11; 계시록 20장 8절의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곡과 혼동하지 말 것)
- 자기 이름으로 오는 어떤 사람(요 5:43)

불법의 사람에게는 여러 해를 내려오면서 종잡기 어려운 다양한 이름들이 붙여졌다. 그는 곧 로마 카톨릭 교회로, 교황으로, 로마 제국으로, 배도한 기독교의 마지막 형태로, 부활한 유다로, 부활한 네로로, 유대 국가로, 모하메드, 루터, 나폴레옹, 뭇솔리니, 그리고 사단의 화신으로 불렸다.

2:4 그는 신 숭배라면 어떤 형태든 강하게 대적할 것이며 스스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다. 이러한 묘사는 그가 적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리스도의 자리에 스스로 앉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⁹⁾

다니엘 9장 27절과 마태복음 24장 15절은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9) 헬라어 전치사(여기서는 접두사임) *anti*는 “...을 거스러서”와 “...대신에”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적그리스도에게 부합된다.

훼방 행위는 대환난 기간 중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될 것이다.

2:5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이 견뎌내고 있는 심한 핍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듯한 모순된 가르침을 받고 보니 사도가 했던 말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모두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에 믿음의 중요한 진리들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

2:6 이들은 불법의 사람이 완전하게, 또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정한 때까지 그를 계속 막게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장에 나오는 증대하지만 그러나 답이 나오지 않은 세 번째 질문을 대하게 된다. 첫 번째 질문은 “배도가 무엇이냐”이며, 두 번째 질문은 “불법의 사람은 누구냐”이고, 세 번째는 “그 막는 자는 누구 혹은 무엇이냐”이다.

6절 전반부에서는 막는 자를 사람이 아닌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 ‘막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7절에서는 사람으로 나온다 - ‘지금 막는 자.’¹⁰⁾

E. W. 로저스(Rogers)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것은 불법의 사람이 반드시 적합한 시기에 나타나게 할 목적으로 지혜롭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를 제지하고 있는 어떤 것과 어떤 사람이다.”¹¹⁾

10) 헬라어는 6절에 중성 관사와 분사가 있으며 7절에는 남성 관사와 분사가 있다.

11) Rogers, *Future*, p. 65

“막는 자”의 정체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견해 중 일곱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로마 제국, (2) 유대인 국가, (3) 사단, (4) 인간정부에서 보게 되는 법과 질서의 원리, (5) 하나님, (6) 성령님, (7)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참된 교회.

“막는 자”에 대한 묘사는 위에서 언급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와 성도 개인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에게 가장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맞아들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 막는 자가 어떤 것과 어떤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8,13,14절에서 증성(성령)과 남성(그)¹²⁾으로 지칭되고 있다. 일찍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성령님은 악을 막는 것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계신다. 그 이후에도 그분은 이사야 59장 19절 하반절, 요한복음 16장 7-11절,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역시 동일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신다.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마 5:13) 세상의 빛이(마 5:14) 되는 것도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지만 부패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도 한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데 사람은 이 어둠 속에서 악한 행위를 일삼는 것을 좋아한다(요 3:19). 교회 안과(고전 3:16) 믿는 사람 각자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고전 6:19)께서 만일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불법을 막는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2:7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불순종의 영이 이미 그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것

12) 성령님은 엄격한 문법 때문에 증성으로 부르고 있다(*pneuma*는 증성이다). 남성성은 그분의 성품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은 비밀스런 형태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직 싹이 나고 있는 형태였다.

이 영이 완전하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하시며 믿는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것을 막는 힘이었다고 믿는다. 성령님께서는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즉 휴거 때까지 이 역할을 계속 담당하실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의가 제기된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제거되실 수 있다는 것인가”이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의 한 분으로 그분은 무소부재(無所不在), 즉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분은 항상 어디에나 계시며 한 번에 또 동시에 계신다. 그러나 그분이 오순절 날 세상에 오셨다는 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자신과 아버지가 성령님을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셨다(요 14:16, 26, 15:26, 16:7).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성령님은 오신 것인가? 그분은 교회와 믿는 각 사람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다. 오순절이 될 때까지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오순절 부터는 그 안에 계속 거하고 계신다(요 14:17). 오순절이 될 때까지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떠나기도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 51:11)라고 기도했던 것이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교회시대의 믿는 자들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요 14:16).

우리가 믿기로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날 오셨다(즉 교회와 믿는 각 사람 속에 거하시는 분으로서)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세상을 떠나시리라

는 것이다. 그분은 여전히 세상에 남으셔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휴거 때 옮기신다는 것은 대환난 동안에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으리라는 뜻이 아니다. 물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2:8 교회가 하늘로 휴거된 뒤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사도는 적그리스도의 행적은 건너뛰고 그 궁극적인 운명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구절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자마자 멸망당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물론 그렇지 않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지상통치를 위해 강림하시기 전까지 공포통치를 자행하도록 허락받는데 이는 9-12절에 묘사된 바와 같다.

만일 우리가 불법의 사람이 휴거 뒤에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머물게 된다고 믿는 것이 옳다면 그의 광란의 행적은 대략 7년간 이어지게 된다. 즉 대환난 기간 만큼이다.

“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실 것이며”(사 11:4; 계 19:15), “친히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저를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한 마디와 그분이 나타나셔서 (헬; 파루시아) 밝게 비취심(헬; 에피파네아)이면 날뛰는 이 사기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미 설명한대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심은 그분이 왕권을 차지하고 천년동안 다스리기 위해서 땅에 재림하실 때이다.

2:9 “악한 자의 입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른다. 악한 자의 행적

은 사단의 행적과 닮았는데 이는 그가 사단에게서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보일 것이다.

여기서 모든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귀와 그 부하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불법의 사람도 기적을 행할 것이다(계 13:13-15).

기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키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 주님의 기적들은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했는데 그 이유는 단지 그 이적들이 초자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성취했고 또 너무나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었기에 사단으로서 자기의 노선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 이적들을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2:10 적그리스도는 온갖 형태의 악을 부정직하게 사용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은혜의 때에 복음을 들었지만 진리를 사랑함이 없는 사람들)을 속이려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믿었더라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속고 있다.

2:11 하나님은 실제로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실 것이다. 물론 거짓 것은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바로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를 거절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요 5:43)고 경고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자

기에게 드리라고 요구하는 불법의 사람을 영접한다. “빛을 거부하면 빛을 빼앗긴다.” 사람이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많은 대로 응답하실 것이다(겔 14:4).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유대인일 것이다(겔 28:9-10; 단 11:37-38).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인 척하더라도 그가 만일 유다 지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속지 않을 것이다.

2:12 이 구절로 볼 때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에 복음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휴거 이후에는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때는 적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여기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가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다. 이것은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대환난 동안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144,000명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온 세상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 구원받게 될 사람들은 이 시대에 분명하게 제시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고 또 의도적으로 구주를 배척하지도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4. 감사와 기도(2:13-17)

1. 성도들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에 대한 바울의 감사(2:13-14)

2:13 본 장의 처음 열두 구절에서 바울은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운명을 설명했다. 이제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로 화제를 옮겨서 이들의 부르심과 운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하는 중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의 구원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 과거, 현재, 미래로.

“하나님이…너희를 택하사.”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사 구원받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가르치지만, 그분이 사람을 택해서 저주받게 하신다고는 결코 가르치고 있지 않다. 사람은 자기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잃어버린바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바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딤후 2:4; 벧후 3:9). 그러나 성경은 “만인구원론”, 곧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구원받는다는 이론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

“처음부터.” 여기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은 세계가 지음 받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뜻일 수가 있다(엡 1:4). 두 번째로, 이 표현은 “첫 열매”로도 옮길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독교 경륜상 매우 일찍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구속받은 영혼들을 추수할 때 그 첫 열매 가운데 들어가도록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것은 앞에 나온 구절과 분명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은 연고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지만 반면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도록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구원 전에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그분은 한 사람을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며 그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 누군가는 “만일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잔치는 없었을 것이다. 만일 성령님이 없었다면 손님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훌륭한 말을 했다.

“진리를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위해 하실 일을 하신다. 이제 사람인 당신 편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둘 다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택하심만 보이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구원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편에서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무시한다. 진리는 양쪽 극단에 다 들어있다. 선택과 인간의 책임은 모두 성경의 가르침이며 둘 다 믿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다. 비록 어떻게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일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이다.

2:14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제 시간에 부르셨다. 이 부르심은 사람이 진리를 믿는 그 순간을 말한다. 우리 복음은 순수한 다른 복음들도 있다는 뜻이 아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지만 그 전하는 자는 여러 명이며 듣는 사람도 여러 다양한 부류들이 있다. 바울은 자기가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사도는 장래를 잠시 들여다보며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 즉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영원히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J. N. 다비(Darby)는 자신의 아름다운 시에서 이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주의 아드님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드님께서 나를 위해 얻어주신 그 은혜입니까?

영광의 아버지시여, 모든 사상을 초월하는 사상이나이다!

영광 중에, 복되신 그 형상을 친히 닮도록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13절과 14절에는 “축소판 신학 체계”가 있으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의 범위를 놀랍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선택에서 말미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2. 성도들이 위로로 받고 세움을 입도록 구하는 바울의 기도(2:15-17)

2:15 이토록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성도들은 굳게 서서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은 믿을만하고 또 권위 있는 유일한 유전은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 말한 것뿐이라는 점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유전(흠정역에서는 ‘전통’[傳統]이라고 나옴-역주)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폐하는 것을 정죄하셨다(마 15:6).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람의 유전을 피하도록 경계했다(골 2:8). 우리가 지켜야 될 유전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전수된 위대한 진리들이다.

이 구절은 교회나 어떤 종교지도자들의 전통을 정당화하는데 종종 사용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전통은 어떤 것이든지 가치 없는 것이며 또한 위험하다. 만일 인간의 전통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누가 어떤 전통은 옳고 어떤 전통은 잘못되었다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2:16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파한 사도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는 흔히 가르치고 나서 뒤이어 기도한다(살후 5:23-24; 살후 3:16). 이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드리고 있다. 우리는 바울이 성부와 성자를 단숨에 언급하는데 익숙하지만 그가 성자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물론 그는 두 분이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며 완전히 동등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헬라어로 복수 주어(그리스도와 하나님)

가 나오고 단수형 동사 네 개(사랑을 받고, 주셨다, 위로하시, 굳게 하시다)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공급하신 것을 언급하는 것은 그분을 장래에 용기와 힘을 친히 주실 분으로 믿으라고 권면하기 위해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놀랍게 나타나셨던 데로, 즉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돌이켜 보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갈보리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제 영광스러운 장래의 소망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기이한 은혜로 말미암았다.

2:17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저 위로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투에서 전진할 수 있는 힘도 주는 것이다. 사도의 사전에는 “후퇴”란 말이 없었으며 우리의 사전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선한 일과 말”이라는 표현을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된다. 우리 입술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에는 가르침과 행함, 교리와 의무, 설교와 실천이라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5. 실제적인 권면(3:1-15)

1. 서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3:1-5)

3:1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함을 느꼈다. 3장은 바울이 세 가지 면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되고 있다. (1) 말씀의 전파, (2) 말씀의 승리, (3)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보전을 위해서였다.

그는 “주의 말씀이 달음질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복음이 여러 가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그 말씀이 속히 달음질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시 147:15).

그는 또 말씀이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다른 곳에서도 놀라운 영적, 도덕적 혁명을 일으키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3:2 세 번째 요청은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대적하는 무리를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듯한데 아마도 고린도의 유대인들인 것 같다(행 18:1-18). “무리한”이라는 단어의 선택은 적절한 것이었다. 복음과 그 전하는 자를 사람들이 대적하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정치, 과학, 아니면 다른 온갖 다양

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서도 복음만 나오면 아예 이성을 잃어버리고 만다.

3:3 2절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와 3절의 “그러나 주는 미쁘사”(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음-역주)의 대조의 묘미를 놓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신실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눈을 돌려 결코 실망시키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고전 1:9).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신다(고전 10:13).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요일 1:9). 그리고 이 구절을 볼 때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 곧 사단에게서 지키신다.

3:4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주는 미쁘시다.…우리가 너희에게 대하여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믿노라).” 데니(Denney)가 한 말처럼 “주 안에서 여러분은 그들 자체로는 연약하고, 불안정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의지할 수가 있다.”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명하는 일들을 행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 편과 사람 편에서의 역할이 놀랍고도 흥미 있게 섞여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 계명들을 지키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이와 똑같은 사상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하나님 편에서의 역할). “믿음으로 말

미암아”(우리 편에서의 역할).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2장 12-13절에서도 보게 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우리 편에서의 역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시니”(하나님 편에서의 역할).

3:5 핍박을 받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분한 마음이 생겨나기 쉽고 또 핍박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포기도 쉽게 하게 마련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인내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흠정역에 “그리스도를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라고 번역된 것이 새 흠정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인내”로 되어있다. 1611년도 판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변함없이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 것 같다. 새 흠정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시고 이 땅에서 보여주셨고 또 지금 하늘에서도 여전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인내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¹³⁾

이 구절에서 “주”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모두 언급된 것인데 이는 2장 13-14절에서와 같다.

13) 둘 다 소유격 명사 크리스트우(*Christou*), 글자 그대로는 “그리스도의”(of Christ)에 대한 옳은 번역이다. 흠정역은 목적격으로 번역했다(“of-단어”가 동작을 받는다는 것은 그 수식하는 명사가 암시해주고 있다). 새 흠정역의 주석은 그리스도가 인내를 보여주는 분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2. 불순종하는 자들의 치리에 대해(3:6-15)

3:6 분명히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을 너무 열심히 기다린 나머지 생업을 그만 둔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태도라 하여 격려하고 있지 않으며 아울러 이렇게 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치리할 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의 지침은 규모 없이 행하는 모든 형제, 즉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일하기를 거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명령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믿는 자들은 그런 형제와는 사회적으로 어울리기를 거부함으로써 그 사람의 행동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출교할 근거가 될 정도의 심각한 것은 아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받은 유전은 지칠줄 모르는 근면, 부지런히 일함, 그리고 자비량하는 전통이었다.

3:7 바울은 자신의 생업을 버리지 않았는데 이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고 기다렸지만 주님께서 자기 생전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섬기며 일했다.

3:8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에 눌러 앉아서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몸소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벌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나긴 낮과 피곤한 밤을 의미했지만 바울은 그들 중 아

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한다는 결심을 지켰다.

3:9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는 자기 사역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전 9:6-14; 딤후전 5:18). 그러나 그는 덕스러운 독립과, 지지 않는 근면의 본이 되려고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사용치 않는 쪽을 더 좋아했다.

3:10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일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는 사람편을 들어주지 말라는 명을 이미 받은 바 있었다. 사지가 성한 그리스도인이 일하기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먹어서도 안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친절해야 된다는 사실과 모순이 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게으름을 독려하는 것은 절대 친절이 아닌 것이다. 스피전(Spurgeon)은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가장 진실한 사랑은 그들이 잘못하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교제를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3:11 이제 사도는 이 규모 없는 형제들의 거짓된 영성의 모순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미있는 말장난을¹⁴⁾ 하고 있다. 그의 말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옮겨졌다.

- (1)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어떤 사람들.”
- (2) “바쁜 사람들이 아니면서 괜히 참견하느라 바쁜 어떤 사람들.”

14) 헬라어 단어를 보면 전혀 “에르가조메노우스(*ergazomenous*; 일하는)”가 아니며 “페리어르가조메노우스(*Periergazomenous*; 돌아다니며 일하는 것, 또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다. (어근인 ‘*erg*’-‘일하다’를 주목하라.)

(3) “자기 일은 안 바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유난히 바쁜 어떤 사람들.”

(4) “자기 일은 빼놓고 모든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는.”

3:12 이런 사람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우리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로 되어 있음-역주)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라”는 명령과 권함을 받고 있다. 이것은 좋은 간증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3:13 성실하게 일해 온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격려를 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경주의 끝이지 시작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3:14 그러나 사도의 이러한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과 사권의 교제 갖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를 징계해야 한다. 이러한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것이다.

3:15 그러나 그 징계는 출교와 같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잘못을 범해서 징계를 받지만 그 사람을 여전히 형제로 여기는 것이다. 출교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김을 받는다”(마 18:17).

믿는 자에 대한 징계는 언제든지 그가 주님께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내리는 것이다. 께씸

한 마음이나 적의를 품은 채 해서는 안되며 그리스도인다운 예의를 갖추되 확고한 자세로 다루어야 될 것이다. 그 형제를 원수로 여겨서는 안되며 형제로 생각해야 된다.

오늘날의 우리가 보기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강림하심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다 못해 일상의 의무를 버리게 되었다는 것은 이상하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의 극단으로 치달은 것이다. 우리는 사업과 돈버는 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주님의 임박한 재림의 소망이 주는 신선함과 흥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6. 축복과 인사(3:16-18)

3:16 이 구절은 “폭풍 같은 서신의 평화로운 맺음말”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고난 받는 성도들이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평강을 알도록 기도한다.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세상은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환경이 어떠한지라도 이 평강을 얻도록 해야 한다. “평강은 핍박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평정이며 이것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3:17-18 이 부분에 이르러서 바울은 분명히 비서로부터 붓을 넘겨받아서 친히 끝맺는 인사말을 썼을 것이다. 그는 친필로 쓰는 문안인사를 본인이 쓰는 모든 서신의 표적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편지 말미마다 바울이 친필로 쓰는 것은 그가 이 편지를 썼다는 증거가 된다는 뜻으로 이 말을 이해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표적은 바울의 편지를 특징짓는 작별인사라고 믿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롬 16: 24; 고전 16:23; 고후 13:14; 갈 6:18; 엡 6:24; 빌 4:23; 골 4:18; 살전 5:28; 딤후 6:21; 딤후 4:22; 딤후 3:15; 몬 25; 그리고 만일 히브리서를 바울

이 쓴 것이 맞다면 히브리서 13:25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참조구절들로 볼 때 우리는 그의 모든 서신들은 은혜의 말로 끝맺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교회의 휴거

주의 강림이라는 진리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매 장마다 나오며 후서에서는 처음 두 장에 모두 나온다. 이것은 두 서신의 공통적인 주제이며 서로의 짜임새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는 황금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언은 우리의 지성으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하거나 호기심을 부추길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언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소망이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크고 중대하다.

(1) 그것은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살전 5:23; 요일 3:3).

(2)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라는 짐을 가지게 한다(창 19:14; 겔 33:6; 유 21-23절)

(3)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도록 격려한다(롬 8:18; 고후 4:17; 살전 4:13-18).

(4) 그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재산에 연연하는 마음을 줄여준다. 물질의 가치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옴에 따라 줄어들기 때문이다(레 25:8-10,14-16).

(5) 그것은 우리가 잘못을 범한 사람 누구에게라도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갚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다(마 5:24; 약 5:

16).

(6)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부지런히 섬기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요 9:4; 살전 1:9-10).

(7) 그것은 우리가 계속 기다리는 자세를 유지하게 해주며(눅 12:36) 또 그분 안에 계속 거하게 해서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끔 한다(요일 2:28).

(8) 그리스도를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해준다(막 8:38; 눅 9:26).

(9) 위로를 안겨주는 소망이 된다(요 14:1-3,28; 살전 4:18; 살후 1:7; 딤후 2:12).

(10) 절제와 온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격려해준다(빌 4:5).

(11) 마음을 합하고 사랑할 동기가 된다(살전 3:12-13).

(12)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의 자세를 가지도록 격려해준다(골 3:1-4).

(13) 장차 다가올 회계와 상급을 기억나게 해준다(롬 14:10-12; 고전 3:11-15; 고후 5:10).

(14)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강력한 호소력으로 사용된다(행 3:19-21; 계 3:3).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진리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와 구주되시는 그리스도께 자기 삶을 의탁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휴거 때에 들림 받아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남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이 만일 그 날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의 요약을 덧붙이고자 한다.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하는 주장들

(1) 첫 번째 주장은 휴거가 임박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자세로 기다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구절이 성경에 많다. 우리는 주님의 강림하심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만일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릴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주님은 적어도 7년 동안은 결코 강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대환난 기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시작되면 대환난은 7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환난 전 휴거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견해이며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라도 오실 수 있다고 믿는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날을 기다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구절들을 여기 일부 소개한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우리말 성경에는 ‘간절히’가 없음-역주) 기다리느니라”(롬 8:23).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고후 5:2).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간절히(우리말 성경에는 ‘간절히’가 없음-역주) 기다리노니”(갈 5:5; 의의 소망은 주님의 강림하심과 그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몸이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우리말 성경에는 ‘간절히’가 없음-역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빌 3:20-21).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빌 4:5).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살전 1:9-10).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딤후 2:13).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우리말 성경에는 ‘바라느’이라고 되어 있음-역주)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히 9:28).

“잠시 잠간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히 10:3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약 5:7-9).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3).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라”(유 21절;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은 그분이 자기 피로 값 주고 사신 백성들을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강림하시는 것을 말한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 3:11).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계 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다른 구절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휴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전반적인 인상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있다. 시작했을 때부터 줄곧 믿음을 지켜온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시기는 알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2-44).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막 13:32-37).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러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눅 12:36).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우리말 성경에는 ‘간절히’가 없음-역주)기다림이라(고전 1:7).

“꿈(우리말 성경에는 ‘꿈’이 없음-역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딤후 4:1, JND역).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요일 2:18).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계 3:3).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계 16:15).

(2) 두 번째 주장은 교회가 장차 닥칠 진노에서 건짐을 받으리라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은 주 예수님을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을 배운다. “노하심”이라는 단어는 대환난 동안의 진노하심을 언급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데살로니가전후서의 문맥을 살펴보면 대환난 기간 동안의 진노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살전 5:2-3; 살후 1:6-10, 2:10-21을 보라).

(3)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어 시험의 때를(헬라어로는 ‘ek’이며 ‘-에서부터 바깥으로’라는 뜻) 벗어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시고 계신데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4) 계시록의 구조는 환난 전 휴거의 가르침을 그대로 담고 있다.

2장과 3장에서 교회를 보면 땅 위에 있지만 3장 이후에는 땅 위에 있는 것으로 다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4장과 5장에서는 성도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늘에 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는 6-19장까지를 보면 지상에 대한난이 임한다.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고 나서의 일이다.

(5) 대한난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뒤 비로소 시작된다(살후 2:3). 그러나 불법의 사람은 먼저 막는 자가 제하여질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살후 2:7-8). 막는 자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임이 틀림없다. 성령님께서서는 교회가 세상에 있는 동안만큼은 악이 완전히 자라는 것을 방해하시거나 막으시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께서서는 휴거 때에 옮기실 것이다.

어떤 의미로는 성령님께서서는 늘 세상에 계셨고 또 늘 계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오순절에 믿는 자들과 교회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점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서는 휴거 때에 옮기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대한난 기간 동안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분은 여전히 죄인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며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 속에 영원히 거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구약시대에 하시던 것과 거의 같을 것이라고 보인다.

(6)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휴거는 위로를 주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의 날은 위로하기 위해 오지 않고 밤에 도적같이 온다(살전 5:2). 이는 갑작스런 멸망(3절)과 진노(9절)의 때가 될

터인데 아무도 이 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3절). 이와 대조적으로 휴거는 언제나 밝은 소망이며 늘 두렵게 만드는 소망이 아니다.

(7) 그리스도께서 자기 성도들을 위해 오시는 때와 그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때 사이에는 간격이 있음이 틀림없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오실 때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취함을 받고 영광의 몸을 받게 될 것이다(고전 15:5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상통치를 위해 돌아오실 때에는 구원받았지만 날 때부터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자식을 기르리라는 사실을 볼 때 알 수 있다(사 65:20-25; 슥 8:5). 만일 휴거와 주의 나타나심이 동시에 일어난다면(환난 후 휴거설) 나중의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란 말인가?

휴거와 지상통치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 간격이 있다는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휴거 뒤에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는데 그때 주님께서 자기 성도들의 신실함에 대해 판단을 내리시고 그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게 된다(고후 5:10). 이 때 받는 상급은 천년왕국에서 성도 각자가 누리게 될 통치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눅 19:17,19). 만일 휴거와 지상통치를 위한 강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일어날 시간이 없을 것이다.

(8) 주의 날은 어느 누구에게나 오직 밤에 도적같이 이르고 만다(살전 5:2). 그러나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밤에 도적같이 덮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살전 5:4).

그러므로 이 날은 결코 믿는 자들을 덮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① 믿는 자들은 밤에 속하지 아니한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살전 5:4-5). ②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기 때문이다(살전 5:9).

(9) 휴거가 일어날 때 믿는 자들은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며(요 14:3), 환난 후 휴거설을 확신하는 것처럼 곧장 지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10) 대환난은 그 성격상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면이 뚜렷하다. 대환난은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불린다(렘 30:7). 마태복음 24장에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들을 눈여겨보라. “유대”(16절), “안식일”(20절), “거룩한 곳”(15절). 이 용어들은 교회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말들이다.

(11) 구약성경의 모형 중에는 환난 전 휴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우리가 모형을 토대로 교리를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유형들은 환난 전 휴거의 견해와 잘 들어맞는다.

교회의 모형인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쏟아지기 전에 취해감을 받았으며 반면 유대인 중 남은 자들의 모형인 노아와 그 식구는 홍수 속에서 보존되었다.

롯은 심판의 불이 쏟아지기 전에 소돔에서 건짐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이사를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갈보리에서 바치시는 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사가 언급되는 때는 그가 신부를 맞이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고 나갔을 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처음 나타나시는 것은 자기 신부를 맞이하여 하늘로 데려가려고 오실 때

다.

엘리아는 악한 이세벨에게 심판이 내리기 전에 하늘로 취함을 받았다.

(12) 다니엘이 한 예언(단 9:24-27)의 처음 69주는 주전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내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이다. 이 기간은 교회와 전혀 무관하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환난 기간인 70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인가? (사실 교회시대는 69주와 70주 사이의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삽입기간 동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환난 전 휴거를 반대하고 환난 후 휴거를 지지하는 주장들

(1)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약속은 성도들이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기간 동안 보존된다는 것이다(요 17:15와 비교해보라).

답 : 이 구절에서 “너희를 면하게 하리라”고 번역된 단어들은 문자 그대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다”이다. 여기서 헬라어의 전치사 (*ek*)는 “...의 바깥으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담긴 가르침은 교회가 환난 기간 중에나 그 기간 내내 보존된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이다”라고 기도하시고 있다.

플러머(Plummer)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이 살고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악한 자로부터(*ek*) 제자들이 벗어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믿는 자들은 사단의 통치로부터 늘 벗어나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기었기 때문이다.

(2) 헬라어로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대환난(*the Tribulation*)은 인내를 이룬다”고 되어 있다.

답 : 바울은 환난이 인내를 이루는 때는 오직 대환난 기간(*the Tribulation Period*)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주장은 분명히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환난은 인내를 자라게 한다는 것이다. 또 프랑스어나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헬라어도 추상명사는 흔히 관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정확한 번역인 것이다.

(3)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환난이 약속되었다(요 16:33). 우리가 환난을 겪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답 :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행 14:22)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믿는 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환난과 그리스도를 버린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대환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4)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은 성도들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대환난이 끝날 무렵 지상에 강림하시고 나서라는 것을 보여준다.

답 : 이 편지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서 자기 안식을 얻었다. 그러나 그들을 핍박한 사람들의 운명과 그 성도들이 옳았음을 인정받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돌아오실 때 명백히 들어날 것이다.

(5) 사도행전 3장 21절에 따르면 만유를 회복하시는 때, 즉 천년 왕국 때까지 하늘이 주 예수님을 받아두리라고 했다.

답 :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것이다(4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만큼은 이 말은 사실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하신 말씀과도 일치된다. 이 일은 대환난 말기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보다 7년 앞서서 휴거되고 땅에 없을 것이다.

(6)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원수가 멸망 당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리라고 했다. 이것은 대환난 말기에 일어날 것이다.

답 : 요한계시록 20장 8-9절을 보면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그리스도의 원수가 될 사람들이 나온다. 대환난이 끝나고 1000년이 지

나서다. 하나님의 우편은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존귀와 권세의 자리를 묘사하는 것 같다.

(7) 디도서 2장 13절에서 복스러운 소망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과 동일한 것이다. 휴거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전 휴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상 통치를 위해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답 : 이 주장은 그랜빌 샤프(Granville Sharp) 규칙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통사론(統詞論) 규칙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규칙에 따르자면 “...와...”(헬라어로는 *kai*)로 연결된 두 명사는 격이 같으며 정관사는 첫 번째 명사 앞에는 붙지만 둘째 명사에는 붙지 않으며 이 둘째 명사는 첫 번째 명사가 가리키는 사람이나 사물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되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디도서 2장 13절에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우리말 성경에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음-역주)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과 “구주”는 “...과”로 연결되어 있다. 둘 다 격이 같다. 또 정관사(“우리의”)라는 헬라어에 관사가 이미 포함되어 있음)가 “하나님” 앞에는 있지만 “구주” 앞에는 없다. 그러므로 그랜빌 샤프 규칙에 따르자면 “구주”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분을 더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 같은 구절에서 보면 헬라어로는, “복스러운 소망과 영광스런 나타나심”(우리말 성경에는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되어 있음-역주)이라고 나

온다. 그러므로 그랜빌 샤프 규칙에 따라 복된 소망은 영광스런 나타나심과 동일한 것이며, 영광스런 나타나심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통치를 위해 강림하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소망은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기에는 답이 두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모든 훌륭한 규칙들과 마찬가지로 그랜빌 샤프 규칙에도 예외가 있다. 한 가지 예는 누가복음 14장 23절인데 헬라어로는 “대로(大路; 우리말 성경에는 ‘길’로 되어 있음-역주)와 산울로 나가라!”로 되어 있다. 만일 규칙대로 하자면 우리는 대로와 산울이 같은 것이라고 믿어야만 한다! 두 번째 예외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나온다. 그렇지만 주의 깊은 성경학도라면 누구든 사도가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설령 복되신 소망과 영광스런 나타나심이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로서는 휴거가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교회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반면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그분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포칼립시스*(계시, 나타나심)와 *에피파니아*(찬란하게 빛남 혹은 나타남) 두 단어는 그리스도의 지상통치를 위한 강림 뿐 아니라 휴거 또한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8) 믿는 자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지상통치를 위한 강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다른 성경구절들로 고린도전서 1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7,13절, 4장 13절이 있다.

답 : 위의 구절들에 사용된 “나타나심”(계시, revelation)과 “나타나심”(appearing)이란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 뿐 아니라 그 성도들을 위해 오시는 것 양쪽에 적용할 수 있다. 먼저 그분은 스스로 나타나셔서 교회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구절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지상통치를 위한 강림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믿는 자의 소망은 예언된 장래의 모든 복들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휴거와 그리스도의 지상통치를 위한 강림,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고대하고 있다.

(9) 교회의 전통적인 소망은 환난 전 휴거가 아니었다.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이제 고작 160여년 되었으며 이는 J. N. 다비의 가르침을 통해서였을 뿐이다.

답 : 신약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성도들은 그분이 언제 오실지를 몰랐으며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자세로 기다렸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르쳤다가나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식의 주장을 가리켜서 아드 호미넴(ad hominem; ‘그 사람에게란 뜻)이라고 부르며 이는 어떤 사안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이지 “아무개가 무엇을 가르쳤느냐”가 아니다.

(10)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마지막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살전 4:16)는 휴거와 연관된 것이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일곱 번째 나팔과 동일한 것이다. 일곱 번째 나팔소리는 “세상 나라

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대환난 말기에 올려 퍼지기 때문에 주의 재림은 환난 후가 틀림없다.

답 : 이 나팔들은 다 같은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과 같은 것이다. 이 나팔은 휴거를 알리며 믿는 자들의 부활과 그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옮긴다는 신호다. 그것은 교회에게는 “마지막 나팔”이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일곱 번째 나팔은 대환난 기간 동안 쏟아지는 일련의 심판 중 마지막 것이다. 그것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나팔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살전 4:16)이라고도 불리며 대환난 전에 울린다. 일곱 번째 나팔은 대환난이 끝날 무렵 울린다.

(11) 요한계시록 20장 4-5절의 첫째 부활은 대환난 말기에 일어나며, 환난 전 휴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환난 보다 7년 앞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답 : 첫째 부활은 따로 떨어져서 일어나지 않고 일련의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다(고전 15:23). 그 다음 단계는 휴거 때에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대환난 기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이다(계 20:4-5). 달리 말하면,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와 모든 참된 신자들의 부활을 포함하는 것이다. 언제 부활하느냐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모든 불신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부활해서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된다(계 20:11-15).

(12) 마태복음 13장 24-30절을 보면 밀과 가라지가 세상 끝, 곧 대환난이 끝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된다.

답 : 그렇다. 하지만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지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다. 대환난이 끝날 무렵까지 천국에는 참된 사람들과 거짓된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것이다.

(13) 휴거는 은밀히 일어날 수 없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살전 4:16).

답 : 휴거가 은밀히 일어날 것이라는 가르침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전 15:52). 이 세상이 무엇을 보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도 전에 이미 휴거는 끝이 날 것이다.

(14) 죠지 뮐러(George Müller), 새뮤얼 트레겔레스(Samuel Tregelles), 오스왈드 스미스(Oswald Smith), 또 다른 저명한 인물들은 환난 후 휴거설을 믿었다.

답 : 이 주장은 아무 것도 입증하는 바가 없다. 저명한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관한 논쟁 중 어느 한 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 포진해 있다.

(15)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언급하는 대부분의 구절들은 지상통치를 위한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리키고 있다.

답 : 이 사실이 휴거의 진리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신약에서 지옥보다 천국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고 해서 지옥이 없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16) 교회는 대환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분노, 혹은 사단의 분노를 견디게 될 것이다.

답 : 계시록에서는 여섯 번이나 대환난 기간 동안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계 14:9-10).

“천사가 낮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계 14:19).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계 15:1).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계 15:1).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계 15:7).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계

16:1).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계 16:19).

(17)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계 22:7,12,20)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아무 때라도 오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분의 강림하심이 갑작스러울 것임을 의미한다.

답 : 이미 앞에서 다룬 문제다. 이것은 “갑작스럽다”는 뜻이 있지만 “잠시 잠간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히브리서 10장 37절과 같은 구절들이 여전히 있다.

(18) 데살로니가후서 2장 6-8절에서 막는 자는 성령이 아니며 로마정부나 하나님의 능력이다.

답 : 이점은 그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다.

(19) 그리스도의 강림이 사도시대에는 임박한 사건이었을 리가 없다. 베드로와 바울은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요 21:18-19; 벧후 1:14-15; 딤후 4:6).

답 :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기가 살아있을 것으로 종종 말했으며(살전 4:15), 또 어떤 때는 죽어서 부활하게 되는 신자들 가운데 자기도 속할 것으로 말했다(빌 3:10-11).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리라고 기대하지만 휴거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믿었으며(벧전 4:7),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벧후 3:4)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정죄했다.

(20) 주님의 강림하심은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마 24:14).

답 : 이것은 대환난 동안 온 세상에 전파될 천국복음을 언급하고 있다(14절). 이 복음의 조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너는 그분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도와 같지만 우리의 구원은 휴거를 고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때 너는 그분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21) 마태복음 28장 19-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구절들은 복음이 “온 천하”와 “땅 끝까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오실 수 없었다.

답 : 골로새서 1장 6,23절에서 바울은 “온 천하”와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들었다고 말한다. 로마서 10장 18절에서 복음은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물론 우리는 이 구절들이 그 당시 알려진 세상, 곧 지중해와 인접한 나라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2) 사도행전 18장 21절; 23장 11절; 로마서 15장 22-25,30-31절에 나타난 대로 바울이 가졌던 장기 선교계획은 그가 주님이 가까운 미래에 오실 것으로 생각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답 : 바울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것이었다(행 18:21; 롬 1:10; 고전 4:19). 그는 주님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시지 않을 것처럼 일했지만 그분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것처럼 기다리며 근신했다.

(23)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리라고 했다(딤후 4:1-3; 딤후 3:1-5). 이것은 주님이 일정기간 동안은 오시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답 : 바울은 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고 말했으며(살후 2:7), 요한은 자기 시대에 “이것이 마지막 때라”(요일 2:18)고 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소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떠한 문제도 보지 못했다.

(24) 마태복음 25장 14-30절과 누가복음 19장 11-27절과 같은 비유들은 긴 시간이 지나야 주님께서 재림하시리라는 전제를 갖게 한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것으로 생

각해서 기다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답 :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유를 토대로 교리를 세우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는 그들이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살전 1: 10). 그러나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마태복음 25장 19절의 “오랜 후”는 임박성을 배제하기엔 너무나 막연하다. 누가복음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을 가르치고 있다(눅 19: 11).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의 휴거가 어느 순간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문헌

Buckland, A. R. St. Paul's First Epistle to the Thessalonians. Philadelphia: The Union Press, 1908.

Buckland, A. R. St. Paul's Second Epistle to the Thessalonians. Philadelphia: The Union Press, 1909.

Denney, James. The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New York: George H. Doran Company, n. d.

Eadie, Joh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of the Epistles of Paul to the Thessalonians. London: MacMillan, 1877.

Frame, James E. A Critical and Exegetical Thessalonians, ICC. New York: Chas. Scribner's Sons, 1912.

Hogg, C. F. and W. E. Vine,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Thessalonians. London: C. A. Hammond, 1953

Kelly, William.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Thessalonians. London: C. A. Hammond, 1953.

Morris, Leo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Thessalonians, TBC.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7.

Morris, Leon.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NIC.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9.

Wood, George Robert Harding. St Paul's First Letter. London:
Henry E. Walter Ltd., 1952